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란타 (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8월 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85 호

"선생님, 능인사 스님께 제가 오늘 간다고 전해 주세요. 전화번호도 적어 주시고요."

학교 재건축으로 하루 온 종일 제대로 앉아 쉴 서 없이 몸을 놀리던 이재격씨(52, 삼양초등학교 기능직)가 퇴근하려는 L교사를 막아서며 말을 건넸다. 주지스님이 몸이 좋지 않아 절일을 돌볼 수 없게 돼 안타깝게 됐다는 서대문 능인사 얘기를 마음에 담아놓고 있었던 모양이다.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거사님 오늘은 피곤해서 안돼요. 쉬셔야죠."

"괜찮습니다. 절 돕는 일인데요…"

학교 일만해도 힘에 겨운데 절에 가 또 일을 하기는 무리라는 L교사의 만류에도 이씨는 "부처님 일이라면 피곤해 코를 골며 떨어져 자다가도 힘이 솟는다"며 호탕한 웃음을 지어 보인다.

이씨는 6년전 불교에 입문해 스님들의 법문테입, 책, 불교방송, 불교계 신문 등으로 공부하면서 행(行)이없는 팔만사천법문은 무가치한 것이



라 생각해 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우' 창립에 뜻을 같이하게 됐고, 사후 의학발전용으로 시신기증을 서약한 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육신보시'를 아끼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그 후 이씨는 퇴근 이후는 물론 일요일이면 누가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성북동 일대 사찰 구석구석을 돌며 불단을 닦고 쓸고 또 못쓰게 된 의자며 밥상에 못 질을 하는 등 궂은 일을 도맡아 해 왔다.

또 부릅의 전화를 통해 맺은 1급 소아마비 장애인의 차량봉사대로 손과 발이 되기도 하고, 생명나눔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헌혈도 한다.

L교사는 이러한 이씨의 자비행에 소리 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면서도 어디 어려운 절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씨에게 전해준다. 물론 그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이씨가 달려가 궂은 일들을 척척해 주고 돌아 온다.

이씨의 이같은 작은 실천은 "나를 낮추고 남을 존경하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불자가 되고 싶다"는 이씨의 간절한 서원과 함께 주위 동료들 뿐만 아니라 아들 딸에게도 소리없는 인생의 가르침으로 힘이 되고 있다.

〈이영자 명예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교계 방북길 잦아 질듯

조불련, 10명에 초청장 보내와
종단협 교류창구 단일화 추진

불교계 인사의 북한 방문이 가시화되고 있다.

종단협의회,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진각종 대표단 8명이 25~28일 북경에서 잇달아 조선불교도연맹과 회담을 갖고 광양이나 관문절에서의 '8.15 조국통일기원합동법회' 개최와 관련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방북 초청장을 다시 받아왔다. 이번 회담에는 황병대 조불련 부위원장 심상열 서기장 림성훈 광양시 위원회부장 등이 나왔다.



"북 국수공장 잘 돌아 갑니다" 평통한 미주본부장 도안스님이 7월21일 북한을 방문, 사리원 국수공장 운영을 점검하고 2차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도안스님은 25일 귀국길에 북경에서 법타스님을 만나 "금강국수 공장은 하루 2톤의 밀가루를 이용해 7천7백 그릇의 국수를 생산해 사리원 일대의 유치원, 학교, 병원, 성불사신도회, 지역주민 등에게 배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도필선 기자〉

초청장을 받아 온 불교계 인사는 모두 10명. 불추위 상임추진위원장 지선 상임집행위원장 효림스님, 유지원 사무총장, 보광사신도회 김기창씨, 평불협 회장 법타 미주본부장 도안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 총무부장 회정, 국제불교연구소 상임연구원 지현정사 외 1명 등이다. 불추위 김기창씨는 무역업자로 '남북농업발전과 협력을 위한 민간단체(농발협)'와의 공조로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협의회측은 이번 초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종단협의회는 산하기구인 남북교류위원회(위원장 능관)를 통해 남북교류 창구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북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불교계 인사 10명의 방북은 이제 정부의 승인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불교계 10명을 포함해 종교계 인사 40여명이 방북신청을 해 놓고 있다"며 "북한 방문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지 않는 한 종교계 인사에 대해서는 방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이번 북경회담에서 교계 각 단체들은 8.15 방북카드 외에도 북한동포돕기 성금 전달, 협영농장 및 삼인당 설립 안 등 각기 구체적인 대북 지원 및 포교 사업계획을 협의할 계획 이었으나 조불련측의 요청으로 차후에 다시만나 논의하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해인사 응향각 바깥기둥에 붙어 있는 흰개미떼와 갉아먹은 흔적. 〈사진제공: 문화일보〉

해인사에 흰개미 '주의보'

목조 건축물의 천적…팔만대장경 · 장경판전 훼손 우려

흰개미떼가 해인사를 갉아먹고 있다.

해인사(주지 보광) 응향각과 사운당에 목조문화재의 천적 흰개미가 출현,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해인사는 지난 4월 응향각과 사운당에서 흰개미를 발견해 문화재해충 방제전문업체인 한국방역산업주식회사에 조사를 의뢰, 그 결과를 6월중순 문화재관리국에 보고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가 해인사의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응향각(주지실)과 사운당(종무소)에서 흰개미 서식 흔적이 확인됐다.

한국방역산업주식회사와 문화재연구소 한성희전문위원의 조사에서도 응향각에서 흰개미의 서식지와 피해흔적, 흰개미가 떼지어 나는 군비현상 등이 확인됐으며 사운당에서도 마찬가지로 흰개미의 피해흔적이 발견됐다.

이에따라 해인사측은 세계문화유산인 장경판전으로 흰개미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화재연구소와 함께 흰개미 방제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작년부터 2년 계획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장경판전은 현재 동·서 사간고의 보수를 마쳤고 대적광전 바로 뒤에 위치한 수다라전의 기와와 서까래를 보수 중이다. 수다라전의 경판은 25평 규모의 조립식 패널 가건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수다라전은 흰개미가 발견된 응향각과 불과 20~3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흰개미가 옮겨올 경우 훼손이 우려된다. 장경판전의 보수는 법보전을 마지막으로 내년에 마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이윤호 ·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현대불교 부다피아 정보센터
정통부 지원단체로 선정

5억9천여만원 융자
불교정보검색등 '가속'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정보센터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연구관리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 촉진 기금사업'의 추진업체로 선정돼 총 5억9천6백만원의 융자지원을 받게된다.

관련사업은 '네트워크, DB, 검색시스템 기술 및 CD-ROM 매체를 이용한 불교정보 문화상품화'와 '현대불교신문 정보센터 Y2K대응방안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여름휴가로 다음주 신문쉽니다
186호 신문 8월19일字로 발간됩니다

여의도 문화센터 8월중 개관

내부공사 완료…운영책임자 임명 남아

조계종 총무원이 정치 경제 언론 연예계 포교의 교두보로 건립하는 여의도불교문화센터가 8월중 문을 열 계획이다. 당초 4월 개관을 목표로 했던 여의도불교문화센터는 공사도중 공사책임을 맡았던 스님의 공금횡령 잠적 사건으로 개관이 미뤄져 왔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7월 중 개관을 위해 공사를 서둘러 현재 내부 시설은 다 갖춰졌다"고 밝히고 "조만간 운영 책임자를 임명하고 8월 중에 개관 법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산중총회법 공청회 8월 26일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가 개최하는 '산중총회법 관련 교구본사 주지 후보지 작선제에 관한 공청회'가 8월 26일 오후1시 조계사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법등스님(종회부의장)과 현응스님(전조계종 기획실장), 이은은(중앙일보종교전문기자)씨와 손혁재(열린사회연구소장)씨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임연태 기자

"연등축제를 서울의 축제로"

고건시장 밝혀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가 서울의 문화축제로 지정된다.

고건 서울시장은 7월30일 불교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고 시장의 연등축제의 지역문화축제화 구상에 대해 "지정 요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불총림 백양사 무차선회 개최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무차선회는 86년만에 새롭게 복원되는 뜻깊은 불사입니다.

무차선회란 지위가 높고 낮음, 권력이 있고 없음, 재산이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법을 논하는 법회를 말합니다.

서옹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는 한국 불교가 조사선의 전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국내외 학자들에게 조사선의 종지를 정확히 알리며, 과학 문명의 극대화로 정신적 위기에 처한 인류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열립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인류에게 깨우침을 전해 줄 고불총림 무차선회에 많은 불자님들이 참석하시어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古佛叢林 無遮禪會

고불총림 백양사
전화 0685-92-7502, 92-4603
팩스 0685-92-2081

한국고승대법회
- 1998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혜암 큰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 1998년 8월 18일(화) 오후 2시 서옹 큰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 1998년 8월 18일(화) 오후 3시 30분 진제 큰스님(해운정사 금모신원 조실)
- 1998년 8월 19일(수) 오전 10시 서옹 큰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 1998년 8월 20일(목) 오전 8시 서옹 큰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한국선 학술대회
- 일시/1998년 8월 19일(수)~22일(토)
- 참가 학자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스위스 학자 15명 참가
- 분과별 발표 주제
  동북 아시아의 조사선 전통
  여러 불교 사상 전통하에서 본 물성에 관한 견해
  한국 선불교 전통에서 본 불교적 깨우침에 대한 이해
  선불교의 현대적 의미

배달음을 위한 선워크숍
- 일시/1998년 8월 18일(화)~22일(토) 4박5일
- 내용
  한국선 국제학술회의 참관, 참선 수행, 선종사 강의 등
- 참가 자격
  20세~60세 남녀 100명(선착순 종교 무관)
- 참가비/7만원

큰스님 사진관
현재 생존해 계신 서옹, 혜암, 진제 큰스님의 사진전으로 사진작가 박보하씨의 작품 40점이 선보인다.
- 1차 일시/1998년 8월 10일(월)~16일(일) 장소/삼성동 현대백화점 미술관 (02-3449-5508)
- 2차 일시/1998년 8월 17일(월)~23일(일) 장소/백양사 고불미술관 (0685-92-7502)
- 3차 일시/1998년 8월 24일(월)~30일(일) 장소/부산 송하 갤러리 (051-752-5289)

인터넷 중계
한국고승대법회와 한국선 국제학술대회는 버텍교학연구소의 인드라넷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합니다. 또한 큰스님 사진전도 인터넷을 통해 전시합니다.
- 일시/7월 10일~ 8월 31일
- 주소/http://indra.indranet.net/kobul/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고불총림 무차선회는 약소한 큰스님들을 한자리에 모셔 가르침을 배우고, 세계적인 불교 학자들을 만나 법을 논하여, 참선 수행을 직접 해보는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차선회가 원만성취 하는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만나기 어려운 소중한 불사에 동참하는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정성과 관심은 조사선 종지를 정확히 알려 세계 역사 참조에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일거름이 될 것입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후원금 계좌번호
우체국 501536-0027508(예금주/백양사), 농협 645117-51-015163(예금주/백양사)
국민은행 507-01-0290-691(예금주/백양사)

사 설

여름은 전법의 계절

여름이 되면 학생들은 방학을 한다. 일반 직장에서도 휴가를 맘아 그동안 피로했던 심신을 여가선용으로 달랜다. 근간 IMF한파로 다소 위축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름 방학이나 휴가는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즐거운 기간이다.

생각하면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휴식하는 일주일 단위의 공부나 근로도 길게 한 학기나 일년을 두고 본다면 역시 생활리듬에서 오는 긴장의 축적이 있게 마련이다. 방학이나 휴가기간을 활용하여 이런 축적된 피로를 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심신을 가진다는 것은 생활리듬 면에서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고 하겠다. 사람의 인체는 아주 정밀한 자동기계처럼 생겼다. 그 여러 기능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생체를 활기있게 유지해 나가려는 속성을 지닌다. 이런 속성을 방해하는 것으로는 축적된 만성적인 자극, 즉 긴장을 유발시키는 심리내적 또는 환경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이런 요인들로부터 자신의 유기체와 자아를 보호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방학과 휴가인 것이다. 현대사회는 이런 정비와 강화기능도 사회적인 기능으로 개발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눈에 뜨이는 것이 각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등에 의해 전문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되는 캠프이다.

불교계에서도 예년과는 달리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방학을 이용해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한 여름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이다. 7월 23일~25일 실시한 '브다피아 어린이캠프'가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외에도 '파라미타캠프' 등 어린이·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수련대회와 여름캠프가 점점 정착되고 있다니 불교의 미래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앞으로도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 시류에 따라 일회성으로 그치고 마는 많은 일들과 달리 부처님의 영원한 진리를 가까이에서 배우고 실천하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하겠다.

우선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도우는 지도자들이 필수적이다. 전문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과 경험을 쌓은 캠프지도자들이 양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통적이고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꾸며져야 한다. 중구난방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체계를 담고 축적된 경험이 검증된 것이라야 한다. 어른들과는 달리 어린이들의 종교는 그 종교에 대한 관심과 스스로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것보다는 분위기와 행동화를 도울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끌어야 한다.

또한 각 종단과 사찰에서 미래불자의 씨를 뿌린다는 자세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힘이 결집되지 않고는 실천이 어려울 것이다. 각 사찰에서 소규모로 캠프를 여는 것도 필요하고 범종단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도우는 일도 함께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정의한 내용을 금년 2월에 보충한 부분이 있다. 신체적 안녕상태, 정신적 안녕상태, 그리고 사회적 안녕상태에 있어야 건강하다고 정의했는데 여기에 덧붙여 영적 안녕상태를 추가했다. 이 영적 안녕상태가 바로 종교적인 심성의 계발이다. 새싹들을 부처님 가르침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신건강이요, 불교포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제주불자들 "참는데도 한계"

도림사서 또 훼불…각 사찰 호법법회 열어
조계종 총무원에 '종교보호법 입법화' 촉구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잇단 훼불사건과 관련 제주도 전불자들이 훼불방지에 나선다.

원명선원 훼불사건에 이어 7월 26일 애월읍 금성리 소재 도림사(주지 범현)에 석가모니 부처님상 오른손가락 2개, 문수보살상 왼손가락 4개가 훼손되는 훼불사건이 발생했다. 이와관련 애월 파출소측은 95년 같은 수법으로 훼불사건을 일으켰던 양모여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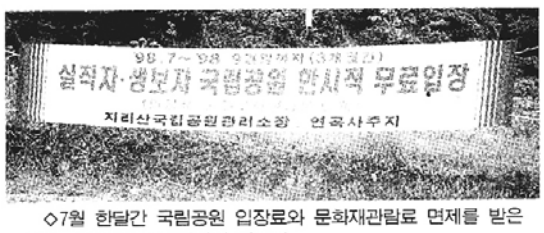
제주불교총연합회 호법대책위원회(위원장 도종·월라사주지)는 7월 27일과 29일 두차례에 홍법정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제주불교호법대표자대회' '각 사찰 호법법회'를 봉행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결의했다.

호법대책위는 8일 오후 5시 보현사에서 제주불교호법대표자대회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훼불규탄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호법대표자대회에는 제주도내 각종단 대표자스님과 신행단체장 등이 참석해 잇단 훼불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호법대책위는 제주도내 주요사찰 50여곳을 선정 '이교도들에 의한 불상파괴 규탄한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도록 독려하고 백중과 칠석날을 기해 각 사찰마다 호법법회도 봉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호법대책위원회는 △조계종 총무원에 종교보호법 입법화 △경찰의 엄정수사 △사법당국 책임 등도 강력하게 촉구키로 했다.

호법대책위원장 도종스님은 "한달사이에 연속으로 발생한 훼불사건으로 인해 제주불교계는 폭발 일보직전에 있다"며 "하루속히 종교보호법을 제정 제3·4의 훼불사건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1면>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7월 한달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리료 면제를 받은 실업·생보자는 2천여명에 이른다.



◇7월26일 새벽 제주 도림사에 이교도로 추정되는 괴한이 침입, 불상 2구의 손가락을 자르는 등 훼불을 자행했다.

'종무행정 안내' 발간

조계종총무원, 72개 주제

조계종 총무원은 종무행정의 체계화와 요율화를 위한 업무편람 자료집 '종무행정 안내'를 발간했다.

일반 행정 업무와 민원업무 기타 안내 업무 등 72개 주제에 대한 세부적 업무 양식과 각종 서류의 표준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무행정 안내'는 4백50쪽 분량이다. 이 책자는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은 물론 종단 산하 단체들의 서식 목록과 업무 양식을 통괄하고 있다. 조계종은 검토본을 주요사찰 업무에 적용한 후 보완 완성판을 발간 전국 본말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국립공원 실직자 무료입장

9월까지…7월 한달 2천여명 면제

7월 한달동안 2천여명의 실직자와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립공원의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 받고 탐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과에 따르면 7월26일 현재까지 1천6백19명의 실직자 생활보호대상자가 공원을 탐방해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31일까지는 2천여명이 무료입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연태 기자

포교실태 · 의식조사

조계종 포교연구실

조계종 포교연구실(실장 효종스님)은 올 12월 발간될 〈포교방법론〉의 과학적 토대를 마련키 위해 중앙승가대 전산실(실장 김응철)에 의뢰, 포교실태 및 포교종사자 의식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두 조사는 전국 2백50개 사찰과 포교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도분포 분석 △사찰의 포교활동 실태 △포교담당자의 의식 및 요구사항 등을 파악, 새로운 포교방향 제시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8월~10월중 실시될 조사 결과는 〈포교방법론〉에 실을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10일 대흥사 산중총회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천운)는 10일 오후2시 종무소에서 차기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7월30일 주지 입후보자 최종 마감결과 보선스님(前 종회의원) 단독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근 기자

문화재 관리국 대전으로 이전

문화재관리국이 5일~7일 정부 대전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한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개최 등 관련업무는 대전청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복궁 내 국립문화재연구소 사무실을 서울연락사무소로 이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042)481-0114(대전청사)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불교는 21세기 비전 제시했나"
"개신교는 경직되고 권위주의"
"천주교 교황청에 짓눌려있다"

최준식교수 '한국의 한심한 종교들' 발표

한 소장 종교학자가 한국종교에 대해 일갈하고 나섰다. 이화여대 한국학과 최준식교수〈사진〉는 최근 서강종교연구회에서 발행한 〈종교의 이해〉에 '한국의 한심한 종교들'이란 글을 실어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주요 종교의 행태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최교수는 21세기에 동양의 종교, 특히 '큰 가르침'인 불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며 질문을 던진다. "우리나라 불교는 새로운 영성과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을까?" 답변은 통탄에 가까운 비관이다.

"무엇보다도 승려의 질이 문제이다. 아직도 19세기말쯤에 사는 것으로 착각한다. 우리나라에 세계 불교학계에 나가서 영어로 자기 논문을 발표할만한 불교학자가 몇이나 되는가? 세계불교의 종주국은 일본이 되었는데, 이 일본불교를 보고 신심이 없다고 깔보는 사람은 한국의 불교도밖에 없다."

"우리나라 불교도들은 탄력성 있고 수준 높은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으면서도 개신교도들의 집요한 공격 때문인지 보수화되고 경직화되고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

"아직도 전근대적인 의식을 갖고 거기다 승려라는 엘리트 의식까지 있어 정말로 하심으로 중생들을 부처 모시듯 하는 스님들을 찾기란 정말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

개신교에 대해서는 "기독교라는 종교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더 용서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할텐데 그런, 포용력 있는 크리스찬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며 "신앙의 경직성이나 권위주의에 있어서는 조선조의 유교도들을 닮았고, 기복적이고 현실적 이득에만 광분하는 모습은 무교(巫敎)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신앙이 갈라진 우리를 합치게 해도 시원치 않은데 왜 개신교 신앙은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가"라며 열린 종교로의 회귀를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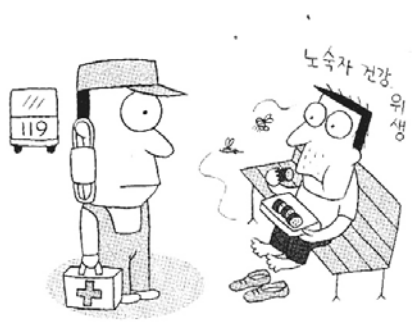
천주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종교적 기능을 잘 하고 있다면서도, 천주교의 종교의식은 유럽에서 2천년간 유럽식으로 정형화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천주교는 아직도 유럽(교황청)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유교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은 계속된다. "아직도 기득권이 있는 세력의 이득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남성중심주의의 탈피를 주문했다.

끝으로 최교수는 "19세기적인 교리해석과 제도를 가지고는 젊은 세대를 수용하지 못한다"며 "영성과 창조를 갈구하는 21세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앞서가는 종교가 된다면, 한국의 차세대의 종교는 바로 그 종교가 될 것"이라고 조언하며 '한국의 한심한 종교들'의 변화를 촉구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포교현장의 법사양성 (3년과정)

'98학년도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요 일	과 목	교 수	내 용
월요일	아함경	최봉수(동국대)	부처님이 설파한 진리의 원음의 보고 아함경
화요일	능엄경	송찬우(승가대)	대승경전중의 수행요체의 정화인 능엄경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정경 등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①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③과목별 이수 희망자 ④포교사 취득자	①입학원서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④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자기소개서 1통	98년 8월 1일~ 98년 9월 5(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3. 개강일시 · 1998년 9월 7일(월) · 8일(화) 오후 7시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자에게 연구원 졸업장(전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732-1206~8, FAX 732-1207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년 2회(매년 2월, 8월)
■ 모집정원 : 150명

1 교과목

1학년 교과목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2학년 교과목	반야사상 · 법화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화엄사상 불교학개론 · 선종사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2 정규반, 통신반 개설

3 ☎732-1206~8/FAX 732-1207

4 특전사항 :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

1998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 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8년 9월 12일 (토) 오후 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 아침 · 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백일 · 돌 ·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 · 매장 · 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50명)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사 취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장	98년 8월 1일(토) ~9월 11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2:00~4:30 (동산법당)

3 입 학 금 · 일십만원

4 원서교부 및 접수 ⊙ 본교육원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100-170)종로구 견지동 13번지

5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심할경우 목조건물 붕괴 가능성

해인사 흰개미 방제대책 '비상'

방의제 처리등 미봉책에 의존 실정
전국사찰 흰개미 서식조사 시급

해인사 응향각(주지실)과 사운당(종무소)에서 흰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인 국보 52호인 장경판전과 국보 32호인 대장경판 보존에 비상이 걸렸다. 응향각에서 불과 20~30m 떨어진 곳에 장경판전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해인사에서 흰개미가 처음 발견된 것은 4월. 그러나 뒤늦게 방제처리에 나서 목조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흰개미란 나무를 주먹이로 하는 흰개미는 지하에 서식하고 있다가 4월~5월이면 번식을 위해 지상으로 나온다. 흰개미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일제시대 때로 경부선철도 부설시 사용한 철도침목에 묻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흰개미는 각종 목재들의 속만 파먹기 때문에 건물 외곽은 멀쩡하게 보여 훼손사실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심하게는 건물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어 목조문화재의 천적이라 불리는 해충이다. 때문에 일본 미국 등에서는 목조건물을 지을때 반드시 방제처리를 한다.

발견경위 4월경 번식을 위해 지상으로 나온 흰개미를 응향각에서 발견한 것이 처음이다. 해인사 응향각의 경우 문지방 아래 장판과 바닥에 흰개미가 갉아 먹은 흔적이 보이고 건물 뒷편 기둥 곳곳에 작은 구멍이 발견됐다. 당초 해인사 측에서 4월에 발견한 흰개미에 대해 방역업체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자체조사에 두달이나 소요하고 문화재관리국에 즉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대응방안이라는 지적이다.

82년 경기 파주 공순영릉의 순릉비각에서 흰개미의 식흔과 서식지가 발견된 이래 전북 남원 실상사 등에서 11건의 피해사례가 보고됐다.

해인사와 당국의 조치 해인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와 함께 1년 일정으로 대대적인 흰개미 방제에 나섰다.

이번에 흰개미집이 발견된 응향각과 사운당은 문화재관리국이 긴급배정해준 3천여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살충제 메틸 브로마이드 가스로 살충처리할 예정이다. 또 흰개미의 지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대적광전과 장경판전 주위에 깊이 30㎝의 구덩이를 판 뒤 방의(防蟻)제를 흙과 혼합처리해 묻을 계획이다. 장경판전 뒷산의 소나무 그루터기로 제거할 방침이다.

해인사 방제작업에 쓰일 방의제는 일본에서 수입할 예정이다. 방제처리 후에는 흰개미가 좋아하는 먹이인 소나무 재질의 목관을 해인사 주변에 설치, 주기적으로 이 목관을 관찰함으로써 흰개미의 침입 여부를 파악·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응급처리일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 의견 한성희전문위원(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은 "흰개미에 의한 피해는 비단 해인사만의 일이 아닌만큼 불교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인력이 부족한 연구소의 실정상 사찰에서 미리미리 제보를 해줘야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방제책마련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이태녕 명예교수는 "침투한 흰개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훈증처리 외의 방법이 없다"며 흰개미 서식환경의 억제가 최선의 예방책 이라고 강조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해인사 흰개미 출몰지역


◇응향각 내부에서 발견된 흰개미때의 서식흔적. 목조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방제대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불교 교류 확대

조불련이 보낸 10명의 방북 초청장

신계사 복원·협업농장 등 기대
통일부 방북 승인여부 미지수

불교계 인사 10명이 7월 25~28일 사이 조불련으로부터 '8·15 조국통일기원합동법회'와 관련 방북 초청장을 받아 온 것은 불교계 대북교류의 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 불교계 통일운동단체 및 각 종단은 그간 개별적 교류사업을 위해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을 상대로 접촉을 전개해 왔다. 종단이나 대북교류 추진 단체의 공식적 방북이 없었던 점에서 10명의 인사에 대한 이번 초청의 의미는 각별할 수 밖에 없다.

초청인사들의 방북이 현실화 될 경우 △불추위의 대북사업으로 협영농장 설립·운영과 북한 불교유적 및 문화재 조사와 자료집 발간 사업, △평불협의 사리원 금강국수공장의 원활한 가동과 제2, 제3공장 설립, 신계사 등 금강산 사찰 복원사업, △진각종의 협영농장의 설립·운영과 북한 불교유적 자료집 발간, 심인당 및 복지관 개설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을 주고 있다.

때문에 초청을 받은 종단이나 추진단체의 방북의지가 고양되고 있으며 정부가 방북을 승인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승인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북경회담에서는 8·15법회 관련 초청 건외에 교류사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조불련측의 요청에 따라 8.15 법회 이후로 미뤄졌다.

10명의 방북초청과 관련 교계에는 원활한 대북교류를 위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그 하나는 남북불교교류의 남북간 대화채널의 균형에 대한 문제다. 북한측의 교류 주체는 조불련 1곳인 반면 남한측은 조계종, 진각종, 불추위, 평불협 등 모두 4곳. 이같은 구도에서 자칫 종단이나 단체들이 개별적 성과에 집착할 경우 조불련측이 남한 불교계를 사안에 따라 선별 대응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이다. 이번 초청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대한 초청에서 종단협과 조계종의 대표인 월주스님이 제외된 것도 북측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후문이다.

한국불교의 대표성을 가장 강하게 갖는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초청 제외는 불교계 통일운동단체에도 과감한 구조조정과 추진사업에 대한 박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기도하다.

이와관련 종단협은 22일 조계종을 비롯해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등 5개 종단 총무부장단과 모임을 갖고 남북교류위원회(위원장 능관)로 대북창구를 단일화해 개별 사안은 원안대로 진행하되 필요성이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 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교류위원회는 8월11일 오전 11시 종단협 회의실에서 그 구체적 방안 모색을 위해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북측의 8·15법회 초청을 계기로 불교계 각 종단과 단체간 대북추진사업이 '북방포교'라는 공동 화두가 어떻게 풀어져 나갈지 주목된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귀신이야기

목어

귀신이야기가 판을 치고 있다.

영화·소설·방송·PC통신 등에 귀신이야기가 범람하고 있는데다, 무더위를 식혀주려는 TV의 납량특집 귀신까지 합세하였다.

가뜩이나 불안한 IMF시대에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귀신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음은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으시시한 원귀들을 만들어 방송하고 있는 TV방송사들은 시청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귀신이야기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겠다.

납량특집 귀신이야기의 대표적 프로그램은 KBS의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에 나타난 귀신들은 대부분 여자귀신들이다. 계모에게 살해 당한 딸, 머슴에게 독살된 처녀 등. 인간환생의 꿈이 좌절된 여우 또는 구렁이 등도 여자 원귀로 변신하여 한풀이를 한다.

KBS 2TV의 '미스터리 추적' MBC의 '다큐멘터리 이야기속으로' SBS의 '토요미스테리극장'은 귀신에게 혼난 제보자의 경험담을 소재로 제작되고 있어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토요미스테리극장'과 '미스터리 추적'은 불가사의를 과학적으로 검증한다는 명분아래 점과 내림굿 등을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의 주역인 무속인들은 귀신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점도치고 굿도 한다. 무속의 허와 실을 파헤치려 했으나 결국 재미에 머물거나 미신을 또는 운을 믿고 싶은 시청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불보(佛寶·진리)를 의면하면 악귀가 마음에 들어온다. 그리하여 마음이 항상 어두워서 남에 의해 미혹되며, 죽으면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대교왕경〉

부처님께서는 또 〈불모출생경〉에서 불퇴전의 보살은 잡사(雜事)를 말하지 않는다고 일러 주셨다. 여러가지 잡사 중에는 용신·야차·귀신·비인(非人) 등이 들어 있다. 반야바라밀다에 상응하는 여러 일에 대해 즐겨 말하라는 가르침이다.

방송의 역할이 국민 계도에 있다면 TV는 불안한 마음을 조장하는 귀신이야기를 자제해야한다. 교과서 귀신찾기등 학교에 만연하고, 소설 영화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귀신 이야기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금강산 위락시설 반대 70%

녹색연합 '올바른 금강산 개발' 토론회

"환경친화적 개발 우선돼야"

국민 대다수는 환경친화적인 금강산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이 7월28일 종로성당 회의실에서 개최한 '올바른 금강산 개발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성인남녀 5백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금강산에 카지노·골프장·케이블카 등을 짓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이 70%, 찬성 20%, 무응답 5% 등으로 나타나 대다수 국민들은 환경파괴를 유발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금강산 위락시설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락시설을 반대한 이유로는 '자연훼손 우려'가 55%, '자연경관 유지' 10%, '남한의 경제회복 우선' 8%, '서민위한 관광' 6% 등으로 나타났다. 또 금강산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28%, '개발이 되더라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21%, '이산가족 교류 등 민간교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12%, '정치적 이유로 개발이 늦춰져서는 안된다'가 7%를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응답자의 57%가 '금강산에 가고 싶다', 29%가 '꼭 갈 것이다' 13%가 '별로 가고 싶지 않다(경제사정 반영)'고 답변, 86%가 금강산 관광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 발제자로 나선 우종수 지리산악회고문은 '세계의 명산 우리 금강산'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번 파괴된 자연은 다시 돌이킬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외경존숭(畏敬尊崇)의 정성으로써 길이 자연 훼손없는 조화로운 개발로 우리 민족정기가 어린 금강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연합이 조사한 '북한의 금강산 개발 현황'에 따르면 금강산의 상당수 사찰이 소실되었으나 일부 현존 사찰에 대해 보수·단청을 실시, 문화재로 지정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 숙박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표훈사, 정양사, 보덕암 등의 현존 사찰은 '특수역사박물관'으로 지정, 공개하고 있으며 내금강 장안사 터 근처에 휴양소가, 신계사 터 근처에 향토음식점이 각각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녹색연합이 7월28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개최한 '올바른 금강산 개발을 위한 토론회'.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서푼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成源産業
대표 최 대 룡 합장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스님과 재가불자를 위한 승복, 우리옷의 전당
가사야가 사부대중께 개업 인사를 드립니다.





가사야 견지동 개점에 즈음하여 모든 스님, 불자님께 인사 올립니다.

저희 가사야 임직원 모두는 그동안 스님, 불자님들의 호의와 배려를 잊지않고 보은하고자 전통의 멋과 현대감각을 살린 승복, 우리옷을 만들어 신심을 돋울 수 있는 제품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지나실 때라도 들러주시면 따뜻한 차한잔의 여유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야 대표 김 여여성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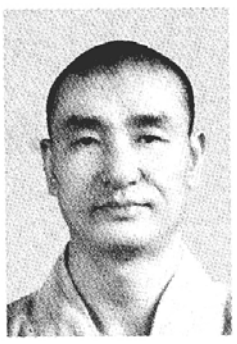
약도
가사야 성종사 신한은행 제주은행
← 안국동 4거리
종각→
조계사 평화당 인쇄 현대불교

가사야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1번지
Tel : (02)723-9714

가사야와 함께 아름다운 우리의 멋을 보급할 지역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불자로서 할일 했을 뿐"

'생명나눔' 2천만원 기부 종림스님



IMF관리체제 시대에 2천만원의 거금을 생명방생운동에 희사한 스님이 있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 혜림정사에 주석하는 종림스님은 7월27일 생명나눔실천회에 2천만원의 성금을 신도를 통해 전달했다. 작은 절이라 넉넉치 않은 절 살림에도 불구하고 사재를 털어 인간방생의 뜻을 실천한 스님은 평소 천도재를 통해 돌아가신 영가를 천도하고 북한산 기슭에 굉을 수시로 방생하고 음식 쓰레기를 말려 모이로 주는등 생명을 살리는 일에 원력을 세워왔다.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는 스님에 대해 신도들은 "평소에도 대중공양비와 천도재 비용을 아껴 고려대장경연구소에 디지털불경 불사금과 양로원 후원금을 전달하는등 숨은 자비행을 실천해 왔다"고 전했다. 신도들 역시 스님의 생색내지 않는 무주상 보시를 본받아 사찰 일을 서로 돕고 이웃의 어려운 일에는 앞장서는 등 사찰 구성원 전체가 사회의 작은 등불이 되고 있다.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의 상좌인 종림스님은 지난 70년 통도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은해사 재무국장, 쌍계사 교무국장, 혜원정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94년부터 조계종 종회의원으로 소리없이 활동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스님 다도강의 '쏠린 눈'

Focus

여름방학을 맞아 충남 보령시 대신동사무소(동장 전민용)가 개설한 '충효예교실'에서 스님이 전통예절(다도)을 강습해 청소년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보령시 주교면 소재 세원사 주지 정운스님(보령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지부장)은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한내여자중학교에서 실시된 충효예교실에서 50여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통예절(다도)을 강습했다.

처음으로 스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공부했다는 최난희양(한내여중 1년)은 "스님이 교실에서 전통차 예절을 가르치니 정숙한 사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매우 인상깊었다"며 "보람찬 방학이 되었다"라고 짧은 강습시간을 못내 아쉬워 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학원폭력서 미래동량 보호"

'자녀…' 불교본부 발족 종서스님



"학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사회법은 피해자만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모두 아픔을 겪고 있는 중생일 따름입니다. 이 운동으로 그들을 감싸 줄 것입니다."

25일 강원도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열린 파라미타 캠프에서 발대식을 가진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 불교추진본부의 준비를 도맡아 온 종서스님(조계종 사회국장)은 '자녀…' 추진본부 창립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조계종 사회부, 포교원,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자비의전화 등 교계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운동은 학원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는 학원폭력 방지를 위해 '자녀…' 추진본부는 1사찰 1학교 자매결연 맺기 운동, 스님·신도들의 학교 방문 교육 및 선도, 사찰 신도회·청년회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정화, 자비의 전화의 폭력상담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학원폭력 자료집 발간하고 스티커·버튼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종서스님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청소년들에게 초발심을 갖게 해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밑거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실직자들에 쌀을 보냅시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저소득 실직자 가정을 위한 자비의 쌀 보내기 운동본부'는 실직자 가정에 쌀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국민은행: 023-21-0551-926
●조흥은행: 390-04-261032
●농 협: 053-12-053051 ●우체국: 010041-0339839
(예금주: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김병환)

교차로

장수 동화댐서 방생법회



도문 종로 대각사 조실 스님은 7월 21일 용성진종조사 탄생성지인 전북 장수 동화댐에서 방생대참회법회를 봉행했다.

美 영원사서 법문



정락 용주사 주지 스님은 7월 18·19일 미국 영원사와 법보선원을 방문, 법문했다. 한편 텍사스 킬린시는 종교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 스님의 노고에 감사, 7월18일을 정락큰스님의 날로 선포했다.

삼선 승가대서 특강



암도 조계종 교육원장 스님은 7월31일 오전9시 서울 삼선승가대학에서 '어떻게 살것인가'를 주제로 특강했다.

수덕사서 '신심명' 강의



설정 중앙종회의장 스님은 8일~10일까지 수덕사에서 전국의 비구(니)스님을 대상으로 〈신심명〉〈증도가〉 강의를 갖는다.

독거노인에게 음식 공양



도후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스님(신흥사 주지)은 말복을 맞아 10~11일 무의탁독거노인 120명에게 '효도삼계탕 전해드리기' 행사를 갖는다. 복지관은 이를 위해 현금(1인분 4천5백원)과 현물을 후원받고 있다.(02)852-0525

중고생에 근로장학금



정여 개금사회복지관장 스님은 7월27일 오후 2시 복지관 사무실에서 지역 중고등학생 5명에게 근로장학금을 전달했다.

美 불교대학 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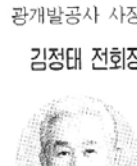


밀원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스님은 미국내 소재하는 아시아계 불교대학 현황조사를 위해 5일 출국한다.

노인초청 경로잔치

대혜 선신 원각사 주지는 7월 30일 노상동 장원보쌈식당에서 관내 60세 이상 노인을 초청 경로잔치를 열었다.

불교TV '뜰앞의…' 출연



정각 목포 보현정사 주지는 8일 오전11시 10분~12시 불교TV 프로그램 뜰앞의 잣나무 출연, '생활불교와 지역불교의 역할'에 대해 법문한다.

대원암서 'IMF 극복' 법문



본각 중앙승가대 교수는 4일 부산 대원암 초청법회에서 'IMF를 극복하는 불자의 자세'를 주제로 법문했다.

美 LA 선각사서 특별법회



박원일 법사 前 전국신도회장은 5일 도미, 7일~9일까지 LA 선각사(주지 정도)에서 특별법문을 하고 11일 귀국한다.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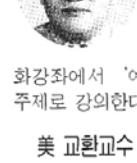


이용택 前 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장은 7월 1일자로 (주)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김정태 전회장 1주기 추모

서춘석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은 故 김정태회장 1주기 추모법회를 7월27일 오전11시 부산 연화사에서 봉행했다.

연변 위생학교서 특강



이근후 이화여대 교수(본지 논설위원)는 3일~5일 중국 연변 위생학교에서 '정신분석학' 특강을 마치고 8일 귀국한다.

'생활역학과 수련' 지도



고준환 경기대 법학과 교수(삼공선원 원장)는 1일 오후2시 종로구 낙원동 종로오피스텔 203호 삼공선원에서 '생활역학과 수련'을 주제로 공개특강을 갖고, 단전호흡법을 무료지도했다.

泰 출라롱콘大서 기조강연



김희오 동국대 지역개발대학원장은 3일~4일 태국 왕립 출라롱콘대학교서 열리는 국제세미나에서 한국과 태국의 경제위기와 방안 등 양국의 관심사에 대한 기조발제를 했다.

'예수와 불교' 다보강좌



민희식 한양대 교수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불교문화센터 8월 다보문화강좌에서 '예수와 불교'를 주제로 강의한다.

美 교환교수 마치고 귀국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우리는 선우 공동대표)는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1년간의 교환교수일정을 마치고 7일 귀국한다.



美 오래곤주립대 파견 교수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본지 논설위원·우리는 선우 상임운영위원장)은 7일 1년예정으로 미국 오래곤주립대학, 파견교수로 부임하기 위해 출국한다.

"btn 4년 가장 보람"

35년 방송생활 회향 불교TV 김승한위원



"한눈 팔지 않고 반 평생 방송인으로 살아온 것에 보람을 느끼며 35년의 방송생활을 영상포교에 앞장서는 불교TV에서 회향할 수 있게돼 부처님께 감사하고 행복할 뿐입니다"

7월 17일 btn뉴스를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방송계를 떠나는 김승한 불교TV 방송위원(57).

30여년 동안 KBS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한 김위원은 94년 불교TV 개국과 함께 자리를 옮겨 4년동안 btn뉴스 진행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며 영상포교의 질을 높여왔다.

"방송 프로그램에는 진행자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좋은 방송인이 되려면 기도와 신행생활로 항상 자신을 갈고 닦는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방송에 임하는 후배들에게 참된 인격형성을 더 강조하는 김위원은 "충북 진천에 마련한 조그만 선방에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독서와 불법공부에 전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이성범 범양명예회장



이성범(83) 범양그룹 명예회장이 7월24일 오후 11시 삼성서울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독실한 불자인 이씨는 58년 무역회사 범양사를 설립해 78년 이 회사에 출판부를 만들어 계간 〈과학사상〉을 창간, 불교와 과학을 접목시키는 학자들의 연구를 뒷받침 했다.

'98 삼화불교대학 신입생모집 편입생 모 집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야간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통신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통신		

■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운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운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위탁교육 수료후)

■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8년 8월 17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 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511-2026~8)
◑ 인터넷홈페이지: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 화 불 교 대 학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양성 교육기관

1998년 후기
부산불교교육대학
제 1기 경전연구과정
제12기 교 리 반
제 4기 수 화 반
신입생 모집

▶▶ 입 학 안 내 ◀◀

구 분	제1기 경전연구과정	제 13기 교리반	제 4기 수화반
1.입학자격	본대학 포교사과정수료자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불교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수화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2.교육기간	2년(1998년 9월~2000년 8월)	6개월(1998년 9월~99년 2월)	3개월(1998년 9월~11월)
3.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매주 목·금요일 오후 2시~4시	매주 목·금요일 오후 7시~9시
4.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1매		
5.입 학 식	198년 9월 2일(수) 오후 7시	1998년 9월 3일(목) 오후 2시	1998년 9월 3일(목) 오후 7시
6.등 록 금	원서접수비 5,000원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20,000원	원서접수비 5,000원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30,000원	원서접수비 5,000원 입학금 2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10,000원
7.특 전	본대학 학칙에 따라 전법사 자격수여	수료자는 포교사 과정에 우선 입학할 수 있음	장애인포교의 기회를 제공하며 수화 통역사 자격시험에 추천됨
8.과 목	육조단경, 금강경, 수심결 유마경, 법화경, 화엄경	불교를 처음부터 알고자하고 어떻게 알고 믿을것인가. 불교역사의 흐름, 문화 신앙체계 규범과 삶의 방향	농아인의 이해 수화기능습득 농아인과의 대화
9.강 사	조계종 승가대학원 교수 각성스님	이하우학장, 정여스님 이욱태법사, 명준스님	동서 대학 수화 강사 강주수

■원서접수기간 : 1998년 8월 31일까지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8/2)
성원서면주차빌딩2층 화엄회관(부산진구청 뒤)
☎ (051) 818-8659, 807-7351

재소자 찬불가 경연

참회와 화합 무대

영등포교도소 11개팀 참가 '음성공양'
백련장학회 공동 주최 … 9월엔 염불대회



◇영등포교도소 찬불가 경연대회에 참가한 재소자불자들은 찬불가를 합창하며 지난날을 참회하고 밝은 길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나도 몰래 눈물이 솟아납니다~ 원망하고 미워한 것을 두손모아 눈물흘려 참회합니다~.'

영등포교도소 불심회(회장 이영주)와 백련장학회(회장 송춘희)가 7월29일 마련한 영등포교도소 찬불가 경연대회는 주르륵 흘러내리는 불자들의 눈물로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문기두 불교담당 교도관은 개회사를 통해 "찬불가 경연대회를 통해 지난 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법우들 상호간에 우애와 화합을 다져 밝은 날로 나아가도록 기도한다"며 재소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재소자불자들은 영등포교도소 불가대합창단이 '당신의 미소'를 음성공양하는 가운데 직접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내빈들에게 증정했다.

이상규교수(한양대 음대) 곽정현 포교사(前 국회의원), 불자가수 김활선·남강수씨와 봉화회 정환희회장, 천태종직할 금강합창단(단장 최선화)등 8백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찬불가 경연대회는 영등포교도소 11개팀이 참가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양재팀은 '해탈의 기쁨'을 합창하고, 이어 재봉팀의 '우리도 부처님같이', 훈련소 A팀의 '불국토를 향하여' 순으로 이어졌다. 부처님께 음성공양하는 재소자불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진지하고 힘차게 드넓은 강당을 울렸다. 이들은 매주 법회후 잠깐의 시간을 내어 연습을 해왔다.

천주교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한 재소자는 찬불가 '바람부는 산사'의 가사가 너무 좋아 함께 참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훈련소 D팀이 '참회합니다'를 합창할 때는 참가한 불자 모두들 눈시울을 적셨다. 곽정현포교사는 "7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지만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눈물을 참으면서 찬불가를 듣기는 처음이다"고 말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BBS 이근찬 아나운서가 특별출연하여 피리를 연주하고 만담을 곁쳐 재소자법우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천태종 금강합창단도 '부처님께 비옵니다' 등의 찬불가를 음성공양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관문사에서 선풍기 4대와 과자류 20상자를 전달했으며, 원로불자가수 김활선씨가 염주 2백여개를 보시했다.

영등포교도소 불심회는 백련장학회와 함께 9월에 염불대회를 갖고, 12월에는 재소자 수계식 행사를 마련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자녀 안심하고…' 불교본부 발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불교운동본부' 발대식이 7월25일 강원도 고성 세계잼버리캠프장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현근스님과 신흥사주지 도후스님, 조계종총무원 사회국장 종서스님, 대검찰청 임희운 추진본부장과 파라미타 연합캠프에 참가한 중·고등학생과 지도교사 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팔리불교대 한국분교 입학식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한국분교가 7월 24일 동국불교전법대학 강당에서 첫 입학식을 가졌다. 태종사 법주 도성스님을 명예학장으로 추대한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는 부처님 재세당시의 언어인 원전 팔리어와 불교영어, 상좌부불교, 대승경전 등을 가르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도성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보암스님, 약천사 조실 성공스님 등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강북복지관 장애인위한 '늘푸른캠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직영복지시설인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혜창)은 7월23일 강북구청의 후원으로 용인 에버랜드에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하는 통합캠프인 '늘푸른 캠프'를 열었다. 이번 캠프에는 복지관내 직업재활 대상자와 물리·작업치료, 조기교실 이용 장애인 20명과 여름방학 정서높이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일반 초·중등학생 19명, 지원봉사자 19명, 인솔교사 14명, 학부모 3명 등이 참가했다.



봉은불교대학 258명 졸업

봉은불교대학(학장 원혜)은 7월26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제25기 봉은불교대학 및 제11기 봉은야간불교대학 졸업식을 거행했다. 담임법사 원광, 총무 범일스님 등 봉은사 사중 스님과 졸업생 2백58명 및 가족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원혜스님은 "불국토를 건설하기 위해 저마다 현대의 보살이 되자"고 당부했다.

우리 모임에선

전북도청 수련회

전북도청 연우회(회장 권두삼)는 8일부터 10일까지 김제 금산사에서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대회는 금산사주지 도영스님의 법문과 철야정진, 참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금융결제원 하계수련

금융결제원불자회(회장 조화제)는 22일부터 23일까지 강화도 보문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갖는다. 이날 수련회는 불자가족수련회로 진행된다.

하불동 수계법회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김주서)는 22일부터 23일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하계수련회 및 수계법회를 연다. 수련회는 법회에서 법주사주지 혜광스님 법문과 수계법회, 철야정진순으로 진행.

심우회 군법당 기공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8일 오전10시 76사단법당기공식을 갖는다. 교통편은 오전8시30분 강남고속터미널 주유소 앞.

국회 정각회장 선출 줄다리기

정당간 의견 불일치 3차례나 총회 연기

회장직을 놓고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7월 31일 열기로 했던 국회정각회 총회가 다시 8월로 미뤄졌다. 이번 총회가 미뤄진 것은 아직 차기회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총회를 열었을 경우 다시 여야가 부딪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로써 7월 10일로 임기가 끝난 서석재의원 후임회장 선출과 관련 여야간의 의견불일치로 국회정각회는 3차례에 걸쳐 총회가 미뤄지며 창립 이래 가장 큰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회의는 관례에 따라 집권여당에서 회장을 맡아야 한다며 박상규부총재를 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부총재가 초선이기 때문에 정각회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정각회 정관에는 회장 선출규정이 없는 상태로 그동안 집권여당에서 관례로 회장직을 맡아왔다.

서석재회장은 "선출규정을 이제 와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미리 만나서 여야 합의로 회장을 추대했으면 한다"며 "정각회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교계에서는 "신행단체인 만큼 정치논리보다는 초당적으로 움직여 대립구도를 풀어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대동소방 살리기 나섰다

진관·혜국스님 등 62명 투자
한마음선원·내원사도 참여

불자기업 대동소방 살리기에 교계가 나섰다.

본지 184호 5면기사와 183호 광고가 나간뒤 7월28일까지 총 62명의 불자들이 대동소방살리기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찰도 한마음선원 내원사등이 동참한 것을 비롯하여 진관 성묵 혜국 인암스님이 투자했다.

대동소방에 투자한 오혜숙씨는 "경제난을 맞아 불자기업을 살리는데 십시일반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동소방은 불자 벤쳐기업으로 매년 1백%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최근 주거래선인 설비업체의 연쇄부도로 흑자부도위기에 놓여있는 상태다. 이에 '불자기업에 1만원만 투자해주십시요' '1년뒤 투자금액의 1백20%을 돌려주겠다'라는 광고를 교계신문에 게재하고 있다.

이남제사장은 "투자가 얼마만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불자들의 격려가 큰 힘이된다"고 말했다.
투자상담 (02)215-0723

탐방 부산불교문인협회

"부처님 가르침 문학통해 전해요"

등단문인 1백여명 회원
회지 '실상문학' 펴내

진리의 요체를 담은 숱한 경전들처럼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마음을 문학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이들, 바로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채낙현) 회원들이다.

부산불교문인협회는 88년 참다운 불교문학을 조명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한 회원들의 신심진작은 물론 독자들의 마음에까지 밝은 불씨를 당겨주고자 창립했다. 회원은 등단한 사람이면서 불심이 돈독한 문인들로 부처님 가르침을 문학화하는 일로 자신의 정진을 다지고자 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창립 당시 20여명이던 회원이 이제는 1백여명으로 늘어나 회지인 〈실상문학〉 발행작업, 밀양표충사 순례, 불교문학세미나, 부산불교문인대회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고 불법 포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부산불교문인협회에서 역량있는 문인을 뽑는 신인문학상을 제정해 청학스님, 장기연씨, 성홍영씨 등의 수상자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8월 8일에는 진주 청곡사, 고성 옥천사 산사 순례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산사순례나 법회를 소재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

그동안 회원들은 팔만사천의 바다에서 건져올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 시조, 소설, 수필로 꿰어 일반인들에게 건네는 일을 쉬지 않았다. 그들의 시 한수, 소설 한편은 그들의 수행이면서 곧 포교방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창작의 결실들이 알뜰히 모아져 '실상문학(實相文學)'을 통해 일반 불자들에게 전해진다.



◇매년 여름 갖는 불교문학세미나를 통해 불교문학의 발전과 진로를 모색한다.

박필상 사무국장은 ""앞으로 실상문학 발간을 통한 포교활동에 각 회원들은 물론 여러 신행단체나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전국의 불자 여러분!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일년 후 만이천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대동소방은 1994년 창사이래 소방기자재 제조 및 판매분야에서 매년 100%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오고 있는 벤쳐기업으로서 세계최일류의 소방제품 메이커를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교계의 보기 드문 불자 기업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IMF사태 이후 건설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저희들의 주거래선인 설비업체들의 연쇄부도가 거듭되어 현재까지 그 부도로 인해 당사가 입은 피해액이 약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직원이 "일체유심조"의 사훈과 불심으로 화합하여 거듭되는 여러번의 위기를 극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지고 그간 당한 부도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간 부도금액의 4할 가량을 자체자금으로 변제하여 왔으나 현재는 담보여력 부족으로 은행권으로부터의 신규대출도 더이상 불가능하고 미수금들의 수금도 난망하여 3/4분기 변제해야할 3억원에 상당하는 부도금액 변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불자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년후 시중금리에 맞춰 만이천원으로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자 여러분이 만원씩만 투자해 주신다면 이번 일시적인 부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단계 더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기에 이렇게 불자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매출액이 40억이었으며 올 상반기 매출액도 IMF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미20억을 초과하여 작년 이상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소방제품 수출도 시작하여 현재 $200,000 가량의 L/C가 내도 예정이며 또한 약 $300,000의 추가 상담이 진행중 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액이나마 $30,000의 수출에 성공한 상태로써 이 일시적 위기만 넘기면 저희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밝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천군만마의 원군을 얻은 심정으로 더욱 발심 노력하여 건실하고 튼튼한 불자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저희들은 저희들이 거둔 열매를 불교발전과 불법홍포의 밑거름으로 회향할 것을 불자님들께 다짐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은 부도 잔액변제 및 제조생산기반 확충과 수출제품 개발을 위해 쓰여질 것이며 그 사용 또한 투명히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참여하실 방법

① 하기 당사구좌로 만원을 입금하여 주시고 그 입금증 사본을 팩스 혹은 우편으로 연락처, 성함을 명기하여 제시하거나
② 전화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입금확인후 차용증 혹은 내용 증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투자모금액수**: 5억원
- **투자한도**: 1인당 1만원이상 1백만원 이하
- **투자 모집기간**: 불기 2542년 7월 20일부터

참고로 저희회사에 대해서는 불교신문 5월 26일자, 주간불교신문 5월 26일자, 현대불교 5월 27일자 및 매일경제신문 7월 1일자 26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佛子企業을 키워 주십시오.
成佛하십시오.

대표이사 智眼 이남제 외 임직원일동 合掌

대표전화:02-215-0723
FAX:02-246-8503

예금계좌
서울은행:28701-3065308
중소기업은행:015-026140-04-011
상업은행:178-04-105683
한일은행:097-147931-13-501
제일은행:154-20-040173
국민은행:355-25-0003-678
신한은행:313-05-014055
축협:200-72-07640-717
농협:258-17-000764

예금주
(주)대동소방

주식회사대동소방
DAE DONG FIRE FIGHTING CO., LTD
본사 대표전화(02)215-0723 FAX (02)246-8503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714
지사 대표전화(0561)772-0729 FAX (0561)772-3923
경북 경주시 용강동 304-3
공장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679

7월 28일까지 투자자 명단

진관스님 서태은 김정예 이경자 우선자 내원사스님 신정옥 이경자 이청도 황창영 김청수 성정현금 김형진 장문자 김광훈 이효숙 임화순 허종범 이두진 이동훈 임명덕 천경남 이진구 윤정연 김춘연 오혜숙 노건성 박순자 정인순 이점심 문유미 장영찬 인윤기 장정해 김은희 최승숙 하병식 강은주 김민옥 맹길재 이종옥 이현호 임완숙 이경애 김정복 유명섭 최기순 장준혁 조규동 신동준 엄화섭 남규홍 전승철 박상필 김숙자 최인영 인암스님 이태우 성묵스님 한마음선원 혜국스님 이기남(총62명)

법회안내



철웅스님(파계사 성전암 주지) 23일 오전 11시 파계사 성전암 진여회 법회. (02)821-3242



제원스님(조계종총무원 기획실장) 9일 오전 10시 30분 청계사 포교원 광명사 초청법회. (0344)978-9782



보광스님(동국대 교수)9일, 16일, 23일, 30일 오전 10시 길상사 가족법회 〈불설 아미타경〉법회.



보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5일 12일 오후 7시 30분 서울불교청년회 기초교육원 교리강좌 법회. (02)730-9108



응현스님(보명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관음재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032)815-6610



권기종교수(동국대) 9일 오전 10시 동산교육회관 전국염불만일회 정토법회. (02)752-1206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영축산 통도사에서 새벽을 맞으며 깊은 자신의 내면을 깨우자.

내면속 자기 일깨우자
'뿌리깊은…' 통도사등 답사

인도의 영축산과 통한다 하여 이름붙여진 통도사. 통도사에서 새벽을 맞으며 깊은 내면속의 자신을 깨우고, 감포 앞바다에서 동해 일출과 문무왕의 애국심을 되새겨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끈을 매어보자.

뿌리깊은 나무 샘이깊은물 문화탐방에서는 7일~8일 무박으로 양산 통도사와 감은사 터 등지로 답사기행을 떠난다. 통도사의 감흥을 가슴에 담은채 감은사 탑의 조형미와 신라인의 사상, 신앙이 한데 모인 야외 박물관이라 불리는 동남산, 삼국통일의 구심점 역할을 한 황룡사 들을 돌아보며 서라벌의 향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02)3675-0625

생활하며 참선하며
무진법장사 주민선방 개설

참선, 명상, 단전호흡에 관심있는 불자라면 무진법장사를 찾아가자.

무진법장사는 9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 주민 선방을 연다.

주민 선방은 일상생활속에서 틈틈이 참선수행과 명상, 단전호흡을 수련하려는 직장인, 청년, 학생, 노년불자 등을 위해 마련됐다. 또 가족단위로 부부가 함께 동참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02)932-2333

나누는 마음 부처님 마음
청담종합복지관 바자회

어려울때 일수록 마음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불자의 삶이다.내게는 필요없는 물건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다면 이번기회에 기꺼이 동참하자.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직자 자녀 및 결식아동돕기를 위한 바자회를 앞두고, 물품 후원자를 기다린다. 책상, 장농 등 가구류와, 의류, 생필품, 가정용품 등 중고물품도 가능하다. (02)806-1375

청년불자 대발심의 기회
참나찾기 청소년 팔관재

21세기의 희망,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에게 진정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해 줄 시간이 마련된다.

한국불교청년회 마음의 전화는 제 12회 참나찾기 청소년 팔관재 큰 모임을 11일~13일 2박3일간 연다.

초 중 고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 대회는 갓바위, 관암사, 감포 대왕암, 불국사 등지를 방문하며,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아 아름답고 건전한 사회건설의 큰 원을 세우게 될 것이다. (02)747-5787

자성의 꽃 피워보세요
조양자씨 꽃꽂이 무료강좌



20여년간 꽃꽂이를 연구해온 조양자씨(예담꽃꽂이 중앙회 회장·사진)가 불단에 공양하는 꽃꽂이를 배우고자 하는 불자들을 무료로 가르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동참자를 기다린다.

매년 부처님 오신날 관욕전을 꾸미는 등 화계사의 꽃꽂이를 맡고 있기도 한 조씨는 "제가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이것뿐입니다. 정성껏 가르쳐 법당마다 예쁜 꽃꽂이로 장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2일부터 매주 토요일 서초구 반포쇼핑상가 6동 519호에서 6개월간 진행되며 꽃값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02)595-3354

젊음앞엔 종교벽 없어요
제1회 종교청년 평화캠프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17일~19일 의정부 다락원 캠프장에서 제1회 종교청년 평화캠프'를 연다. 불교, 가톨릭, 기독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6대 종단의 대학생회 및 청소년 교육기관의 단체장, 임원 등 20대 청년들의 한마당이 펼쳐지는 것.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종교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처럼 각 종단을 청년들이 대표해 만남을 갖고 상호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열린마음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진취적인 청년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02)816-2250

현공스님 달마도 전시

모은사 소년가장돕기

진주 모은사는 오는 22일부터 20일간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돕기를 위한 달마상 전시판매전을 연다. 주지 현공스님이 틈틈이 그린 달마상 300점을 모은사 연화불교회 신도들이 사찰내 전시회를 통해 기금 마련에 나선 것.

스님과 신도가 함께 뜻을 모아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이 행사에 지역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다린다. (0593)854-8555

게 시 판

♣ 알림

△이미용서비스=능인사회복지관에서는 매주 화 수요일과 매월 2 4주 일요일 오후 1시~3시 3층 미용실에서 무료 컷트와 파마 써비스를 실시한다. (02)571-2988

♣ 강좌

△금강경·육조단경=교리반 경전반으로=금정불교대학은 불교입문자를 위한 교리반과 〈금강경〉〈육조단경〉〈승만경〉 경전반 신입생을 모집한다. (051)866-7277

△여름철 건강관리=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6일 자원봉사자실에서 강재훈 한의사를 초빙, 여름철 건강관리 보건강좌를 실시한다. (051)265-9471

△직장인 컴퓨터반=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7시 직장인을 위한 컴퓨터 기초반을 개강한다. 수강료는 월 3만원. (02)806-1375

△도시락 밑반찬만들기=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가정에서 응용가능한 도시락 및 밑반찬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02)282-1100

♣ 모집

△광주불교문화대학=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 부설 광주불교문화대학(원)은 98학년도 2학기 입학생을 모집한다. (062)228-9098

△기초교리반=광륵사(주지 능인)에서는 사찰예절과 불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제1기 기초교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 개강은 9월 2일. (062)224-7801

△노인주간보호소 이용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소는 보호소를 이용할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모집한다.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5시까지 열리는 보호소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일반노인은 실비만 받는다. (02)365-3677

△시민불교교양대학 교리반=무진법장사는 알기쉬운 불교예절, 불교상식, 부처님 일생, 기초교리 등 시민불교교양대학 교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15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강의한다. 선착순 60명. (02)932-2333

△이동목욕 대상자 및 자원봉사자=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중풍, 치매 등으로 거동불편한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의 청결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목욕사업을 실시한다. 이용료는 전액무료다. 또한 목욕보조를 맡아 줄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02)365-3677

△정수 노인주간보호센타 회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4시까지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정수 노인주간보호센터 회원을 모집한다. (02)282-1100

△맑고향기롭게 원고=맑고향기롭게에서는 바르고 선한 삶을 위한 의견과 지혜를 담은 원고를 모집한다. 2백자 원고지 5매 내외 분량으로 매월 20일까지 보내면 된다. (02)741-4698

♣ 답사

△가야산 해인사, 도동서원=국토문화순례 터사랑은 8일~9일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 경판고가 있는 가야산 해인사-회연서원-도동서원 등을 답사한다. (02)725-1284

△백양사, 담양 정자문화=국토문화연구회 옛돌에서는 8일~9일 장성 백양사와, 담양호, 죽물시장, 죽물박물관, 면앙정, 송강정, 취가정 등지를 찾아 정자문화의 참맛을 느낄 예정이다. (02)275-4333

나의 수행일기



김광복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대불련 활동 신행의 밑거름

졸업후 동문 '합동세미나' 열어 불교공부

율초에 정기검진을 받았다. 전에 아픈적이 있던 호지킨병(악성임파종)이 다시 재발하였다고 한다. 부처님은 병이란 실제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인연따라 생기고, 또 없어 지는 것이라고 하셨다는데, 어쩌다 무명으로 부터 발생한 인연법이 나의 육체를 태어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인 모양이다.

그러나 얼마후 나는 비록 현대의학의 혜택과 주위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대학생불교연합회 전남대 지회 동문재학생 여름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나는 약 27년 전 대학교 1학년말에 우연히 대불련 전남대 지회에 가입하여 불교학생회 일원이 되었다. 그 당시 내가 만난 불법은 적어도 모든 생명체는 무한광명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불성을 가지고 있는 번뇌를 끊으면 누구나 부처가 된다는 평등사상과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 생로병사 등 윤회설적인 인생관, 지수화풍의 물질관, 또 우주관 등 철저한 과학정신과 합리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마침 평소 논리적으로 따지는 습관이 베어 있던 나에게 알맞는 종교를 만나게 된 것이다.



1학년 2학기 겨울 방학때부터 수련대회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그 수련대회 기간중의 아침 예불의식과 참선, 그리고 고요한 침묵, 대덕스님들과 교수들의 설법이 나를 매료시켰다. 이제 알려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심도 생기게 되었다. 그 뒤 나는 대학생활의 상당부분을 대불련활동으로 보내게 되었다. 대학생활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불교활동을 했던 시간은 보람있는 시간이었으며 수행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당시도 상당히 많은 우수한 대학생들이 불교학생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였다. 그들은 지금도 각자 자신들이 무한광명의 불성을 가진 것을 확신하고 열심히 각 분야에서 꾸준하게 정진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그들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몇년 전부터는 동문들이 재학생들과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 1박2일동안 합동세미나 형식의 간이수련대회를 갖고 있다. 이 합동세미나는 재학생과 동문들이 함께 모이는 기회와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또한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교의 요점들을 지적하고, 요즘과 같이 취직공부에만 몰두하고 있는 재학생들과 직장생활에 얽매여 있는 우리 동문들에게 자신들의 전공공부와 직장이외에 또 다른 정신세계가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올여름까지 11회 대회를 마쳤다. '대승의 다불사상에 대하여', '정혜백련결사운동과 그 현대적 수용', '불교법난의 역사적 해부', '미륵신앙의 현대적 모색', '천태종의 이해', '연기와 중도', '불교와 과학', '천태지관의 이해와 실수', '법화참회의 이해와 실수', '불교와 윤리', '여래장의 이해' 등이 그동안 함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실제수행을 했던 주제들이다.

특히 '불교와 과학'을 주제로 했던 7회 때에는 많은 동문들이 불교에서 본 물리의 세계와 현대과학자가 본 불교와 과학에 대한 이론을 통해 새롭게 불교의 심오함에 눈뜨기도 했다. 앞으로도 새로운 분야들을 세미나의 주제로 삼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들을 소개하는것은 이 주제들을 화두삼아 공부하면서 생활에 응용한다면 생활불교를 실천할 수 있고, 또한 함께 모여 공부하는 것이 불교수행에 도움이 되므로 우리 청년불자들이 이같은 대회에 보다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이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처럼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회 등을 통하여 나의 삶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가를 자문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나의 수행생활은 대불련 동문들과의 밀착된 활동을 통해 계속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더욱 알차고 보람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삼매수행으로 자아실현과 위기극복을 위한

선수련 禪 회

모집안내 3박 4일

원명선원에서는 누구나 곧 바로 마음을 닦는 삼매의수련, 3박 4일의 수행후 일상생활(직장 가정 학교 사회)속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 바탕으로 돌아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련을 합니다. 자신을 찾아 내가 있는 인간의 삶을 반드시 찾아 보십시오.

◇대 상 : 1. 직장 또는 생활에서 시달리는 직장인 또는 실직인 2.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
3. 본 선원의 수행 방침과 참선 지도를 받고 수련에 참석할 수 있는 정신과 신체 건강한 불교를 받아들이는 성인 또는 불자
◇날 짜 : 98.8.14(금)~17(월) (3박 4일)
◇신청서류 : 1. 성명(한글,한자)2. 주소 3. 전화(자택, 직장) 4. 종교 5. 주민등록번호 6. 직업 7. 참가동기
◇인 원 : 1. 선착순 60명(당일접수안됨). 2. 자원봉사자 5명(회비없음)
◇일상수행내용 : 수행중묵언, 법문, 행선20분, 좌선20분, 예불, 선문독송, 염송, 염송글사경
◇특 징 : 참선 수련이 어렵거나 극기와 같은 힘든 수련이 아니며 4일간 수행후 일상 생활 중에 실천이 가능함.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참선을 체험할 수 있음.
◇온라인 : 우체국 510016-0120528 (예금자 - 원명선원) ※ 온라인 입금후 근무 시간중 필히 연락요 월-금 9:00~17:00
◇회 비 : 5만원(입금된 금액은 반환 안됨)
◇준비물 : 세면도구, 승복 또는 수련에 적합한 복장, 흰고무신
◇장소및 접수처 : 제주시 화북1동 4684(제주교대옆, 시내, 좌석버스 제주교대하차)원명선원
☎ 064-55-3322(98.8.1부터 755-3322) 전송 064-55-8913

대한불교조계종 한라산 원명선원

김정빈 선생과 함께 하는

〈위빠사나〉 명상수련

번뇌는 사라지고 깨어있음을 체험한다!

■ 〈고요하다〉〈순수하다〉〈깨끗하다〉〈오롯하다〉〈자연스럽다〉 - 위빠사나(Vipassana)명상에는 붓다 시대의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의식을 일깨워 몸과 마음을 주시하는 단순한 수행법이지만, 그 속에 번뇌를 다스려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깃들어 있습니다.
■ 속리산 깊은 산사에서의 2박 3일 - 붓다의 위대함에 머리숙여 찬탄하고, 근본불교 당시의 핵심적인 수행법을 직접 닦아 번뇌와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 보십시오. 참답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 지도강사 김정빈 선생(46세)은 〈단(丹)〉, 〈도(道)〉 등 정신수련과 마음공부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책들을 다수 저술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위빠사나 명상에 입문하여 1995년에는 미얀마의 수행센터에서 하루 16시간 정부를 위빠사나 명상에 몰입하는 집중적인 코스를 밟은 바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책 〈마음 다스리는 법〉과 〈마음이 평화로와지는 9가지 원리〉들 펴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일시: 8월 7일(금)~ 9일(일)/ 2박3일
● 장소: 속리산 문장선원 〈성불사〉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소재
● 참가비: 15만원
□ 선착순 접수마감: 8월 1일까지

정신세계원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운현궁터 옛덕성여대 B관 502호 ☎02-747-7033

마음을 다루는 기술!
정신력을 키우는 기법!

실바 마인드컨트롤

Silva Mind Control



〔효과〕 마음의 힘 증대 / 심신건강 증진 (스트레스, 불안, 초조, 불면, 두통 등 해소) / 정신력 향상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 직관력 등) / 학습, 업무능력 증대 / 성격, 대인관계, 부정적 자아상 개선 / 문제해결, 목표달성, 영적능력 계발

방학특강 연속 4일간
〔1차〕 7월 28일(화)~ 31일(금) 오후 2시~ 5시
〔2차〕 8월 3일(월)~ 6일(목) 오후 2시~ 5시

주말과정 총12시간
8월 1일(토) 오후 3시~ 10시 / 2일(일) 오전 10시~ 오후 5시

정신세계원 개원 5주년 기념
참가비 50% 파격적 할인!!

■ 참가비: 평생회비 7만원 / 실습테이프는 별도(3만원)

■ 지도강사: 송순현 선생 48세
서울대 철학과 졸업 '정신세계사' 대표 역임 (1984~1993) 실바 마인드컨트롤 국제본부(미국)에서 전문 강사 과정 이수(1992) 현재 삼신수련 전문 문화센타인 '정신세계원' 을 운영하면서 실바 마인드컨트롤 전문강사 및 사단법인 '한국 정신과학학회' 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신세계원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운현궁터 옛덕성여대 B관 502호 ☎02-747-7033

여름산사 가면 '문화와 만남'

처마밑의 풍경이 은은하게 흔들린다. 시원한 산바람탓일까, 아니며 흥겹고 구성진 국악의 선율을 타고 춤을 추는 것일까.

홍련, 백련이 만발한 연못가에서, 단청색 고운 처마아래 대웅전 꽃살문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린다. 여름 산사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는 시가 있고 향기로운 차가 있다. 국악가락과 아름다운 우리춤, 그리고 신명나는 사물놀이도 한바탕 벌어진다. 아산 인취사, 인제 백담사, 영천 은해사, 성남 정토사, 양양 낙산사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들은 불볕더위는 물론 속진까지 시원하게 씻어주며 여름포교의 장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낙산사 산중음악회에 피서객 초대
백담사 7일부터 만해시인학교 개교
인취사 9일 5백평 연못가 백련시사
은해사 22일 일연성사 기리는 음악회
정토사 29일 연꽃축제 국악 · 무용 '한마당'

◇지난해 8월 정토사에서 열린 연꽃축제.



인취사 백련시사 아산 인취사(주지 혜민)에서는 9일 제5회 백련시사(白蓮詩社)가 열린다. 하얀 연꽃이 만발한 5백여평 연못가에서 열리는 이번 백련시사는 시낭송회, 서예, 그림전시, 국악, 헌공다례, 풍물놀이 등이 어우러진다.

특히 이번 백련시사는 광복군 및 독립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을 초청,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광복의 뜻을 새롭게 다지자는 취지로 마련돼 더욱 뜻깊다. 혜민스님이 직접 만든 연꽃차를 달여 마시는 연꽃차회 순서가 하이라이트. (0418)42-6441

백담사 시인학교 만해 한용운스님이 불후의 명작 〈님의 침묵〉을 쓴 곳, 인제 백담사(주지 마근). 수량 풍부하고 흰 암반의 원시계곡을 끼고 있는 백담사에서 7일부터 10일까지 제3회 만해시인학교(교장 고은)가 개설된다. 시 창작강의, 시인 · 평론가와의 대화, 시 백일장, 시낭송회 등과 참선실수, 국악공연 등의 행사가 곁쳐진다. 고은시인의 '만해시특강'과 김용직 서울대명예교수의 '한국현대시와 전통'특강도 마련된다. (0365)462-3244

은해사 음악회 일연성사 열반 709주기를 맞아 성사의 자주 애국사상을 다시금 되새기기 위한 음악회가 22일 오후 5시부터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다. 다례제와 함께 열리는 음악회는 경북도립교향악단의 협연으로 스비리도프 모음곡 '시대전진', 소프라노 윤현숙의 '그리운 금강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등찬불가, 클래식, 가곡, 가요,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팔공산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0563)35-3318

낙산사 산중음악회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건립을 위한 산중음악회가 1일 오후 7시 양양 낙산사(주지 지홍)에서 열렸다. 김영동씨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풍물패 들이 '영산회상' '산행' 등을 연주하고 살풀이춤과 사물놀이 공연도 결쳐졌다. 행사에 참여한 피서객들은 "8월 15일 광복 53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군위안부 기념관 건립을 위한 공연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감동을 가누지 못했다.

정토사 연꽃축제 성남 정토사(주지 보광)는 29일 정토사 개산 16주년 기념 '온 누리에 연꽃향기 가득히'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1부 영가천도와 2부 수계법회는 대웅전에서, 3부 문화행사는 홍련과 백련이 활짝 피어있는 연못가에서 펼쳐져 흥겨운 국악과 불교무용을 선보이게 된다. (0342)723-9797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불심시심 〈139〉

온갖 냇물 바다로 들다

物外何山是舊遊 (물외하산시구유) 물정 밖의 어느 산이 옛 놀이터
金剛自有雨花樓 (금강자유우화루) 금강산에 저절로 우화루 있지
千峰吐白宵兼晝 (천봉토백소겸주) 뭇 봉우리 솟는 흰 빛 밤도 낮이요
萬瀑生凉夏是秋 (만폭생량하시추) 시원하게 쏟는 폭포 여름도 가을
隱神臺上有仙景 (은신대상유선경) 은신대 위에는 신선 경치가 있고
斷髮嶺頭無世愁 (단발령두무세수) 단발령 높은 고개 세상 근심 끊는다
橋下百川同入海 (교하백천동입해) 다리 밑 온갖 냇물 함께 바다로 가듯
四輪廻處意悠悠 (사륜회처의유유) 네 바퀴 돌아오는 곳 유유한 여유.

상월(霜月 · 1687~1767)대사가 풍악의 보인대사에게 주는 시이다. 곧, 대인관계의 수증시이다. 그러함에도 주고 받는 이의 심정적 정감을 말함이 거의 없다. 첫구에서 물외라 하는 사물 밖의 초연한 자세이기에 인정적 서술을 외면한 채 자연의 실상을 말하여 서로의 이심전심의 경계를 나타낸 것인가. 금강산에 있는 스님에게 주는 시이기에 산사를 에워싼 주변 풍경을 말하여 두 사람의 정리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옛 놀이 중에서 어느 곳이 사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격외의 곳일까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보인스님이다. 이 첫 구에서 벌써 격외의 벗임을 암시했다. 그러한 놀이터로 떠오르는 곳이 우화루이다. 누대의 이름도 멋이 있다. 비가 꽃으로 내리는 누대이다.

온 봉우리에서 내뿜는 흰 빛이 무엇일까. 물론 구름이다. 이 피어오르는 구름에 대낮도 밤이다. 이것을 뒤집으면 밤도 낮이다. 그래서 밤도 낮이라 하였다. 구름에 가린 적조의 고요함 또한 낮밤의 구분이 없다.

내리지르는 폭포의 서늘함은 산 속의 여름을 빼앗아간다. 여름을 느끼지 못한다. 항시 가을이다. 누대의 이름이 은신이니 신선이 숨은 누대이다. 따라서 그 주변은 절로 신선경계가 된다. 고개의 이름은 단발이니 이미 머리를 깎은 고개이다. 머리 깎음은 속계를 여읨의 상징이다. 자연 세속 근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 온갖 흐름의 조종은 바다이다. 우리의 삶도 이 물이 바다로 조종삼듯 진리의 깨우침으로 조종삼아야 한다. 이런 경지에서 사륜으로 상징되는 자연의 모든 것은 유유자적할 수밖에 없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화제의 전시

탱화 · 모사전

전통회화모임 '벽연회'
5~11일 인사동 경인미술관


◇홍창원 作 '영산회상도'.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만봉스님의 제자이며 단청 이수자인 홍창원씨(44) 문하생들의 모임인 '벽연회'가 5일부터 11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제1회 단청전 및 경복궁 근정전문양 모사전을 갖는다. 33명이 회원으로 있는 벽연회(회장 이영자)는 단청 탱화의 기법을 전승하고 창의적 화업연마에 노력하자는 전통회화연구단체.

이번 전시회에서는 영산회상도, 관음도 등 전통불화 작품과 타조알에 그린 단청, 비구상 등 작품 33점과 경복궁 근정전 단청문양 모사품 등 총 80여 작품이 전시된다. 이경숙 기자

이문형 설치전

7 · 8일 경주 보문호 광장
불상소재로 인간성 상실 메시지

불상을 소재로 한 이문형씨의 설치미술이 7~8일 경주 보문호 선착장옆 광장에서 열리는 전위예술제에 선보인다. '일루션(Illusion) & 비전(Vision)'으로 이름붙여진 이 작품들중 하나는 지름 7m의 화단 둘레에 철망으로 조성된 120구의 불상을 놓고 아래에서 네온빛이 비추도록 했으며 다른 작품은 스크린으로 밀봉된 길이 6m의 정육면체안에 불상을 설치해 회전시킴으로써 밖에서 불상의 그림자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투영되도록 해 허상을 좇는 현대인의 인간성상실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있다. 이윤호 기자


◇이문형 作 '일루션&비전'(부분).

김해박물관 개관 '가야문화 접속'

가야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고고학 전문 국립김해박물관(관장 성낙준)이 7월29일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서 개관했다.

철기문화를 꽃피워 온 가야문화를 집중조명할 김해박물관은 대지 1만5천여평, 연건평 2천8백여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3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컴퓨터 안내시스템, 선사시대 마을과 무덤모형, 가야 유적분포 전광판 등을 만들어 한눈에 가야문화 개관을 훑어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김해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동아대박물관이 1점씩 전시해온 보물 598호 오리모양토기 한쌍, 진주박물관이 전시해온 보물 637호 수레바퀴모양토기 등 5천여점의 유물을 인수 · 대여받아 전시한다.

전시1실은 신석기시대에서 가야성립기까지의 유물과 금관가야의 유물을 선보인다. 전시2실은 거대한 고분과 정교한 금은 세공품이 특징인 대가야를 비롯, 말갈옷과 금입사고리자루칼로 유명한 아라가야, 소가야 등 가야연맹의 유물이 나라별로 전시된다.

문화 단신

해인사 대장경 사진전

합천 해인사(주지 보광)는 1일부터 3개월간 구광루에서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 사진전과 불교도서 · 음반전시회를 갖는다. 팔만대장경 해인사 이운 6백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팔만대장경 관련사진 50여점을 비롯 각종 불서와 염불 · 명상 · 찬불가 관련 CD와 카세트테이프 1천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0599)31-1001

중국문화대전 앙코르전

지난 봄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던 중국문화대전이 7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 여의도 63빌딩 특별전시장에서 다시 열린다. 이 중국문화대전 앙코르전에는 예술의 전당에 출품됐던 1천2백여점중 호평을 받은 시대별 중요작품 5백여점에다 기인열전 예인열전 등 볼거리를 추가했다. 진시황 동마차, 병마용, 당삼채, 갑골문, 주작등, 혼천의 등 중국문화의 걸작들을 다시 볼 수 있다. (02)789-5663

찬불가 가사 현상공모

대한불교 찬불가제정위원회(위원장 정용우)는 불자들이 널리 부를수 있는 △찬불가 △불교동요 △불음가요 △악극대본(20분용) 등의 가사를 현상공모한다.

부문별 주제는 회향, 찬탄, 서원, 통과의례, 발원 등이고 응모기간은 9월 30일까지. (02)425-3002

국보 301점-보물 1227점 '만날기회'

케이블TV '국립영상' 5일부터 내년말까지

5천년 역사속에서 조상들의 지혜로 만들어진 석굴암, 팔만대장경, 첨성대 등 세계에 빛나는 우리문화유산. 하지만 석굴암이나 팔만대장경이 국보 몇호 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과연 몇명일까? 케이블TV 국립영상(ch · 14)은 6월 1일부터 국보 1호인 '숭례문'을 시작으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를 호별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명한 다큐멘터리 '문화재 순례'를 방영하고 있다.

매주 월 · 수 · 금요일(오전 10시50분~오전 11시) 주 3회에 걸쳐 방송되는 이 프로는 내년말까지 국보 301점과 보물 1,227점 등이 소개된다.

불교문화재가 다른 달보다 많은 8월 '문화재 순례'는 5일 세계최고(最古)의 목판인쇄경판인 '해인사 대장경판'이 이어 12일 화엄사4사자 3층석탑, 14일 상원사동종, 17일 경주 구황리삼층석탑, 24일 정혜사지십삼층석탑, 26일 용두사지철당간 등 총12회가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경주박물관 강우방관장을 비롯한 문화재 전문위원과 해당 문화재를 소장한 사찰의 스님 등 전문가들이 국보와 보물이 있는 현장에서 문화 유산의 역사와 유래, 문화적 가치, 보존상태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답사여행을 함께 온 느낌을 전해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우룡큰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기도하는 시간의 길고 짧음보다, 절을 하는 횟수의 많고 적음보다, 마음을 잘 모아 염(念)을 하고 정성을 다해 한배 한배 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믿음의 주춧돌을 견고히 놓아, 일어나는 번뇌를 좇아가지 말고 정성껏 기도하십시오."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되니까?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값 7,0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모두 참사람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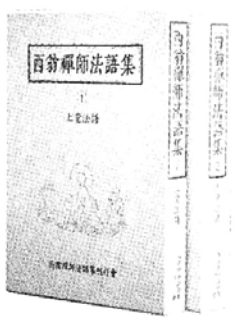
서옹선사 법어집 1·2권

"참사람이란 현재의 한 생각이 무한하여 이성적인 선악과 생사,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일체를 초월하여 무애자재합니다. 무한히 자기를 부정하고 무한히 자기를 창조하는 진정한 뜻에서 참사람이란 자체마저 우주 밖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조계종 제5대 종정을 역임하고, 현재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으로 주석하고 있는 서옹스님의 법어를 모은 〈서옹선사법어집〉(민족사 刊)은 우리 모두가 진실한 자기, 즉 '참사람'을 찾을 것을 주창하고 있다. 법어집은 납자들을 위한 1권 '상당법어'와 일반인들을 위한 2권 '대중법어'로 구성돼 있다.

제1권 '상당법어'는 전국 여러 선원의 조실로 주석하면서 선원수좌들을 위해 결제나 해제 때 법문한 것을 실었다. 서옹스님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폐부를 찌르는 단평(短評·조사스님들의 송구에 대한 간결한 평)과 착어송구(着語頌句·조사스님들의 송구에 게송을 붙인 것)는 임제가풍의 준엄함과 스님의 걸림없는 경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활구법문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제2권 '대중법어'는 대중설법을 수시로 녹음해 정리한 것으로, 현대 과학문명의 위기극복은 인간의 근원적 모습으로서의 '참사람'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동서고금의 철학사상을 모두 회통하여 조사선으로 귀일시킴으로써 선을 현대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 것도 특징이다. 어려운 철학 및 불교용어는 주를 달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작은일부터 실천을"

우룡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스님, 어떤 삶이 좋은 삶입니까." 한 신도의 질문에 우룡스님은 밤낮으로 나무아미타불만 염송하며 청빈한 삶을 살다 입적한 하담스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아무 가진 것도 없지만 자기 마음 속에 무엇인가를 간직하고 혼자 누리는 기쁨 속에 살다가 가신 분은 행복한 삶을 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되묻는다. 되물음, 무엇을 찾으라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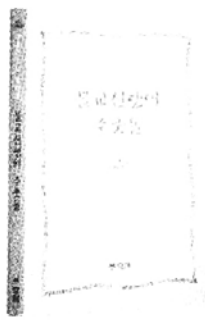
우룡스님(울산 학성선원 조실)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효림 刊)은 신행생활에서 겪는 갖가지 의문들에 대해 또 다른 의문을 던진다. 그러나 그 물음은 나침반처럼 한 방향을 가리킨다. 행복한 삶은 반드시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그 기초는 불성을 주춧돌 삼은 바른 신행생활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으로.

하지만 거창한 말로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하는 식의 법문은 아니다.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불자다운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운다.

돈과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 게으름, 응어리, 망상(어) 등 삶의 모든 굴레에 대한 다양한 일화와 고사를 통한 가르침이 통쾌하다.

삶을 올바로 직시하고, 삶의 뿌리가 무엇이며, 삶의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보아야만 올바른 신행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의 이 책의 핵심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해외신간

보살의 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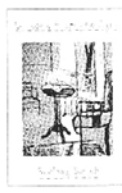


보살(菩薩)은 어떤 모습일까. 미국의 불교철학자 다니엘 링톤이 고대 불자들에게 정신적인 모범을 보여주었던 보살의 모습을 현대의 위인(偉人)들에게서 찾고 있는 책 〈보살의 원형·Bodhisattva Archetypes:Classic Buddhist Guides to Awakening and Their Modern Expressing〉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 "고대의 보살상은 현대인들이 세간의 삶을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한 다니엘은 아인슈타인, 재임스 죠이스, 밥 딜런, 테레사수녀, 달라이라마 등 20여명의 삶과 경전에서 나타난 보살의 수행, 조상(彫像), 심상(心像) 등을 비교하고 독자들에게 현대적인 보살의 상(像)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Penguin U.S.A 刊. 〈p.p 320, ISBN 0140195564〉

죽음이 가르친 교훈



우리가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 그동안 익어온 인식과 가치관들을 바꿀 수 있을까?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로드니 스미스가 내놓은 〈죽음이 가르친 교훈(Lessons From the Dying)〉은 각 장마다 죽음을 대하는 명상적인 글쓰기를 통해 죽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을 새기고, 이 교훈을 건강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로드니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소멸시킬 수 있을 때, 타인과 진정한 유대를 나눌 수 있고, 조화로운 존재로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며 죽음이 남겨준 교훈을 통해 삶의 청사진을 보여준다.

Wisdom Publication 刊. 〈p.p 224, ISBN 0861711408〉

불경 현대감각으로 재해석

김장호씨 '…불경이야기'



불교 경전은 인생의 진리와 철학, 그리고 우주의 섭리가 모두 들어 있는 지혜의 보고(寶庫)다. 그러나 그 양이 너무 방대해 선뜻 손이 내밀어지지 않는다.

김장호씨(해외출판정보 대표)가 펴낸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채우는 불경이야기〉(문화사랑 刊)는 불경을 현대감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읽는 재미를 통해 불교의 진리와 향기를 자연스레 접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경전해설서다.

이 책의 특징은 전체 내용을 '진실된 가르침을 받다' '커다란 깨달음을 얻다'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가다' '비유에 들어 있는 참뜻을 읽다' 등 4개의 주제로 분류하고 각 주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설화들을 수록한 후, 이들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경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진실된 가르침을 받다'에서는 〈자타카〉에 나오는 '여우왕' '음탕한 왕비' 등의 설화를 얘기하면서 〈자타카〉의 세계를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법화경〉 〈금강경〉 등 30여 주요 경전만을 다뤘지만 불경의 세계를 짐작하기에는 충분하다. 마지막에는 유명한 불교 문학 작품들을 함께 수록해 인류가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도 살폈다.

반가사유상-석굴암-해중릉 발견 경위·사상 등 고찰

황수영 전집-한국의 불상(하)

한국 고대조각사의 최고봉을 점하는 반가사유상과 석굴암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황수영전집-한국의 불상(하)〉(혜안 刊)가 나왔다.



지난 3월 나온 〈한국의 불상(상)〉이 금동불에 관한 것이었다면, 〈한국의 불상(하)〉는 반가사유상의 조성시기와 시대별 특성과 그 속에 담긴 사상을 고찰하고 석굴암이 우리 민족의 상징임을 입증해내고 있다.

제1부 '반가사유상' 편에서는 삼국시대 말기부터 통일신라 초기, 그리고 신라에서 주로 반가사유상이 조성됐음을 추적하면서 삼국 반가사유상의 다양성과 국보 78·83호 반가사유상의 발견 경위와 제작 주체를 둘러싼 논쟁을 담았다.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을 다룬 제2부에서는 1962년부터 3년간 황박사의 책임하에 실시됐던 석굴암 수리공사 전말과 조각의 불교미술사적 의의, 탁월한 과학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3부에는 세계 유일의 인공 해중릉으로 평가되는 '문무대왕 해중릉'에 대한 저자의 논문 3편이 실려있다. 한명우 기자

"집착 버릴때 무의세계"

김용오 시집 '멀티오르가슴'



오르가슴(orgasme)의 사전적 의미는 '성교할 때의 쾌감의 절정'이다. 그러나 진정한 오르가슴은 쾌락을 넘어선 그 어떤 자리,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절대무의 세계요, 너도 있고 나도 있는 절대유의 세계라고 김용오 시인(53)은 말한다.

그의 시집 〈멀티 오르가슴〉(시문학사 刊)은 다 벗어버리고 또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곳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마저 새로운 또하나의 집착임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집착마저 다 버릴 때 비로소 진정 무의 세계에 이를 수 있음을 노래한다. 일반에게는 선정적인 '오르가슴'이라는 단어는 그에게서 깨달음의 세계, 즉 부처님의 세계임을 보여준다.

시 제목은 모두가 '오르가슴'이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시에는 '덧없는 한세상 저 텅빈 허공에 등을 기대어 걸림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가야 한다'는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다. 그에게 '오르가슴'이라는 행성은 모두가 도달해야 할 '필연의 땅'이자 '깨달음의 땅'인 것이다.

화제의 책

…참 행복한 사람 — 나무불스님 지음



"세속떠난 무욕의 삶 이렇구나"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은 경북 성주군 천상산 길상도량에서 '소 먹이는 일'을 배우며 이웃한 사람들과 자연과 함께 사는 나무불스님(법명 지해)이 생활의 단상들을 모은 산문집. 청정한 삶에 안온이 있고, 마음을 비우면 선악이 따로 없음을 읊조리면서 청빈하고 선하게 살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부질없는 욕망을 놓지 못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길이 평온을 준다. '세속을 떠난 무욕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책.〈민족사, 6천원〉

깨달은 자의 죽음 — 안동권 지음

부처님을 만난 인도여행기



"붓다는 죽었다.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다. 붓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가톨릭대학을 다녔던 안동권씨는 대학시절 잠시 떠난 인도여행에서 불교를 그리고 부처님을 만났다. 〈깨달은 자의 죽음〉은 인도와 불교의 모습을 담은 안씨의 인도 여행기. 깨달음의 땅 부드가야에서 열반의 땅 쿠쉬나가르까지 인도 8대 불교성지를 여행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죽는 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했던 붓다는 정말 위대한 스승임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믿음, 7천원〉

'실상문학' 봄·여름호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채낙현)가 발간하는 〈실상문학〉 봄·여름호(통권 21호)가 나왔다.

이번 호는 특집으로 범어사 벽파스님과의 대담과 함께 '산사의 향기를 찾아-태백산의 설경'(정관스님), '시조로 엮는 금강경-머무는 곳 없이 네 마음 흘러라'(심종선)를 실었다. 또 30여편의 시·동시·시조 등과 9편의 수필을 담았으며, 97여름 부산불교문학세미나 발표논문에 대한 평론도 수록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4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효 림
5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 홍 근	여시아문
6	성자의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율 순	신 우 당
7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 종 서	여시아문
8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보자	윤원철외	시 공 사
9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10	명상체험여행	박 석	모 색

구입문의:(02)737-0695

前 조계종 5대宗正, 現 백양사 古佛叢林 方丈

西翁禪師法語集

1권 上堂法語 2권 大衆法語

드디어 큰스님의 법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불교 曹溪禪宗의 正脈으로서
임제가풍의 明眼宗師이신 이 시대의 대선지식,
西翁큰스님 법어집 출간!

• 1권 상당법어는 큰스님께서 30여 년간 제방선원의 조실로 계시면서 납자들에게 수선 참구의 지남으로 보여 주신 격외도리의 활구법문으로서 知解思量이 완전히 끊어진 本地風光의 참소식이며,
• 2권 대중법어는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역설하신 것으로 서양문명에 의해 상실된 인간의 근원적 참모습을 각성케 하신 법문입니다.

西翁禪師法語集刊行會 編
46배판 고급양장 / 전2권 / 값 38,000원



민족사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02)732-2403~4

불·자·들·의·필·독·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8년 여름 호 제6호(통권26호)



지상중계 / 불교방송 교리강좌 회향법회
박성배 교수에게 듣는다 ③
불교, 어떻게 믿고 닦을 것인가

칼리화보 /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⑥
복장물에 담긴 서원

불교계진단 ⑤ / 우리의 교단체계, 이대로 좋은가
조계종의 교단제도와 운영의 문제
한국불교의 교단체계와 세계불교국가의 예
조계종 제도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화평 / 음악(교성곡 용성)
미술(정비파 석굴암 판화전)

인터넷 불교 / 달마가 인터넷으로 간 까닭은?

불교문화의 현장 / 팔만대장경 주제음악 발표회

현대인을 위한 새로운 수행법
'아봐타' 프로그램과 사람이 사는 길

山寺古談 ② / 부처님의 손길처럼 따스한
성철 큰스님

특집
세태분석 / 미스터리물에 대한 불교적 해석
환생, 귀신, 불가사의한 체험에 대한 불교적 해석
불자로서 풍수사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
수백 붐! 미신인가, 과학인가
점과 사주에 대한 불교적 해석

특별기획 / 세계의 사상가와 불교 ④
동서양의 정신세계를 넘나든 보르헤스
그의 삶, 그리고 불교와 포스트모더니즘을 조명하고 주요한 작품 몇 편을 소개한다

세계의 불교
싱가폴 불교의 현장 - 윤회의 길, 인간의 길

한국의 미 ④ / 한국의 종이 (韓紙)

생명과 불교 / 뇌사, 장기이식에 대한 불교의 비판

생태탐사기 / 생태적 관점에서 본 능가산 개암사

고전산책 /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論
박한영의 수필 한 편과 편지글(추사의 證白帖)

발굴 / 홍인표 거사의 염불왕생법
정토 경, 논, 집 / 약사여래, 지장보살

불교와 문학 정기구독 신청 문의 Tel. 02 - 719 - 1855, Fax. 02 - 719 - 5052


◇김영태교수


◇오형근교수


◇권기종교수


◇이은봉교수


◇해주스님


◇은정희교수


◇김용표교수


◇이종철교수

불교학 교수들 "방학이 더 바쁘다"

김영태 · 오형근 · 은정희 · 이종철 교수

해주스님 · 권기종 · 김용표 · 이은봉 교수

경전 번역 · 연구서 등 집필 '몰두' 국내외 불교세미나 논문 준비

"쉴 겨를이 없다"

전국의 대학이 여름방학에 들어간지 한 달 남짓. 교수들은 학기중보다 더 바쁜 연구일정으로 학문과 씨름하고 있다.

강의로 인해 학기중에는 잠시 미뤄둘 수밖에 없었던 저술활동과 외부 강연, 원고청탁, 논문작성에서 다음학기 강의를 위한 연구까지 눈코 뜰새가 없다. 올 여름방학 불교학 교수들의 근황은 어떠할까.

돈황예술아카데미 주최 국제세미나 참석차 한 달간 중국을 방문하고 최근 귀국한 동국대 해주스님(불교학부)은 9월5~6일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인도학 · 불교학회 세미나를 위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 저자의 시비(是非)에 대한 시비'를 주제로 연구 중인 해주스님은 "지난해 '화엄일승법계도'의 저자 의상(義相)스님을 두고 있었던 시비논쟁과 관련,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을 다시 밝혀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주스님은 11월21~24일 열리는 미국 종교학회(AAR) 정기발표회 원효학 패널 발표자로 선정돼 논문을 준비 중이다. 동국대 권기종 교수(불교학부)는 '국가권력과 종교'를 주제로 8월18~20일 열리는 역사학회 세미나에서 불교분과 발표자로 나서기 위해 '중국불교에서의 국가권력과 불교'를 주제로 논문집필에 몰두하고 있다. 〈구사론〉〈육조단경〉 등 경전 윤독모임을 꾸준히 꾸려오고 있는 서울교대 은정희 교수(윤리교육)는 올 연말까지 〈금강삼매경론〉과 〈이장의〉의 주석서를 펴내기 위해 번역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동국대 김용표 교수(불교학부)는 8월25~31일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불교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출국한다. 태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국제불교세미나는 동아시아 17개국 불교학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의 불교도의 길'을 주제로 불교 문화 · 철학 · 예술 · 생활 등 4개분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 한국대표로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김용표 교수는 '동아시아 불교문화사에 있어서 한국불교의 위치와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국제원효학회 한국지부 간사이기도 한 김용표 교수는 해주스님과 함께 미국 종교학회 정기발표회 원효학 발표자로 내정되어 있어 '〈대혜도경종요(大慧度經宗要)〉의 반야경 해석학'을 준비하고 있다.

덕성여대 이은봉 교수(철학과)는 10월 열리는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추계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 '한국종교와 다종교사회'에서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종교화합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 종교의 노력과 역할에 대해 제언할 계획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 교수(한국학대학원)는 동경대 박사학위 논문 '세친(世親)사상의 연구-석궤론을 중심으로'를 일본 산키보(山喜房) 출판사에서 펴내기 위해 작업 중.

지난해 정년퇴임했으나 학부와 대학원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는 김영태 · 오형근 교수(동국대 명예교수)도 방학동안 불학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김영태 교수는 이차돈 성사의 사상을 책으로 묶고 있으며, 오형근 교수는 〈반야심경〉 해설서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과 원운스님(역경원장)의 〈고희논문집〉에 수록될 '원측법사의 반야심경찬(讚) 연구' 등을 집필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유신시대 한국종교문화 정치 · 사회적 틀에 구속"

윤승용씨 주장 '격동의 시대'로 불리우는 한국 근대사의 한가운데서 종교는 정치 · 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동아시아에서의 민족과 종교'를 주제로 17~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6차 한 · 일 종교연구자교류심포지움에서 '한국의 민족주의와 현대종교-유신시대(1974~1979)를 중심으로-'를 발표 예정인 윤승용씨(한국종교연구회 연구위원)는 미리 배포한 논문에서 "냉전구조가 우리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해 온 가운데 한국의 종교문화는 문화적 힘보다는 정치 · 사회적인 힘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유신시대의 민족주의와 종교와의 관계를 고찰한 윤씨는 "유신시대에는 체제의 정당성을 보강하기 위한 국가민족주의와 이에 저항하기 위해 전통적인 민중문화를 활용하는 민주민족주의, 민중민족주의가 대립과 갈등을 일으킨 때"라고 분석하며 "현대종교는 이같은 민족주의에 대해 때로는 종교적 이해관계로, 때로는 분단국가의 이해관계 등 특정한 지향성을 가진 민족주의를 선택해 왔다"고 밝혔다. 또 윤씨는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한국종교는 민족주의를 담아내는 기제이기 보다는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중요 기제로 등장하였다"며 "분단체제에서 야기되는 냉전적 신앙의식이 종교계를 지배, 한국종교의 민족주의는 서구종교가 지향해 왔던 정치적 민족주의만 사회적으로 확장되었을 뿐 전통종교가 가진 민족문화의 자원도, 자생종교가 가진 민족지상주의도 모두 현실적인 힘으로 발현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조선시대 팔상도의 전개 석보상절의 판화가 모본"

이영종씨 주장 우리나라 팔상도(八相圖)의 도상적(圖像的) 연원을 인도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 팔상도의 전개과정을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영종씨(서울대 박사과정)는 최근 나온 〈미술사학연구〉 제215집에서 '조선시대 팔상도 도상의 연원과 전개'를 통해 "불전팔상(佛傳八相)이라는 곤념은 인도불교사에서 급타시대 이후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으나 우리나라 팔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팔상관은 중국 송초(宋初) 도성(道誠)이 주해한 〈석가여래성도기주 · 釋迦如來成道記註〉에 근거, 자수(字數)를 네 자로 맞춰 확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현재와 같이 통일된 명칭을 가진 팔상관이 서술된 최초의 문헌은 〈석보상절〉(1447)로, 여기에 실려있는 팔상 판화의 도상들이 이후 우리나라 팔상도의 중심주제로 일관되게 전승됐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 전기의 팔상도는 〈석보상절〉 판화의 중심주제를 중앙에 배치, 주변에 다양한 불전(佛傳)을 도해한 형식으로 확립됐으며, 후기에는 주변에 〈석씨원류응화사적 · 釋氏源流應化事蹟〉이라는 명대(明代) 불전도본(佛傳圖本)에서 채용한 형식"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학술단신

'보조사상' 11집 나와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스님)은 지난해 주최한 세미나 '대각국사 의천의 불교사상과 역사적 위치'의 주제발표 논문과 월례발표회 논문을 수록한 〈보조사상〉 제11집을 최근 펴냈다.

△의천의 화엄사상과 천태사상 등 의천의 불교사상 체계에서 불교계 개편문제에 이르는 대각국사 의천의 사상이 총체적으로 정리돼 있다. (02)733-5315

대승불교硏 특강

대승불교연구원(원장 오형근)은 '불교특강'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8월부터 3개월간 매주 토요일 오후 2~6시 진행되며 △기초교리-원시 · 소승 · 대승불교 △불교심리학(유식학) △반야심경 등이 개설돼 있다. (02) 264-7120

청계서당 수강생 모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제2기 '청계서당'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3일 개강하는 청계서당은 2년과정으로, 논어 등 사서(四書) 강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6일까지며 수강료는 학기당 15만원. (0342)709-8111, 교환 333(4)

美 워싱톤 켄일워스 수상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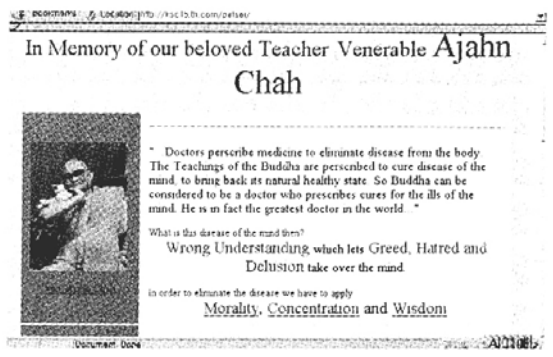
'연못 가득 노란 연꽃'

뉴스초점

노란 연꽃이 피어있는 켄일워스 수상공원에 대해 워싱톤포스트지는 "매주 토 · 일요일 공원 연못에 가득 피어있는 연꽃을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켄일워스 수상공원은 그동안 일주일에 겨우 1백여명이 다녀가는 정도 였으나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7월초부터 한주간 평균 1천여명이 이곳을 찾고 있다는 것. 그동안 공원 연못에서 연꽃을 가꾸어 온 아드리안 히긴스(조경사 · 42)는 "아마도 연꽃이 고대 인도인들의 이국적 사상을 일깨워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종욱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아잔타스님

슈메도 등 서구제자들 사이트 개설 행장 · 수행어록 · 바퐁사원 등 볼 기회

유럽 불자들에게 가장 알려진 남방불교 선지식은 누구일까? 인터넷 홈페이지 '아잔차(http://ksc15.th.com)'을 방문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아잔 슈메도 등 그의 서구 제자들이 최근 개설한 이 사이트는 △행장 △바퐁사원 △수행 및 어록 △전자출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아잔차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갈무리할 수 있다.

태국불교의 등불로 불리는 아잔차스님은 1917년 태국 북쪽 라오스와의 국경지역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20세에 비구계를 받았다. 이후 아잔차스님은 태국의 숲속에서 여러 스승들을 만나며 고행주의의 전통에 따른 명상 수련을 지도 받았다. 이때 금세기 태국과 라오스의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선지식 중 한 분인 아찬 문과 짧은 기간을 같이 지내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해 동안의 공부와 수행을 거친 다음 아잔차스님은 자신이 태어난 마을 근처에 있는 울창한 숲속으로 돌아와 정착했다. 그가 말년을 보낸 바퐁사원은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오고 함께 지내면서 아잔차스님의 주변에는 대규모 승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잔차스님은 매일 제자들에게 "모두 유 · 무정물들은 자연속에서 저마다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고 한다. 바퐁사원에 들어가는 길가에는 "조용히 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쓴 푯말이 보인다. 이 사원에서는 지금도 하루 두번의 독송과 스님의 가르침을 되짚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생활하는 가운데 명상'을 최고의 수행으로 여기며 스님이 강조했던 '자연속의 나'를 명상 수행으로 찾고 있다.

'수행 및 어록'에서는 스님을 기리는 제자들의 기억이 한 토막씩 나열되어 있는데, 아잔 슈메도스님은 "스님은 좀체로 마음의 어떤 특별한 상태, 즉 삼매와 깨달음의 상태를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스님은 어떤 문제에 질문을 받았을 때는 질문자에게 모든 집착을 놓아 버렸는지, 고(苦)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지를 되물었다. 대부분 '아직 멀었다'고 답하면서 그들에게 오로지 마음 관찰의 수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며 스님의 수행법을 설명하고 있다.

1992년 바퐁사원에는 아잔 수메도스님등 유럽인 제자 수십명이 모여 들었다. 아잔차스님의 열반을 지켜보기 위해서다. 아잔차스님과 이들 제자들의 인연은 1960년 맺어졌다. 당시 스님은 영국, 스위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유럽지역 순방 법회를 열었고, 대부분 이때 스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스님의 법문집에 외국인과의 일화가 자주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스님이 법문하고 생활하는 △사진 14장을 선명한 그래픽 파일로 제공하고, 국내에서 출판된 〈마음의 양식〉 뿐만 아니라 〈보디니야나〉 〈살아있는 불법〉 〈자유의 맛〉 등의 △법문집이 있다. 이들 자료는 각각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 다운로딩이 가능하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여시아문의 책들은
수행하는 불자들의 도반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주머니속 대장경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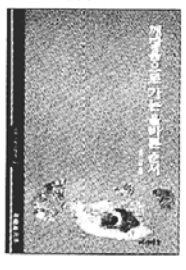
20C의 정신적 흐름을 주도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모태는 '불교'였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1쪽/ 값 5,500원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 등 숱한 수식어로 둘러싸인 이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20C 후반에 활동하는 전세계의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의 작품 전반에는 불교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그가 체득한 불교 교리의 핵심!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주머니속 대장경 201



티베트의 학승 초펠 스님이
한국말을 배워 직접 편역한
티베트인들의 수행지침서 '보리도차제'

초펠 스님 편역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삼사도(三士道)에 따른 수행의 길을 제시하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투철한 믿음과
기초 수행을 더 중시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만날 수 있다.
티베트인들의 삼세 인과에 대한 절저한 믿음과 절대적 신앙은
생활환경과 사고방식이 확연히 다른 우리 불자들에게도
소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주머니속 대장경 502



획일적인 교육으로 갖가지 병폐를
낳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장,
그 해결책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는다.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눈높이 교육'의 처음이라 할 '대기설법',
'천상천하유아독존'으로 밝혀 놓은 인간의 절대적 가치 존중,
이러한 교육관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차원의 교육이 이 땅에 정착되어 갈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야말로
개인의 잠재능력을 스스로 발현하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형의 교육관인 것이다.

여시아문은 '좋은 책, 한 지의 아쉬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61

천녀유혼

*오조가 승려에게 물었다. 천녀유혼에 어느 것이 진짜인가.

*나 혜개가 말한다. 만약 여기서 진짜를 깨칠 수 있다면 껍질을 들고 나는 것이 객사를 출입하는 것 같음을 알 것이다. 그럴 깜냥이 아니면 함부로 어지러이 날뛰지 마라. 그 어느날 지수화풍(地水火風)이 흩어질 제, 뜨거운 솥의 게마냥 팔다리를 뒤틀리니. 그때는 내가 말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라.

*송하여 가로되, "구름 사이의 달은 하나인데, 계곡과 산에 비치는 것은 제각각. 좋고도 좋구나. 하나인가 둘인가."

女離魂:

五祖問僧云倩女離魂, 那箇是眞底. 無門曰, 若向者裏悟得眞底, 便知出殼入穀如宿旅舍. 其或未然, 切莫亂走. 驀然地水火風一散. 如落湯 蟹, 七手八脚, 那時莫言不道. 頌曰, 雲月是同, 溪山各異. 萬福萬福. 是一是二.

이번의 화두는 천녀유혼이다. 왠 중국영화인가 하실 분들이 많겠다. 왕조현과 장국영이 이승과 저승에서 이루지 못할 사랑을 두고 벌이는 그 드라마를 기억한다. 서극의 환상적인 카메라워크와 SF 효과가 일품이었다.

영화는 중국의 어느 전설에서 모티프를 따왔다. 그렇지만 본 이야기의 줄거리는 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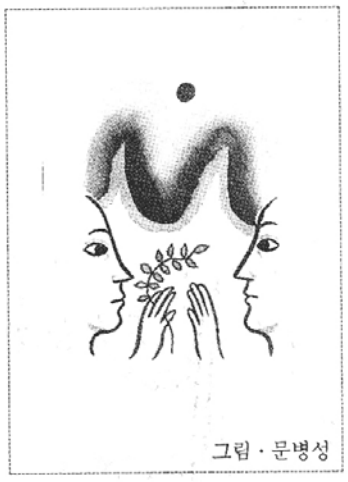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어느 것이 진짜 천녀일까

달은 하나인데 계곡에 비친 달은 제각각

형양 땅에 장감(張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인물이 수려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천녀(倩女)라 했다. (천녀란 예쁜 여자라는 뜻이다.) 장감은 가끔 농으로 외조카인 왕주(王宙)에게 천녀를 데려가라는 소리를 했다. 그런데 그 지방의 고관이 그녀의 미모에 반했다. 장감은 전날의 약속을 잊고 천녀를 그에게 시집보내려 했다. 왕주를 연모하던 천녀는 깊은 상심에 빠졌다. 왕주 조한 운명을 한탄하며 모든 것을 잊으려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왕주가 막 배를 타고 떠나는데 저편 언덕에서 천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둘은 함께 손을 잡고 머나먼 촉(蜀)땅으로 도피하여 살았다. 꿈같은 세월을 보내던 어느날 천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오면서 생긴 마음의 병이라고 했다. 둘은 늦게나마 용서를 빌고 허락을 얻겠다고 다시 고향을 찾았다. 집 근처 나루에 도착한 왕주는 그녀를 배에 남겨 두고 혼자 장감의 집을 찾았다.

왕주가 그간의 정황을 설명하자 장감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무슨 소린가. 내 딸은 지금 저 규방에서 오랫동안 병으로 앓아누워 있는데…"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왕주였다. "아니, 천녀는 저와 함께 살다가 지금 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감의 식구들은 규방의 천녀에게 이 소동을 전했다. 또 한편 장감은 그녀가 있다는 배로 사람을 보냈다.

배에서 내려 수레를 타고온 천녀가 집안에 들어서고, 병석을 털고 일어난 또 다른 천녀가 마당에서 마주치는 순간, 둘은 거짓말처럼 하나로 합쳐졌다. 장감은 사위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떠난 뒤로 어쩐 일인지 딸아이가 일체 말도 않고 흡사 술취한 사람처럼 가력이 다 빠져 지냈는데, 이는 아마도 혼백이 떠나버렸기 때문이었던가 보이." 천녀가 말했다. "서방님이 한을 품고 떠나는 것을 차마 견디지 못하고 혼이 그이를 따라 배에 올랐던 듯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나가 된 천녀는 이후 낭군과 함께 오래 오래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다.

오조(五祖, ?~1104)는 난데없이 이 전설을 꺼내 화두로 던졌다. "다시 합쳐지기 전, 두 천녀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인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이다. "그거야 물론, 사랑하는 낭군을 따라 도망하여 촉땅에서 살던 그 천녀지." 이리 대답했다간 오조의 우악스런 손거리는 좀 다르다.

형양 땅에 장감(張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인물이 수려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천녀(倩女)라 했다. (천녀란 예쁜 여자라는 뜻이다.) 장감은 가끔 농으로 외조카인 왕주(王宙)에게 천녀를 데려가라는 소리를 했다. 그런데 그 지방의 고관이 그녀의 미모에 반했다. 장감은 전날의 약속을 잊고 천녀를 그에게 시집보내려 했다. 왕주를 연모하던 천녀는 깊은 상심에 빠졌다. 왕주 조한 운명을 한탄하며 모든 것을 잊으려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왕주가 막 배를 타고 떠나는데 저편 언덕에서 천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둘은 함께 손을 잡고 머나먼 촉(蜀)땅으로 도피하여 살았다. 꿈같은 세월을 보내던 어느날 천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오면서 생긴 마음의 병이라고 했다. 둘은 늦게나마 용서를 빌고 허락을 얻겠다고 다시 고향을 찾았다. 집 근처 나루에 도착한 왕주는 그녀를 배에 남겨 두고 혼자 장감의 집을 찾았다.

왕주가 그간의 정황을 설명하자 장감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무슨 소린가. 내 딸은 지금 저 규방에서 오랫동안 병으로 앓아누워 있는데…"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왕주에 멱살을 잡혔을 것이다. 그렇다고 껍데기만 남은 고향집의 그 천녀가 진짜일 리는 없다.

우리는 또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사람들은 불평할지 모른다. "이제까지 맨 공안이란 것이 하나같이 딜레마 아니면 함정, 또는 덫이었는데 또 그 레파토리냐." 한가한 불평을 늘어놓을 시간이 없다.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면 혜개의 말마따나 죽음이 찾아올 때의 단말마를 감수해야 한다. 사대(四大) 육신(肉身)이 흩어질 때, 낡은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껍데기를 향할 그때, 흡사 끓는 솥에 들어간 게처럼 팔다리를 버둥댈 것이니 이를 어찌할 것이냐.

혜개는 그동안 온건하게 충고해왔다. 화두를 깨고 생사의 비밀을 뚫을 때 어떤 축복이 오는지를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겁을 주기로 작정한 듯하다. 이 생의 귀한 인연을 태만과 무지로 흘려보내다간 어떤 지옥을 겪게 되는지를 모골이 송연하도록 섬짓하게 주지시키고 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짜 천녀인가. 이 물음은 이렇게 번역된다. 지금 여기 있는 네가 진짜냐, 아니면 콩밭으로 마실 가 있는 네가 진짜냐. 외전(外典)에도 비슷한 화두가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마음을 보고 거기 맡기세요"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21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번뇌와 무상을 깊이 음미할 수만 있다면 100년을 산 것보다 더욱 가치있다."

다체 무슨 뜻인가? 비록 순간일지라도 삶의 본질을 보고 진실로 충만된 찰나의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가? 또 이 과정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정한 자유를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각의 대상들을 등지고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순간이라도 바른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각기관과 마음의 작용을 놓지않고 바른 노력을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게으른 습관에 젖어있던 적은 없었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이처럼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리는 순간 우리는 삶에서의 법칙을 새롭게 볼 수 있다. 그것은 꾸준한 노력이 가져온 것과 적은 노력이 낳은 것을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정정진 ④

아잔차스님은 "마음을 챙기는 일을 어느 한 순간이라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얄팍한 앎으로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마음도 방황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스님은 "그렇다고 이같은 상황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마음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수행이다. 마음의 한귀퉁이에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든지, 단지 보고 그것에 맡기면 된다. 그것들을 떨쳐버리겠다는 생각은 필요없다. 그 과정이 지나면 결국 마음은 본래의 모습에 도달해 더이상 선악과 같은 분별심에서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경계에서는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며 '아상(我相)'도 없다. 단지 '거기에 있는 것'일 뿐이다.

명상수행 계속 한다고 깨닫는것 아니다 마음챙김에서 놀라운일 생겨

산책을 할 때는 특별한 용품이 필요하지 않다. 걸어가고 있는 그 곳의 경치를 즐기면 된다.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지각의 대상으로부터 우리 본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된다. 조용한 곳에서 나만의 사색을 찾고자 인적이 없는 동굴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

어느 순간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의심 등의 감정이 일더라도, 마음에서 생겨나는 그것들을 보기만 하면 된다. 길을 따라 걷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곳을 피해 돌아가기 보다는 곧장 걸어가 넘어가는 것처럼, '이것만 아니었으면 진즉 지나갔을 것'이라며 장애물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그 여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채 부딪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목적지까지 이 길이 어느정도 남아 있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난관을 만나면 그것을 보고 그저 흐르는 대로 놓아두면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지나치고 부딪친 것들이 무엇이든지, 집착할 필요가 없다. 마음은 결국 본래의 모습에 도달한다.

수행은 이제 수행이 아니고 노력도 이제 노력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정진하게 되고 실천하게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앉지 않아도 된다. 장시간을 앉아서 명상수행을 계속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은 자세와 시간과는 상관없이 마음챙김의 과정에서 생긴다. 수행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것 처럼 평범한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걷거나 앉거나 목욕을 하는 중에도 마음챙김을 계속 해가는 것이다.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세간에서도 우리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수행은 이익을 얻고 선행을 베풀며 선업을 쌓고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특정한 목표를 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확고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일일 뿐이다. 깨달음은 대상, 승패 등에 의해 강요되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숙해지고 마음을 여는 것, 자연의 법칙과 교의를 나누는 것 등을 배우는 것에서 깨달음은 얻어진다"고 말했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70

불교와 수학

65

업과 되먹임

김 용 운



업 원형론과 같아…긍정적으로 수용

되먹임 지금 일어난일 다음 단계에 영향

업은 중요한 불교사상의 하나이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조건은 과거의 업의 소치이며, 현재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미래의 업을 정한다'는 생각이다. 눈으로 보는 것, 마음에 느끼는 것 등 정신적 육체적 구체적인 행위 모두가 업의 요소가 된다. 이 생각은 아뢰야식연기에도 있다. 씨로서의 잠재적인 힘이 싹터 활동 에너지가 되어 일상적인 업에 현행(現行·구체화)된다. 씨에서 현행이 발행하고, 또 현행은 즉시 아뢰야식에 심어진다. 또한 그 꽃이 미래를 정하는 새로운 업(씨)을 잉태한다. 현재의 자신의 행위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의미도 있다. 이 사실은

과거의 업 → 현재의 업 → 미래의 업, 또는 씨 ↔ 현행

과 같은 관계이다.

카오스(복잡성의 과학) 이론에는 되먹임(feed back)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일이 다음 단계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오늘의 일기 상태의 연장선상에 내일의 일기가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의 행위는 그대로 그 다음의 단계를 결정한다. '역사에는 if가 없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은 현재의 상황을 결정했음으로 '만일 그때 …했더라면'하는 것은 한낱 넋두리에 불과하다. 인생도 역사와 같이 되먹임의 연속이다. 한편 과거(업)는 부정할 수 없었으나 현재를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있음으로, 결정론은 아니며 누구에게나 미래는 일정하지 않으며 복잡하게 전개되어 나간다.

필자는 원형론을 주장해 왔다. 태고(太古) 때 처음 사회가 형성되었을 당시의 모든 환경조건을 반영하여 사회(넓게는 민족)의 심성, 즉 원형이 형성된다. 일단 원형이 형성되면 다음은 그 원형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세대의 원형을 만들어 간다. 이 사실은 나무의 나이테에 빗대면 알기 쉽다. 나무를 절단하면 나이테가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정확한 기하학적인 원은 아니며 때로는 크거나 작고 부자연스러운 곡선일 때도 있다. 그러니 어떤 나무에도 처음에 만들어진 중심(核)이 있으며 다음 세대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큰 원을 그려간다. 우리는 조상의 원형(업)을 안고 새로운 업을 구축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기에 업과 현행(現行)의 관계와도 같다. 개인을 두고 말한다면 나는 부모의 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또한 나 자신이 업을 구축하면서 자식대에 그것을 넘긴다. 그런 뜻에서 원형론과 업사상은 같은 맥락에 있다.

민족사를 원형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원형사관이 있다.

가령 한국민족을 두고 생각한다면, 상징적으로 처음 단군이 이 나라를 건설할 때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단군 당시의 원형은 각 시대에 직·간적접으로 영향을 주어 왔다.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인의 과거의 조상들이 구축해 온 '업(원형)'의 기반 위에 오늘의 업을 꾸미며 다음 세대에 옮기는 것이다. 과거의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원형에 잠재되어 있는 성격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고루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세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미래를 개척해 간다.

원형은 절대 '선'도 '악'도 아니다. 원형은 장점일 수도 또한 단점일 수도 있다. 선악을 정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 행위가 정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이용하면 어떤 부분도 장점일 수 있고, 소극적으로 펴나가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는 것처럼 어느 민족에게도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윤리의식이 있다. 과거의 업을 안으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펼쳐 가는 일은 오늘을 살고 있는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그런 뜻에서 원형사관은 업사상을 기반에 둔 불교적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업사상을 잘못 생각하면 속된 말로 '모두가 전생의 업 때문에', '전생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기에 오늘이 괄자인가'라는 식의 퇴영적인 운명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진면목을 적극적인 삶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지시하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 넘겨줄 긍정적인 유산(업)을 구축할 책임을 지며 살고 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CARNIVORE

(길이 480mm, 높이 260mm, 폭 130mm, 중량 1.4kg)

카니보 2000 하나면

여름이 편안해진다.

모기 및 모든 해충으로부터 해~방!

⊙ 사찰에 꼭 필요한 상품으로 대만족 확신!
⊙ 방역, 소독 필요시 간편하게 사용가능
(어린이도 조작 가능)

농가, 축사, 여촌, 정원, 야외가든, 지하철, 병원, 화장실, 쓰레기장등 소독이 필요한 모든 곳의 전염성균예방

특별보급가 ₩178,000

※ 3회 분할가능
※ 각종 신용카드 장기분할가능

※ 현 금 가 : ₩140,000



· 해충퇴치기 〈안내표시등〉 ₩28,000
※ 별도 판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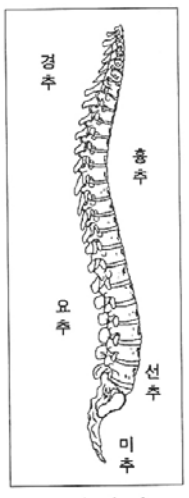
⊙ 연막소독기 구입시 해충퇴치기 무료 사은품 증정!

보급처: 한마음 ☎ 051)865-1182 하나하나빨리 ♣크로바서비스:080-007-1182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지부장모집

MBC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활법 6개월간 강좌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만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당뇨,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지부를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료자는 *수료증, 세계공인 활법사, 5단증, 사범자격증, 스포츠 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운동회복사 자격증*부여

의료선교사 · 물리치료사
침구사 · 대체의학연구자

▸교 육 내 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4. 카이로프락틱교육 (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혈도자극운동법

▸교 육 안 내

교육기간:5박6일(속성반), 3개월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업시작

준비물:
1. 교육비 및 회비2 사진 3×4:10매
3. 주민등본:1통4. 신청서 협회에 비치됨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 특허청등록원 제13235호 】

사회단체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71)55-6461, 859-4156, 011)522-1122

관음출판사

♠ 화제의 신간



哲學博士 曺誠佑 지음 / 값 15,000원

알기 쉬운 문답식

관상 수상학 강의

딱한번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는 성공 비지니스의 처세술과 운명학

「知彼知己는 百戰百勝」이란 말도 相對를 알아야만 勝者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相學이란 分野가 우리 生活과 얼마나 그 比重이 무거운가 하는 것은 再論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家庭에서는 賢處으로고 職場에서는 處世指針書로 같은이 등에게는 社會生活의 必須 參考書로 餘暇를 善用하여 探讀할만한 敎養書로 一讀을 勸奬하는 바입니다

- 周易通信大院長 梁哲俊



송월스님 著

사주학 핵심비결

지금 이때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이책을 펼쳐 보십시요.
당신의 미래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신국판/값20,000원



김백만 편저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 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A5신/양장본/35,000원



申 坪 지음

古典 풍수학 설심부

눈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 산천은 풍세(風勢)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기(大器)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길리지는 것이니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하였다.

값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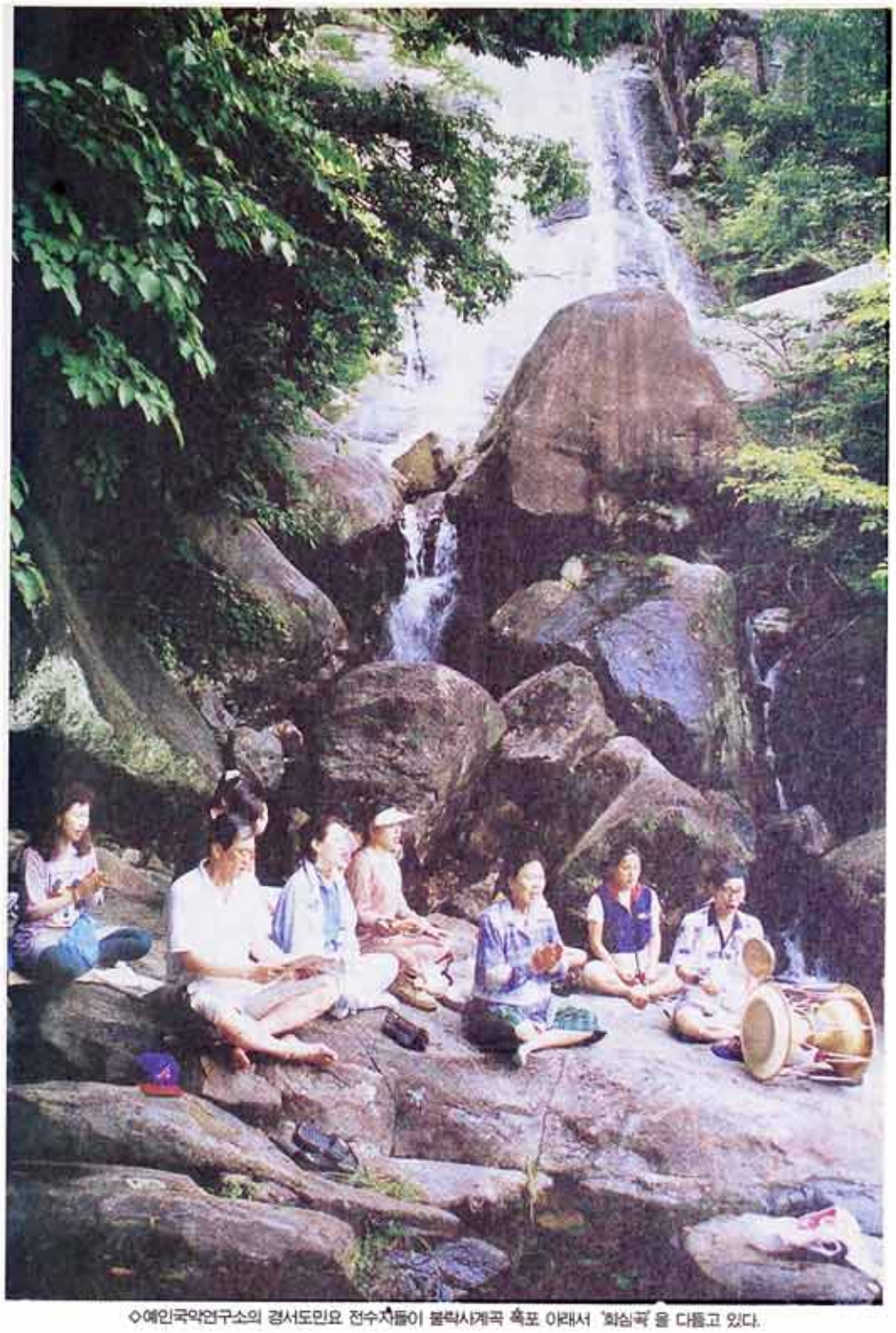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경기민요의 대가 故 안비취씨가 불교음악 발전을 염원하여 세운 3층석탑을 돌며 '탑돌이'를 부르는 예인국악연구소 전수생들. 이들은 해마다 여름 산공부를 위해 불락사를 찾는다.



◇예인국악연구소의 경서도민요 전수자들이 불락사계곡 폭포 아래서 '회심곡'을 다듬고 있다.

지리산 불락사 여름한철

국악인들 佛樂도량

초등생부터 칠순보살까지
해마다 2백여명 '산 공부'
신명나는 민요가락 울리고
북장단 · 가야금소리 '가득'
불교음악 발전 열띤 토론도

우당탕 퉁탕 계곡물 하염없는 피아골.

피아골의 중간 지점에서 우측으로 가파른 포장길을 타고 오르는 하악대(下岳臺)에 붙자 국악인들의 산공부 도량 불락사(佛樂寺)가 있다. 절 이름이 불교음악을 이루는 도량이란 뜻이어선가, 부처님 모신 큰법당의 이름마저 법고전(法鼓殿)이다. 시방세계에 둥둥둥 법고를 울려 중생의 무명번뇌를 씻어 주려는 발원이 역력한 이름이겠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2백여명의 국악인들이 불락(佛樂) 도량으로 산공부를 하러 온다. 국악고등학교 학생에서 원로들까지 이 도량으로 악기를 들고 찾아들어 열흘이고 보름이고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지리산의 정기를 가슴가득 받아들여 기량을 다진다.

"물건너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패가 떠났고 오늘 오후에는 경기민요 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지리산 만큼이나 넉넉한 웃음을 가진 사무장 보살이 가리키는 대로 물소리 요란한 개울 건너 산공부를 위해 따로 지어진 두채의 조립식 건물을 향했다.

두평 남짓의 방 열개로 이뤄진 아랫채에서는 소리꾼 말고도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가야금과 해금 주자들이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아니 임기자가 웬일로 이곳에…."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젊은 소리꾼 최진숙씨의 '보렴' 가락에 북장단을 메기다 말고 놀란 인사말을 보내는 이는 작곡가 김희경씨다. 채마밭 좁은 길을 따라 오른 윗채는 조용했다. 반쯤 열린 문 안에서는 박범훈교수(중앙대)가 온 몸이 빠져들도록 오선보를 들여다 보며 작곡에 몰두해 있었다. 박교수는 벌써 보름전부터 불락 도량에서 작업중이다. 논문을 쓰다가 한숨 쉬고 나면 작곡을 하고 '콩나물'을 그리다가 악상이 막히면 다시 논문을 쓰는 하루하루로 여름을 잊고 있었다.

"8월 14일 국립극장에서 공연될 건국50주년 기념 창극 '김구'를 작곡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해진 불교음악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지요. 한국의 불교음악 부분은 불교전래 이후 현대의 창작 찬불가까지 총체적인 역사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커다란 책상하나에 신디사이저 한대가 전부인 이 방안에서 박교수는 '보현행원송' '부모은중송' '이차돈의 하늘' 등 대작을 남았다.

불락사 도량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산뜻하게 조성된 3층석탑이다. 작년에 타계한 경기민요의 대가 안비취 여사가 국악과 불교음악의 창창한 발전을 염원하며 세운 탑이다. 탑 옆에는 안여사의 기념비가 섰는데 '아 비취하늘 고와라'를 제목으로 한 비문은 동국대 국정배교수가 지어 그 독특한 필체로 새겼다. 기념비에는 안여사의 유골이 안치됐다.

오후에는 박교수와 문하생들이 올 해 처음으로 산사 여름수련회를 개최한 쌍계사를 찾았다. 우리나라에 범패를 처음 들여온 진감국사의 체취가 서린 곳이자 차의 본고장인 쌍계사답게 '선(禪) 차(茶) 악(樂)'을 주제로 3박4일씩 두 차례 진행하는 수련회에 불락사에 공부하러 온 국악인이 강연과 연주를 하도록 배려해 주었던 것이다. 정진중인 60명의 수련생들은 유창하게 강연하는 박교수의 코끝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우리의 음악과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고달픈 민족의 역사를 지탱해 온 큰 힘이었고 앞으로도 그 힘은 더욱 대간을 키워 갈 것임을 장중한 관현악을 지휘하듯 강연을 하는데 어느새 80분이 흘렀다. 강연에 이어 최진숙씨가 판소리 '심청가' 중의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풀어 내는 동안내는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도 낙숫물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잠시의 외출에서 돌아 온 불락사에는 방금 경기민요 전수생 15명이 도착해 있었다. 중요무형문화재 57호인 12잡가를 안비취 여사로부터 사사 받은 최용숙씨와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인 선소리 산타령 이수자 백영춘 선생이 예인국악연구소 전수자들과 열흘간의 일정을 잡고 산사를 찾은 것이다. 안비취여사의 기념탑에 인사를 드리고 짐정리가 끝나자 곧바로 산공부가 시작됐다.

법당 아래서 '회심곡' 한 대목으로 목을 풀고는 시조도 토해 내고 경서도창의 대목들을 백영춘 선생의 장고 장단에 맞춰 화창하며 군데군데 잘 안되는 곳은 몇번이고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다. 빗소리를 타고 어둠이 내리는 줄도 모른 채 경기 12잡가 산타령 대목들을 토해내는 열정적인 연습에는 초등학생과 여고생에서 칠순을 바라다 보는 노보살이 함께 어루러져 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주지스님 방으로 모여 들었다. 박교수와 문하의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작곡가 김희경씨 등이 스님이 달여 내는 지리산 야생 우전차 향기에 묻혔다. 이야기의 주제는 놀라운 것이었다. 법인을 설립해 장기적인 계획 아래 책임있는 불교음악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 한다는 것이 그들의 숙원이었다. 법인을 통해 추스려 나갈 일들도 어느새 조목조목 챙겨 둔 것으로 봐서 올 가을이나 내년 봄쯤에는 불교음악 전문 법인이 하나 생겨 날 것 같았다.

한동안의 난상 토론이 이어지는데 상훈스님이 갑자기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다.

"어릴적 아버지께 배운 뒤로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악기도 낡았지만 한 가락 켜 보고 싶네요."

차향기에 취했는가, 방안의 모든 사람들이 국악인들인데 어찐 일로 바이올린이 등장 했는가, 파격이 아닐 수 없었고 그 파격은 아름다웠다. 원래 그들은 국악을 하되 서양음악을 배척하지 않고 서양음악을 받아 들이되 우리닷을 가미하는 대승적 가슴으로 예술의 길을 넓혀 가는 사람들이었기에 차향기를 배경으로 듣는 바이올린 '성불사' 한 곡의 맛은 일품이었다.

새날은 비가 개었다. 개울 건너 두채의 집에서는 다시 창작과 연습의 일상이 이어졌다. 작곡가는 오선보에, 연주자는 악기에 온 몸을 맡기고 벌이는 한바탕의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물론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자신이다.

민요 전수자들은 절 뒷길을 올라 폭포 아래에 자리를 잡고 향기로운 산공기를 단전까지 밀어 넣으며 한가락 한가락 연습에 몰두했다. 폭포소리에 노랫소리가 묻혔는가, 노랫소리에 폭포소리가 묻혔는가. 손장단을 맞춰가며 한 대목씩 이어지는 노랫소리도 기운차게 내리 쏟아지는 폭포소리도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불락사에 세워진 故 안비취씨의 기념비에는 안씨의 유골이 봉안돼 있다.



◇박범훈교수가 창극 '김구'의 작곡에 몰입해 있다.

인터뷰 불락사 주지 상훈스님

"불교음악은 민족가락 뿌리"



어릴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상훈스님은 불자국악인들에게 공부도량으로 절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악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 한달에 한차례 이상씩 서울과 부산 광주 등지에서 국악과 불교음악에 대한 강연도 한다. 91년 처음으로 창작된 불교 교성곡 '붓다' 공연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한 스님은 진감국사가 범패를 가르치던 쌍계사 국사암 주지를 하며 불교 음악 근본도량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창건한 사찰이 불락사다.

"불락사는 불교음악 발전을 위한 큰 염원을 가진 음악인들의 도량입니다. 음악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것, 다시말해 음악포교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불교음악 근본도량의 설립도 중요한 불사란 생각에서 창건된 것입니다. 음악인들의 산공부를 위해 절문을 열어 두고 있는데 여기서 대작이 작곡 되기도 하고 연주자들의 기량이 다져진다는 사실만으로도 미래 불교 음악의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스님은 불락사 소유의 땅 3천평을 불교음악 교육연수원 부지로 내 놓았다. 박범훈 교수와 문하생들이 법인을 설립하면 곧바로 연수원 건립 불사가 시작될 계획이다. 연수원에는 연습실과 공연장 세미나실과 법당등 기예와 신행을 함께 다지는 공간도 함께 마련 할 계획이다.

"불자 음악인들이 산공부를 할 좋은 장소가 없는한 불교음악의 발전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조선말기에는 사찰을 중심으로 사당패 문화가 형성됐었고 '영산회상곡' 등 아악들에 불교적 요소가 짙게 베어 있는 점은 불교야말로 우리 민족음악의 중요한 줄기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 속에서도 전법과 불교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는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음악이 발전돼야 합니다."

임연태 기자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니원품(泥洹品) ③

我已無往返 아이무왕반
不去而不來 불거이불래
不牧不復生 불목불부생
是際爲泥洹 시제위이원

나는 이미 감도 돌아옴도 없어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고 다시 태어나지도 않는다
이 경지가 열반이 된다

如是像無像 여시상무상
苦樂爲以解 고락위이해
所見不復恐 소견불부공
無言言無疑 무언언무의

이와같이 형상의 있고 없음과
괴로움과 즐거움을 모두 벗어나면
보는 것이 다시는 두렵지 않고
말 아닌 말 걸림이 없다

斷有之射箭 단유지사전
猗愚無所遺 구우무소의
是爲第一快 시위제일쾌
此道寂無上 차도적무상

畢故不造新 필고부조신
厭胎無婬行 염태무음행
種燋不復生 종초불부생
意盡如火滅 의진여화멸

옛 것을 마쳐 새 것 짓지 않고
탯집 싫거든 음행을 말라
씨앗 볶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
뜻이 다하면 불이 꺼진 것 같다

胞胎爲穢海 포태위예해
何爲樂婬行 하위락음행
雖上有善處 수상유선처
皆莫如泥洹 개막여이원

태에 드는 것은 더러움의 바다 된다
무엇하러 음행을 즐길건가
비록 저 하늘에 좋은 곳 있다해도
모두 열반만은 못하다

悉知一切斷 실지일체단
不復著世間 불부착세간
都棄如滅度 도기여멸도
衆道中斯勝 중도중사승

이 것을 다 알아 일체를 끊고
다시는 세간에 집착하지 않으며

자못 이로운 일 족히 믿을게 못되며
비록 이겼다해도 오히려 괴롭다

있다는 생각이 쏘아대는 화살(집착) 끊고
어리석은 견해에 기대지 않으면
이것이 제일 유쾌한 일이요
이 도는 위없이 고요하리라

受辱心如地 수욕심여지
行忍如門閾 행인여문역
淨如水無垢 정여수무구
生盡無彼受 생진무피수

욕됨을 당해도 마음은 대지같고
인욕의 행은 밟아도 말없는 문지방 같으며
맑기로는 물같아 때가 없으면
삶이 다하도록 그는 받는 게 없네

利勝不足恃 이승부족시
雖勝猶復苦 수승유부고
當自求法勝 당자구법승
已勝無所生 이승무소생

자못 이로운 일 족히 믿을 게 못되며
비록 이겼다해도 오히려 다시 괴롭다
마땅히 스스로 법의 승리를 구하여
그로써 이긴다면 더는 나지 않으리라

모두 버리기를 열반에 든 것처럼 하면
온갖 길 중에서 이 길이 제일이다.

佛以現諦法 불이현체법
智勇能奉持 지용능봉지
行淨無瑕穢 행정무가예
自知度世安 자지도세안

부처님께서 진리의 법 밝히셨다
지혜와 용기로 이를 받아 지녀서
행이 깨끗하고 더러움 빌리지 않으면
스스로 세상 건너는 것 알아 편안하리라

道務先遠欲 도무선원욕
早服佛教戒 조복불교계
滅惡極惡際 멸악극악제
易如鳥逝空 역여조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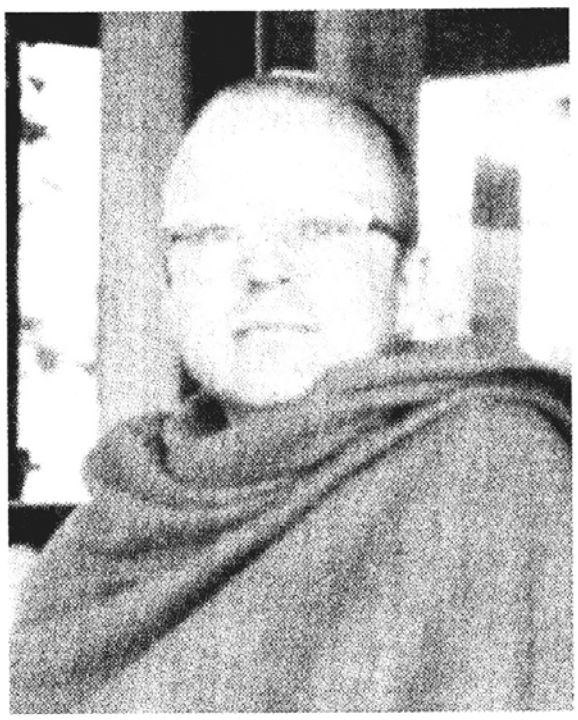
도에 힘써 먼저 욕심 멀리하고
일찍이 부처님의 가르침 계율에 머리조아려
악을 없애고 없애 그 끝에 이르면
새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쉬우리라

龍眼

여름특집 해외스님 특별 설법

"실패의 원인은 욕망에 있어요"

타니사로 스님 〈美 메타사원 원장〉



악 력

- 1942년 미국 캘리포니아 生
- 1966년 아잔 리 담마라로에서 수학, 두타행
- 1971년 캘리포니아 메타사원 개원
- 저서: 〈불교사원의 상징적 의미〉 〈깨달음의 날개〉 〈물과 같은 마음〉 〈아상은 부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본래 없는 것인가〉 〈선물의 경제학〉 〈공(空)〉 〈마음챙김과 집중의 길〉 등

"외부의 대상이 지배하면 오욕락의 노예 됩니다 탐진치에서 해방돼 평화·열반 체험 하세요"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사람은 가질 만하고 이룰 만한 가치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납득도 하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용기를 가지게 되고 환희에 넘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사물을 지배하고 그것들로부터 초연해지고, 어떠한 일도 지혜롭게 분명히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일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일을 언제나 완전하고 결점없이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항상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무엇인가 가지려 하고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못되고 일관되게 착하고 정직하고 정정당당하게 될 수 없습니다. 실패와 같은 경험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있다는 근본적인 원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물의 참본성을 알게되는 것이 모든 불자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들이 세속적인 이익, 부, 지위나 명예 혹은 내생에 천상에 나는 것과 같은 복이든 아니면 자유의 결실로써 초세속적인 열반을 바라든지, 그 어느 것에 관계없이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지혜와 통찰력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통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 말하기를 우리들은 다름아닌 지혜를 통해서 정화된다고 합니다. 일체 모든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가치있는 것은 지금까지 존재해 있지 않았고, 현재에도 없다는 분명한 자각과 통찰을 가지는 데에 자유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속적으로 상대적인 가치기준의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고 무엇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이고 저러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회에 있어서든 명성이나 직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상대적인 가치기준에 비추어서 '이러한 것이고 저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귀뚜라미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귀뚜라미의 얼굴이 먼지로 뒤덮힐 때 방향을 잃고 혼란하게 되어 죽을 때까지 서로 물고 뜯습니다. 우리 인간도 얼굴이 먼지로 뒤덮힐 때, 즉 모든 욕망과 미혹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너무 당황하거나 방향을 잃게 되어 정상적인 환경에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행위에 역행하게 되어 심지어 살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회 내에서 수단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상대적인 가치에 맹목적으로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몸과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참본성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그것의 무상·고·무아성을 알아야 하고 항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나 지위 그리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 등에 관해서는 "이것은 이러한 것에 속하고, 저것은 저러한 것에 속한다"고 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상대적인 가치로 간주합시다. 그 법칙은 우리가 소유권에 집착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나의 것'이라는 관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단순한 편의를 위해서 소유해야 하지, 그것들이 우리들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지혜를 분명하게 가질 때, 대상은 우리들의 하인 또는 노예가 되고 우리들이 그것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지배를 받기 보다는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생각이 욕망이나 집착의 길로 가서 이러한 것을 소유하고 저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을 의식하고, 이러한 관념에 굳게 매달린다면, 대상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삶을 재산, 명성, 부나 혹은 무엇이든지 소유하려는 투쟁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의 지배를 받아 오욕락의 하인이나 노예로 떨어질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 쉬우니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외부의 대상에 초연해야 하고 그것을 지배해야 합니다. 모든 욕망을 잠재워야 하듯이 우리들이 집착했던 것이 사라질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가장 초연한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각성과 깨달음은 오욕락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어리석음에 진절머리가 나게될 때 일어납니다. 각성이 자리잡게 되는 순간, 해방의 과정이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곽 묶인 밧줄이 풀어지듯이, 옷에 물들인 물감이 적당한 세제에 섞여서 빨 때에 씻겨져 나가듯이 정화됩니다. 집착이 자유로 전환되거나 세속이나 집착의 대상에서 이탈되어지는 과정을 부처님께서는 해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계는 완전한 자유를 향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정도까지 자유로워졌을 때,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는 보장됩니다.

일단 외형이나 감정, 그리고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다시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욕망, 성냄, 어리석음의 오염된 것으로부터 순수해지고 정화되어집니다. 이러한 실재적인 순수함은 일단 달성되기만 하면 혼돈, 투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평온과 초연함을 가져옵니다. 이와 같은 혼돈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부처님은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모든 경계에서 평화로움과 초연함을 유지하는 것이며 바로 현재 생활에서 일종의 열반을 체험하는 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열반은 단순히 세상의 조건성과 모든 사람의 불성을 발견함으로써 구속·고뇌·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 그리하여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물의 본성을 직시하는 지혜의 위대성을 인식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 지혜를 계발하기 위하여 정진해야 합니다. 그 한 방법으로써 우리들은 마음의 정화로부터 오는 기쁨을 참낮으로 계발하여 지혜가 저절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일어나고 마음은 지금까지 붙잡아 왔고 매달려 왔던 대상에 대한 모든 욕망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나' 혹은 '나의 것'으로 간주했던 대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은 사라집니다.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게진 아나운서가 우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10~10:00
13:25~14:15
22:00~22:50
매주 일요일
18:40~19: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게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벗고 나섰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놔보세요.
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어깨는 으쓱해진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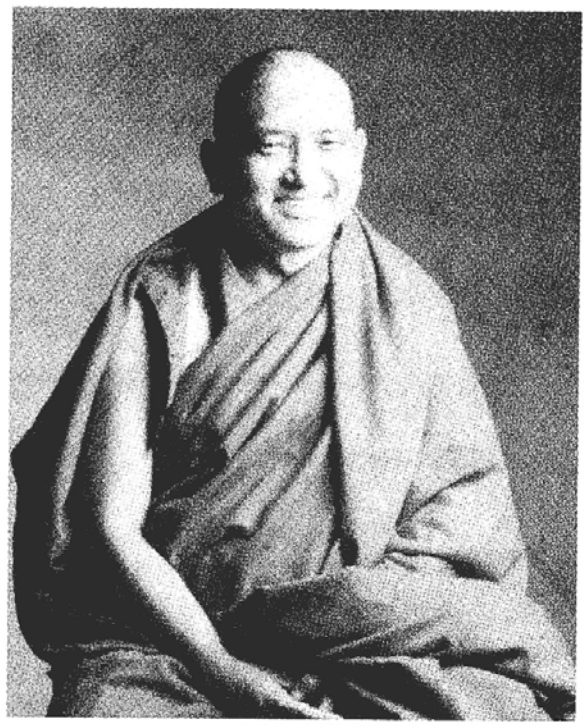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여름특집 해외스님 특별 설법

"지금 여기서 깨어남의 경험을"



조파 린포체 〈네팔 코판사원 원장〉

약력
- 1946년 네팔 솔루 쿰부 生
- 히말라야의 위대한 라마승 라우도 라마의 환생이라 여겨짐
- 1959년 인도 망명지에서 에쉐린포 체에게 수학
- 1970년 도미, 대승전통보존재단(FPMT) 설립, 현재 이사장.
- 저서: 〈의미있는 삶을 찾아서〉 〈명상의 목적〉 〈자유와 깨달음〉 〈법륜의 힘〉 등

"수행이 깊어감에 따라 나와 너 차별 사라지고 집착은 고요로 변하고 진리를 보게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설법을 듣는 사람들은 불교와 자신들의 일상생활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세간의 삶에는 본래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곤혹스런 관계, 금전적 궁색,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주변 여건 등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은 스스로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기때문입니다.

올바른 서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상은 올바른 서원을 통해 일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올바른 심성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자비를 타인에게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실천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행히도 기교적인 가르침만을 배울 뿐 불교와 일상과의 상호 관계를 설정하지 못합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입니다. 물질적·기술적 발전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한 유명한 불교선사가 "수행이란 길을 따라서 걷는다는 것은 자신을 올바른 방향에 두는 것을 의미하지, 얼마나 많은 나날이 혹은 사건이 지나갔는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걷는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주의깊고 완전히 현재에 있으면 탐욕과 증오, 혼혹으로부터 자유로운 매 순간이 자유의 순간이며 마지막 자유에로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수행은 최소한 일상을 건 작업입니다.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상대적 견해는 매우 유용합니다. 집착과 고통, 미혹이 있는 한, 알아차리고 마음 집중하여 현재에 깨어 있으려는 노력은 어떤 가르침이나 수행 방법을 취하든 필요합니다.

정신의 발달을 위한 수행에는 기복의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의 기복을 가집니다. 순간순간, 공하고 순간순간 우울하고 고양되며 통찰력 있고 순간순간 미혹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에 따라 기복을 느끼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의 명상이나 일상 활동이 매우 정확하며 평온하기도 합니다. 달에 따라 혹은 해에 따라 기복이 있기도 하여, 수행이 깊어지거나 혹은 몇달 동안 고통과 절망의 세계에서 어두운 면만을 보며 크나큰 우울에 잠겨 지내기도 합니다.

달이나 해에 따른 기복에서도 오래 견디는 굉정심으로 무상의 물결이 지나가게 하여 수행의 과정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물들이 그 자체대로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선입견 없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마음의 이런 성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물을 절대의 수준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 현실에서 볼것인가 하는 문제로 되돌아 가야 합니다. 가르침이나 수행상 시간의 경과에 의해 지혜의 순간이 자주 나타나면 명상과 통찰이 깊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와 같이 상대적 수준에서, 수행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보합니다. 사실상 절대의 수준에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개념에 불과하므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단지 현재의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시간과 수행이란 단어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상대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 방식입니다. 절대적 이해로 우리는 순간에 완전히 다가설 수 있고 수행은 완성됩니다. 진보는 없고 단지 지금 여기의 존재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시간을 얘기할 때 혹은 자아를 이야기 할 때는 '자아 혹은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는 이들 용어를 그대들이 존재의 본성을 직접 감지할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해 상대적 의미에서 사용한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으면 '현재'를 견딜수 있는 자질이 생깁니다. 자비심은 이 자리로부터 유래합니다. 고통의 끝인 지혜의 계발은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존재의 고통의 소멸을 위한 것임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기심이 완전히 사라지면 더 이상 탐욕 증오 무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나' '너' '그들'이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무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명상을 해야합니다. 만약 지적 사유만을 한다면 우리의 머리는 터지고 말것입니다. 일단 가슴으로 무아를 바로 보게 되면 삶의 부담이 덜어질 것입니다. 이 너와 나의 분리가 없을 때 지혜는 저절로 사랑과 친절 자비로 나타납니다. 행동에 자기가 없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익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지혜의 상태로 부처님 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커져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보살의 서원은 특정한 사람이 모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수행이 깊어감에 따라 자신과 다른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 사라지고, 지혜의 본질적 부분으로 존재하는 우주적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법, 즉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모든 수행법은 이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조용히 자각하여 마음을 살펴본다면, 모든 집착 사고 관념과 개념이 사라져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때 남는 것을 현재에 존재함, 단지 그것뿐입니다. 이 경험은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전통에 따라 수행한다 해도 같습니다. 이 마음의 고요는 공(空), 열반, 혹은 마하무드라 혹은 다른 용어로 지칭되지만 이 마음의 고요가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고침 지난호(184호) 12면 서용스님 그룹인터뷰중 "돈오점수는 지혜로 해결…"을 "돈오점수는 지해(知解)로 해결…"로 바로잡습니다.

나와 경전

64·끝

아육왕경



박 경 훈
역경위원

10권으로 되어 있는 〈아육왕경〉은 그 경명으로써 알 수 있듯이 아육왕에 관한 기록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경과 내용이 같은 또 다른 한역은 전기(傳記)임을 드러내어 '아육왕전'이라고 하였다. 경의 내용이나 성격으로 보아서 후자가 타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굳이 경이라고 한 것은 한역하는 중국의 역경자가 아육왕의 불교적 치적을 높이 산 때문이다.

〈아육왕경〉은 아육왕과 함께 아육왕의 친족에 관해서 설하고 있고 부처님으로부터 불법을 전승한 부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도 설하고 있다.

내가 이 경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육왕에 관한 내용이다. 기원전 268년에서 232년까지 인도에 통일된 왕국을 세우고 다스린 아육왕의 생애는 그로부터 2천1백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육왕경〉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현세적인 이상을 실천하는 제왕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우선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인류사를 집권을 위한 살륙의 역사라고 단정하는 사가(史家)가 있다. 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만이 아니고 지금도 지구상에서 권력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살륙을 목격하고 있다. 집권을 위해서 무참한 살륙을 자행한 대표적 인물이 바로 아육왕이다. 그러한 그가 신성한 경전의 주인공이 된 거기에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고뇌와 영광이 얽혀 있다. 그는 부왕이 죽은 뒤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오른다. 그리고 권좌에 오른 다음에는 전 왕조에 봉사한 신하 5백명과 시녀 5백명을 직접 목을 잘라 죽음의 숙청을 한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옥에 갇힌 인민을 무차별하게 죽였다. 그의 그러한 정치를 두고 그때 사람들이 "왕은 살생으로써 인민을 다스리고자 한다"하고 그를 '공포의 육왕'이라고 불렀다.

그의 법어 이름 '아쇼카'가 '무우(無憂)' 즉 '근심이 없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인민에게 공포의 왕이 된 것은 참으로 기괴한 운명이라고 할 것이다. 뒤에 그가 참회하고 불교에 귀의하여 '하늘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보기를 기뻐한다'는 뜻으로 '천애희견왕(天愛喜見王)'이라고 자칭한 것은 또 다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경에 의하면 아육왕이 참회하고 불교에 귀의하여 8만4천의 탑을 세우고 불법에 의한 정치를 하고 경전을 결집하는 등 불교를 널리 펴게 된 것은 그 살륙의 시기에 감옥에 갇힌 한 비구의 교화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그가 직접 새긴 마애법칙(磨崖法勅)은 다른 상황을 전하고 있다.

아육왕은 즉위한지 8년째 되는 해, 벵골만에 위치한 카링가왕국을 침략한다. 이 전투는 아육왕에 의한 인도 통일의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는 이 전쟁에서 10만 이상의 사람이 죽고 15만명이 노예로 끌려가는 참상을 목격한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힘의 정치'로 부터 '다르마(法)의 정치'에로 전환을 한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 다르마를 정치이념으로 삼고 그것을 보편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여 살생과 상해를 금하였다. 또 자비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윤리를 수립하였으며 자제(自制)와 유화(宥和)와 보은과 종교적 신앙생활을 권장하였다.

특히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을 엄금하였다. 그는 불교를 옹호하고 원조하였을 뿐 아니라 자이나교 등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원조하였다. 그는 세금을 줄이고 빈민을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보시의 집'을 짓고 인간과 동물을 위한 병원을 지었다. 변방의 이민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원전 3세기의 절대군주가 이같이 '다르마의 정치'를 편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그가 실존인물이고 결코 전륜성왕일수 없음에도 그의 영웅적, 군주상은 전해오는 인도의 전설에 따라서 전륜성왕으로 이상화되어 또다른 전설을 낳았다. 그 전설은 〈아육왕경〉에 수용되고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도 수용되었다.

BC 3세기 힘으로 다스린 인도 아육왕
불교 귀의후 '다르마의 정치'로 전환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불 로 화 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의 신선(神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자 소나무임업장주(業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일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

"108배 했더니 새사람 된 것 같아요"



◇찬불동요 '탑'을 부르며 율동을 보여준 1학년 어린이들의 장기자랑 모습은 그대로 천진동자이다.



◇선생님이랑 스님이랑 함께 어울린 공동체놀이에 어린이들은 즐겁기만 하다.



◇도명스님(청량사)의 지도로 참선삼매에 빠져든 모습은 영락없는 문수동자이다.



◇식판발우공양 시간이 매우 엄숙하다. 마치 출가수행자가 된듯.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어린이들이 내일의 꿈을 그렸다.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장'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하고 선재이벤트(실장 이성훈)가 주관한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가 7월23일~25일 신륵사, 목아불교박물관, 경수사, 백령사, 에버랜드 등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2백50여명의 어린이들은 우리 전통문화를 관찰하고 108배, 참선, 발우공양 등을 체험하는 등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편집자 주〉

"우리 문화는 뿌리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우리 문화는 뿌리이다."

"우리 문화는 뿌리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듯이 우리 문화를 잘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캠프에 가서 우리 문화에 대해 잘 배우고 오세요."

입재식에서 덕신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의 격려를 간직한채 새싹불자들은 7월23일 오전11시 조계사를 떠나 불교나라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로 출발했다.

불교나라의 첫 관문은 여주 신륵사(주지 세영스님).

극락보전 앞에 정렬해 아빠다리(가부좌)를 하고 앉은 어린이들은 세영스님의 공부잘하는 법에 대한 설법에 더위도 잊고 귀를 통긋 모은다. 순간적으로 감렬해진 햇빛에 까치조차 그늘로 숨어버린 신륵사 경내에 스님의 법문만이 풍경소리와 어울려 울려퍼진다. 어린이들은 아미타삼존불을 모신 극락보전, 나옹선사 부도 및 석등, 지장보살을 모신 명부전, 지공·나옹·무학대사의 영정을 모신 조사당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신륵사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공부했다. 열심히 배치도까지 그려가며 필기를 하는 어린이들은 이미 어려운 불교의 벽을 허물기 시작하고 있었다.

"부·다·피·아 어린이-."

"네·네·넷넷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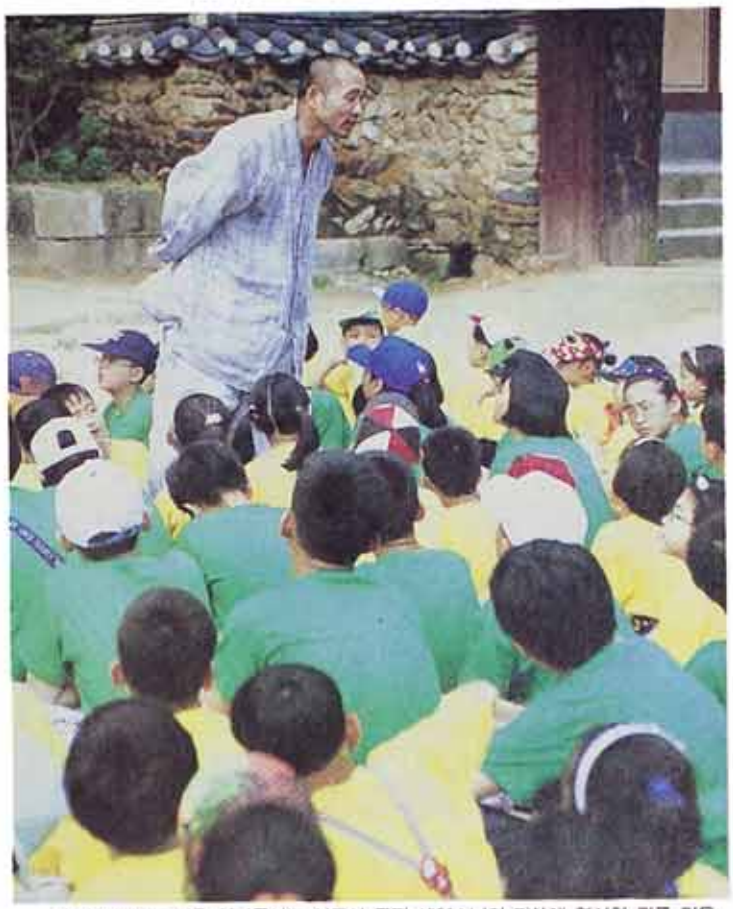
힘찬 대답을 뒤로 하며 목아불교박물관을 찾아갔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갖가지 불보살삼들을 둘러보며 어느사 다양한 부처님의 모습에 젖어드는 아이들. 목아박물관에서의 아쉬운 한 때를 접으며 첫방을 보낼 숙소로 향했다.

용인 백령사(주지 일원)에 묵은 규치반을 비롯한 저학년들은 주지스님의 지도로 참선의 묘미를 맛보았다. 짧은 다리로 가부좌는 어려웠지만 어깨를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한 모습이 영락없는 문수동자 그대로이다.

50년의 짧은 역사지만 부처님의 방광현상이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용인 경수사(주지 관엽)에서는 고학년들이 108배를 하며 참회정진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숙소에는 꿈나라를 헤맬 시간인 새벽 6시. 어린이들은 모두 일어나 아침공양을 하고 찬불동요와 율동을 배웠다.

드디어 놀이동산으로 가는 시간. 에버랜드에 들어선 아이들은 즐겁게 놀이기구도 타고 시네마 뮤지컬도 감상했다. 에버랜드에서의 아쉬움을 접어둔채 숙소에 들었다. 수련원에 도착한 아이들은 저녁예불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도명스님(청량사)의 지도로 10분동안 참선을 했다.



◇공부 잘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신륵사 주지 세영스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새싹불자들.

새싹불자 2백50명 '심신수련'

첫째날 신륵사 역사공부 · 108배 정진

둘째날 찬불가 경연 · 에버랜드 구경

셋째날 수영놀이 · 아미타전시회 관람

이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캠프의 하이라이트 캠프 파이어 '불보살, 폭죽거사와 이밤을' 시간. 영화 '알라딘'의 주제곡이 은은히 흐르는 가운데 장작에 불이 붙는 순간 '펑펑 따따따…' 30여발 폭죽의 오색불꽃이 밤하늘을 휘황찬란하게 수놓았다. 캠프 파이어에서는 교사와 어린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 찬불동요와 율동을 하며 마지막 밤의 아쉬움을 달랬다. 특히 불같이 사그러들 무렵 모닥불을 중심으로 빙 둘러 서서 한사람 한사람 손을 내밀어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우정 악수'를 나눈 시간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셋째날, 아이들은 온통 수영장 생각으로 눈을 떴다. 캐리비안베이에 도착한 어린이들은 일제히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파도에 몸을 실었다.

불교나라의 마지막 관문은 호암미술관에서의 아미타전 관람. 아미타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소곳이 합장도 해본다. 이어 미술관옆 전통정원 회원에서 각 학년별로 우수참가자 시상식과 함께 캠프 회향식을 가졌다.

2박3일의 빽빽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오랜만에 단잠에 빠져든 새싹불자들의 얼굴은 마치 꿈 속에서 문수동자와 놀고 있는 듯 고운 미소를 담고 있었다.

글=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인상에 남아요

○… 우리집은 제천인데 스님이 보내주셔서 민지랑 같이 캠프에 왔어요. 이번엔 많이 울어서 우리 스님이 오셨지만 내년에는 울지 않고 많이 배울께요.
〈이민규 · 제천 남천초등 1〉

○… 캠프파이어 때 언니 오빠랑 '우회악수'를 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주연화 · 의정부 호암초등 2〉

○… 용기를 가지고 힘을 쓰면 어려운 것은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보세요.
〈김이수 · 서울 연촌초등 2〉

○… 캠프에 와서 좋았어요. 밥도 맛있었고 캠프 파이어도 재미있었어요.
〈최슬기 · 포천 내촌초등 2〉

○… 캠프에 와서 기뻤습니다. 예쁜 선생님들과 춤을 추니 스트레스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오고 싶어요.
〈홍이경 · 부천 상동초등 3〉

○… 우리 모두 부처님이 되어 내년에 만났으면 해요.
〈박정은 · 안양 덕현초등 3〉

○… 오늘 불꽃놀이를 할 땐 나도 저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허감원 · 광명 안서초등 3〉

○… 참선을 했는데 좋은 경험이었어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겠어요.
〈하법정 · 서울 재동초등 3〉

○… 부처님 길을 걸을 때는 부처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어떤가를 알고 이런 것을 잘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처님은 위대하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평생동안 잊지 않겠어요.
〈주현우 · 고양 화정초등 3〉

○… 내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손연석 · 서울 중평초등 4〉

○… 우리를 밥이 아니라 풀만 먹여놓고 일만 시켰어요. 다음에 올 땐 맛있는 밥 해주세요.
〈손선민 · 서울 차현초등 4〉

"협동정신 배우고 자신감 생겼어요"



◇경수사에서 108참회하는 어린이들 모습.

○… 밥 좀 맛있게 해주세요. 너무 군기잡는 것 같아요.
〈남은지 · 서울 중원초등 4〉

○… 공양에서 풀을 많이 먹은 게 좋았어요. 채식을 하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공양에서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주는 것은 나빠요. 자기가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배탈이 나기 때문입니다.
〈권진아 · 서울 대동초등 4〉

○… 나는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부모님께서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왔어요.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니 재미있었어요. 2회 부다피아 캠프에는 동생과 함께 올거예요.
〈이정환 · 수원 정천초등 5〉

○… 절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남김없이 다 먹어야돼 좀 힘들었어요.
〈고창순 · 수원 원천초등 5〉

○… 나같은 성격에 과연 캠프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어요. 예전 캠프 때에는 매우 늦게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제 캠프를 열심히 하고 보니 달라졌어요.
〈이승주 · 고양 가람초등 5〉

○… 캠프를 통해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웠고, 중요성과 필요성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 절을 들리면서 전설과 불교이야기를 들은 것이 재미있었어요. 계속 절에 다녀서 불교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요.
〈조성일 · 수원 원천초등 5〉

○… 밥을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먹지 못해 엄마 아빠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부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 기뻤어요.
〈홍애진 · 파주 용연초등 5〉

○… 캠프에서 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에 가면 엄마한테 2박3일 동안 배운 것을 다 이야기해 드려야지.
〈윤은비 · 의정부 동오초등 5〉

○… 108번 절을 한 것이 제일 좋았어요. 나중에도 108배를 해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어요.
〈김지양 · 서울 마포초등 6〉

○… 기합을 받을 때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웠습니다.
〈차윤하 · 서울 홍은초등 6〉

○… 절에서 108배를 한 것이 정말 재미있었고(죄를 씻어내서) 초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캠프라 더욱 즐거웠고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요.
〈이해승 · 서울 서교초등 6〉

■美 캘리포니아서 온 신루비양

"미움 없애는 108배에 매료"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요. 한국에 사시는 이모가 신청해 주셔서 이번 캠프에 참가하게 됐어요. 캠프에서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108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께서 힘든 일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미울 때 108배를 하면 그 마음이 없어질거라고 하셨어요.

친구 중에 미운애가 생겨서 108배를 또 했어요. 108배를 했더니 미운 감정도 많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미국에 가서도 108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도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기독교신자로 참가한 권여정양

"불교도 정말 좋은 종교네요"



저는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불교는 절대로 믿으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캠프에 참가해보니 '불교도 정말 좋은 종교구나'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부처님, 훌륭하고도 재미있으신 여러 스님들, 모두 다 기억에 남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수사에서 해본 108배를 '내가 잘못했구나' 느낄 때마다 집에서 할거예요. 108배를 해보니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를 후원 · 협찬해주신 사찰과 단체 그리고 동참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협찬: 대한불교진각종 · 도선사 · 불교조각원 · (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 현대프로덕션



◇목아불교박물관에 전시된 불 · 보살상 앞에서 합장을 하며 참회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다.



◇캐리비안베이 파도풀장에서 친구들과 물놀이에 여념이 없는 어린이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악업 무너뜨리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

염불과 마음공부 다른점

문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으레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귀의하는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수많은 제불보살 가운데 특히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 귀의해 온 데는 어떠한 까닭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은 마음 공부와 무엇이 다른지요. 좀 자세히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우리가 매사 생활해 나가는 데에 내 한마음에서 여러 가지의 마음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미타라는 이름은 정신세계를 말하고, 관세음은 현상세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름일 뿐이지 과거 정신세계나 현실세계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정신과 몸이 어디 둘입니까? 항상 얘기했듯이 장갑을 낀 손이 어떻게 장갑 낀 것과 둘이겠습니까? 장갑을 끼었으면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속에 아미타불도 들어 있고 관세음보살도 들어 있으니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아미타불의 행과 관세음보살의 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둘이 아니게 이 모두가 하나하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까닭에 일체가 다 가설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연줄에 의해서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는 가설 말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이 없다고들 말하죠.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고 넓은 것이 있으면 좁은 것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미타나 관세음보살이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아미타가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바깥으로 찾으며 끄달린다면 그건 공부하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공덕이 하나도 없고 이익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르치는 도리는 참나를 발견해서 깨달아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나투는 방법까지도 체득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세음보살 따로 있고 아미타불이 따로 있다고 바깥으로 끄달린다면 아니되겠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때에 따라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들이 되고, 형이 되며, 때에 따라서는 사위가 되고 그러는데, 어떤 위치가 되었을 때 관세음이라 하고, 어떤 위치가 되었을 때 아미타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일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내 마음 아닌 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터득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 아닌 내 마음을 모르고서야 어찌 터득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정신세계를 간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림 · 최주현

> "마음은 체없어 우주 밖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마음에 갇힌 마음 벗어나야만 나를 굴릴 수 있죠"

천도하면 윤회 벗어납니까

문 사람의 육신이 떨어지면 더 이상 공부하기가 어렵고, 대개의 경우는 몸 떨어질 때의 의식수준에 따라 윤회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몸 떨어지고 없는 조상의 천도식이란 무엇이며, 그 천도식에 조상들께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답 사람이 살면서 악업을 지으면 악업의 보가 생기고 선업을 지으면 선업의 보가 생기는 법, 다시 말해서 콩심은 데 콩 나고 팥심은 데 팥 난다는 소리죠. 그러는 법이 연결되는 반면에 이 세상에서 몸 떨어지면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의 차원대로 죽어서도 일차원이면 일차원대로 있고 이차원이면 이차원대로 있어요.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물질로 한 물건이 나온다면 수만 가지로 부딪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딪침에 의해서 굴러가는 수레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지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한 바와 같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세상을 살아 나가는 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부드럽게 하며,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선의 보를 받을 것이고, 악하게 남을 증오하고 원망하며 이간질해서 싸움이나 붙이고 사기나 일삼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악의 업보를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몸 떨어지면 그 상태로 남는 것이죠.

그대로 업보에 의해서 마음 컴퓨터에 스스로 입력이 되었다가 다음에 하나하나 슬슬 나오게 되니 그것이 바로 악업과 선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그 차원대로 있기 때문에 선업을 지은 사람은 선업으로 진행될 것이고, 악업을 지은 사람은 죽어서도 자기 몸뚱이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몸 속에 있던 모습대로 다 나와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이 가로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악업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천도가 생긴 것입니다. 차원에 따라서 강을 건너려 해도 자기 몸이 있는 줄 알고 빠져 죽을까봐 못 건너가며, 체가 없다는 걸 자기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상대도 체가 있는 걸로 알고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죠. 허상이냥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대로 끄달리고 한 발짝도 못 건너가기 때문에, 아니 설사 건너갔다 하더라도 타 죽을까봐 불바퀴를 못 건너가기 때문에 천도가 생긴 것이며 눈 뜬 사람이 눈 감은 장님을 이끌어 가는 도리가 있으므로 천도의가 생긴 것입니다.

공부중 특이한 경험 오는 이유

문 저희가 공부해 가는 도중에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갖가지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이한 정신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말하자면 공부가 익어서 그런 것인지, 혹은 아직 덜 익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경험이 자주 없는 경우는 그 무엇으로 자신의 공부가 익어가는 줄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답 그것은 아까도 요약해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을 봤다고 해도 놓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 정신세계의 특이한 경험을 했다 하여도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내 마음 속에서 빚어내는, 즉 말하자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내 몸 속에 잔뜩 들어있는 악업·선업의 의식자체가 모습으로 화해서 나오는 것이니, 다시 거기에다 맡겨놔야만 공부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땅에서 엎어지면 엎어질 때마다 땅을 딛고 일어나려고 해야 일어나지지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것을 일러 말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대로 거기에 맡겨놔야 하고, 또는 그러한 경계가 다가오면 오는대로 거기에서 수없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거기에다 다시 되놔야 하는 것입니다. '만심이 천심이요, 천심이 일심'이란 얘기가 있듯이 일심에서 만 가지 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심에다 다시 놓고 일심 아닌 일심을 참구해야 합니다.

통밖서 통을 굴린다는 뜻

문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중에 통 밖에 나와야 통을 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량적으로 그 말씀은 이치에 맞습니다만 실참의 경우에서 어떠한 경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 중에 통이란 무엇이고 통 밖은 무엇이며, 또 굴린다고 할 때의 굴려지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답 통이라 하는 것은 마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통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줬다고 하며 나라는 것을 세우고, 아집으로 억눌려 있는 사람을 통 속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주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넓게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벗어나야만이 나를 굴릴 수가 있지,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나를 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갇혀 있는데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벗어나는 길도 아니요, 벗어나지 않는 길도 아니니 그럼 진짜 어떻게 하는 게 벗어나는 길인가요?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시고 마음 속에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굴림이며 마음 속에서 마음내기 이전 마음을 깨달아야 물리가 터지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속의 참 마음을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그 때에 진짜 공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신세계의 나와 물질세계의 나가 둘이 아니게 상응상조하면서 작용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마음내기 이전 마음 깨달아야 물리터져

예수님도 불치병 고친다는데

문 현대의학으로도 나을 수 없는 병들을 한마음 도리로 낫는다고 하는데 스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주인공이 낫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 현대의학으로는 낫게 할 수 없는 암이나 백혈병, 또는 다른 기타의 병들을 낫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우리 마음에서 찾는 주인공이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낫게 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낫게 해준다고 하는데, 스님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항상 그렇게만 한다면 밖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요? 낫게 해달라고 항상 빌어야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들, 세세생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은 체가 없어서 너와 내가 말을 할 때 벌써 전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이, 전자와 전자가 한 데 합쳐지는 순간이죠.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합쳐지는 순간에 어느 한쪽에 네가 불을 들어오게 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불을 들어오게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말을 하는 순간에 이 마음과 마음은 전기와 같이 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누가 낫게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마음 내 마음이 둘이 아닌 데서 불이 번쩍 켜진건데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낫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한 열매가 열리고 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었더라면 상대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은 자기가 낫게 한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악업의 보도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이요, 선보도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이니 무너뜨리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지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때리든지 안 때리든지, 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하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79)

딱다구리가 나무에 구멍을 뚫듯이 그렇게….

"내 속에서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할 인과로서의 업이 자꾸 나오는데 나오는 대로 놓고 놓아서 놓는 것마저도 없다 할 때까지 놓아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게 공했다더라' 하면서 놓으면 그냥 공으로 빠져 몰아지지를 않는다. 그러기에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닌데서 주인공 하나를 세워 놓고 전부를 주인공으로 몰고 들어가라고 한 것이다. 빠져나갈 틈이 없이 몰고 들어가는 게 몰락 놓는 것이다. 그렇게 몰다 보면 마치 젖을 쥐어짜서 유선이 터지게 하듯이 답답해져서 빠져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는 쑥 빠지고 모는 그것만 남게 몰아부쳐라. 그렇게 몰다보면 참나가 나온다."

바퀴가 구르려면 중심축이 잡혀 있어야 한다. 맷돌도 정중앙에 심봉이 딱 꽂혀 있어야 곡식을 갈아낼 수 있다.

닥아오는 일체 경계를 방하착 하라니까 그냥 '무라, 무라'.하고 만다면 심봉이 내 안에 중심을 하나 딱 세워 놓고 일체 경계를 그리로 몰아 놓고 들어가야 한다. '주인공! 네몫이잖아.' 하며 '나'라는 주체의식을 포기하고 일체를 거기에 맡길 때 비로소 방하착은 시작된다.

놓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고 머리를 굴리려 한다면 그건 방하착이 아니라 사량 분별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 소득이 없다.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 하는 꼴이라 끝내 물 맛을 볼 수 없게 된다.

이왕 놓고 갈 양이면 사량 분별까지도 놓고 가야 한다. 이게 맞나 저게 옳나하는 그것까지도 주인공 몫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 그래야 작은 의정이 큰 의정이 되고 큰 의정이 나를 압도하면서 마침내 물꼬가 터지는 계기를 맞게 된다.

화살을 쏠 때 과녁의 정중앙을 꿰뚫기까지 많은 연습을 해야 하듯이 놓고 가는데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냥 다 놓고 산다는 다짐만으론 어림도 없다. 찰나찰나 닥아오는 안팎의 경계에서 즉각적으로 주인공! 할 수 있어야 활 쏘기가 제대로 되기 시작한다. 마침내 정중앙을 관통하기까지 거듭 거듭 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깥 경계에 끄달리며 살아왔다. 보는 것 듣는 것, 접촉하는 일체 경계마다 사량하고 분별하면서 희노애락의 잔치를 벌여온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긴다면 오욕칠정의 주체인 '나'가 발 붙일 곳을 잃게 되기 때문에 마음은 점차 평안해지고 번뇌의 물결은 잦아들게 된다.

자꾸 밖으로 향하려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 놓는 'U턴' 작업을 해 보자. '주인공, 너 만이 할 수 있어!'라든가 '주인공, 네 몫이니 네가 해결해!' 하면서…. 그러면 '나'는 절로 빠지게 된다. '나'가 빠져야 진정으로 '놓고 맡김'이 이뤄진다.

딱다구리가 나무 속에 박힌 벌레를 파먹을 때 어떻게 하던가? 주둥이로 한 자리를 계속 쪼아 마침내 구멍을 내고 벌레를 파 먹게 된다.

놓고 간다는 것도 그와 같다. 내 속 깊은 곳에 참나가 있다는 생각에서 딱다구리가 나무를 쪼듯이 계속 쪼아대야 한다. '어디 주인공이 있다면 모습을 드러내라' 또는 '참 나가 있다는데 얼굴 좀 보자' 하는 식으로 몰고 들어가야 한다. 놓고 맡김은 결국 참 나를 발견키 위함이니 그 길 말고는 달리 묘책이 없지 않겠는가.

몰고 들어 갈 때는 사무치는 마음이어야 한다. 건성이어서도 안되고 뜨뜬 미지근해서도 안된다. 돌에 피가 배일 정도로 사무쳐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아서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그리워해야 한다.

툭 툭 건드려 보는 정도로는 구멍을 낼 수 없다. 젖먹던 힘까지 다 기울여서 몰아쳐야만 반응이 온다.

놓고 가는데도 맛을 볼 수 없다는 의심이 들거든 그것까지도 밀어 넣어라.

나오는 족족, 닥아오는 족족, 놓고 또 놓을 때 어느날 소식이 온다. 물꼬가 터 생수가 샘솟듯 용출하게 된다.

협 찬 : 이 진 승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시공 초월해 돌아가니 業 붙을 곳 없어

☞ 15면에서 계속

는 것이 자비인 겁니다. 거기에 이유가 붙어서 사랑을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유가 붙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업보가 붙을 자리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병이 붙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자체가 없는데 병 붙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그 자체는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그걸 비유하면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 먼지 앉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는 걸 몰라서 생각을 안하고 그냥 사니까 그렇지, 이 법상 하나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계도 한마음 될 수 있나요

문 스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이 법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제 동생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회사에서 작업을 하는데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났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기계를 사용하면 고장이 나지 않는데 다시 동생이 사용하면 얼마 안가서 또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바와 같이 모든 것을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아라. 그런데 네가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기계가 작업을 한 것이다. 항상 기계에게 고마움을 갖고 작업을 해라. 네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기계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항상 네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계가 했다고 생각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기계와 나도 똑같이 한마음으로 일체가 되는 것입니까?

답 그렇죠. 어느 것 하나도 이심전심으로 말 안들고 말 안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상징으로 모시고 있다 해도 이 자리에 앉았을 땐 부처님으로 모두 한 데 합쳐지고, 때에 따라선 나한테로 합쳐집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로 하나가 되고, 아들한테 오면 아들로 하나가 되는데, 이러한 도리는 무슨 까닭인고 하고 물었다고 하듯이, 내 마음을 전부 기계로 합쳐주면 나도 기계가 될 것이고, 기계를 내 마음으로 한데 합쳐 둘이 아니라고 볼 때는 둘이 아닌 까닭에 무난히 작업이 잘 될 것입니다. 이리 가도 하나요, 저리 가도 하나이니까요. 이 도리를 알게 되면 이리 가도 나요, 저리 가도 나이니 내가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환자보면 같이 아픔 느껴져

문 저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사는데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마음으로, 손님들을 치료할 때 제가 한다는 생각없이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어디 아프다고 얘기하기 전에 제 자신이 먼저 그 아픔을 느낍니다. 또 손님들이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 자신도 모르게 손님들의 근심 걱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그와 똑같은 원리에 속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의 아픈 것을 나한테 넣고, 넣는다는 생각도 없이 그것도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하고 뜻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어머니와 마찰 심해요

문 이건 제 가정의 문제인데 어머니와 저는 항상 마찰이 많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에게 제 자신은 할만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자신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의 정신상태나 행동이 하나도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답 그건 전자와 전자가 똑같듯이 어머니의 마음과 처사님의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처사님 마음에 어머니라는 가설이 되어 있고 자식이라는 가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마음의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도 스스로 밝아지고 모든 문제가 원만해질 겁니다.

'일초직입여래지'의 소식

문 아미타불. '일초직입여래지'…일체 계급과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삼아승지겁을 닦지도 않고 단 한번 뛰어 여래의 지혜에 오른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며,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이것이 오랜 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서 스님께 여쭈려고 멀리 산속에서 내려왔습니다.

답 바다에 온갖 물이 다 모였어도 물 자체가 젖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온갖 물이 다 모여서 흘러 들어도 그 물 자체는 젖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까닭을 아시오? 읊어야 될 일이지만 말로 그냥 했어요. 말을 해도 말함이 없어야…. 모두들 죽비를 치고, 주먹을 쥐고, 법상을 치고 하지만 쳐도 침이 아니요, 치지 않아도 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까닭이 젖지 않는 까닭이오.

한점 먼지 없이 트인 경계

문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짐작으로는 그럴 것이다 라고 그에 대한 막연한 어떤 확신은 있어 왔습니다만, 그야말로 한점 먼지도 없는 그러한 허공과 같은 탁 트인 그런 것이 항상 막혀왔습니다.

답 대나무 방귀씨를 참구한다면 될 수 있을텐데요. 그리고 방귀씨를 찾았다 해도 대나무 방귀털을 먹여서 길러야 할테니 방귀씨를 찾고 나서부터가 진짜 공부죠. 더 먹여도 안되고 덜 먹여도 안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일체 모든 것을 거기에 놓는다면 돌아가지 않을까요? 남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나 선지식들이 이끌어 주고 깨우쳐 준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자기 마음 가운데 마음이 또 있는데 그 마음과 마음 아닌 마음이 서로 상봉을 해야만 족하다고 할 수 있죠. 진짜 이끌어 갈 수 있는…. 결국 말하자면 자기 조상입니다. 자기 조상부터 발견해야 남의 조상도 내 조상 아님이 없다는 도리를 알게 되고 내 몸 속의 악업·선업의 중생들에게 다 항복받을 것이며, 모두가 보살로 화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 중생들은 잘하고 못하고를 느끼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으로 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좋은 것을 알고 나쁜 것을 알며 나쁜 길로도 갈 수 있고 바른 길로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겨 있고, 99% 부처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한생각을 잘못 해서 세세생생에 끄달린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것이죠. 보통 비구스님네들은 비구니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하는데 비구다 비구니다 구분하기 이전에, 풀 한포기도 나 아님이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생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데 모습은 다르고 차원은 다를지 언정 어찌 살림살이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찮은 벌레 하나도 나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는데, 하물며 비구니라고 저버린다면 자기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키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산하대지를 기르는 어머니요, 우주의 태양은 아버지가 되는데 어찌 아버지가 따로 있고 어머니가 따로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자비, 그것만이 제 나무에서 실과가 익으면 만 가지 맛이 나고, 만 가지 맛이 나면 씨앗이 여물어서, 되심으면 다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관념과 습에 젖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하고 청규가 이러하니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데에 빠진다면… 그렇다고 계율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다시 놓게될 때 굴려서 다시 돌아서 나오게 되죠. 이게 직접 들어가는 순리요, 바로 통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이 소리입니다. 오신통을 안다 해도 도가 아니라 했던 것은 오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체만물 만생이 돌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하나도 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을 유창하게는 잘 못합니다. 남들처럼 책을 많이 본 것도 아니구요. 여러분보다 저 아래 밑바닥에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신세계에서 물질세계로 나으고 물질세계에서 정신세계로 들며 돌아가기 때문에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는 둘이 아니고, 선과 교도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스님이 과감히 비구 비구니를 벗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대단하십니다. 내 땅의 토지값을 내지 않아도 되겠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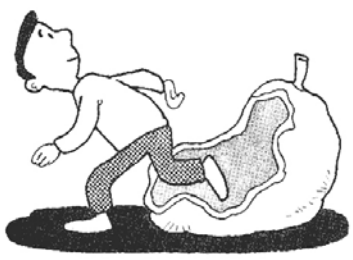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불교입장에서 본 '병'

문 병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도 아픈 사람 입장이니까 이런 질문을 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끔 저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긴 힘들지만 항상 품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집안에 있을 때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매를 때리실 때에도 결국은 항상 어머니 곁에 있기 때문에 그 매가 매가 아님을 느낍니다. 물론 이건 제 입장이지만 다른 분의 입장에서는 남의 말을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닌데, 단 갖다주는 것도 없고 주지 않는 것도 없는데 인연줄에 얽히고, 얽혀 있는 것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는 데에서 한순간에 굴레를 벗어 던지고 일어서라 이런 거지요. 그럴려면 먼저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마음을 내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생기면 말을 하게 되고 용도가 생기면 행하게 되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해요. 이 속에 있는 중생들은 모르니까요.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한번 굴려서 그게 매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불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병이 병입니까?

답 병이 붙을 자리가 없다고 했거늘 자기도 없는데 병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붙을 자리가 없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까? 한마음은 포괄적인 한마음이지 개별적인 한마음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어떠한 것이 오든지 닥치는 대로 거기에 맡겨 놓도록 해요.

6학년 아이가 불치병 걸려…

문 스님,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왔습니다. 실은 저희 애가 아픈데 처음에는 딴 아이들보다 걸음이 늦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학교에 다녔었는데 6학년인 지금은 걷지도 못하고 온 몸에 힘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불치병이라고 진단이 나와 있고 해서 다른 데 믿을 곳이 없어 스님께 왔습니다.

답 그것은 이 마음 도리로써 그 업보를 녹이려면 모든 것은 자기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것이며, 한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니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항상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참구하세요. 애한테도 그렇게 일러주시구요.

욕심없이 '관' 하려면…

문 지금 제게 중요하고도 급한 문제가 있어 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절한 마음을 내는 것과 양면을 다 놓는다는 것이 어떤 관계 내지는 차이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생각나기 이전이라는 주인공 자리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아무래도 사랑의 욕심이 개입된 쪽으로 '이러이러 해야 되지 않겠어 주인공?' 하고 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방법도 통하는가 봅니다. 어찌해서 옳은지요?

답 간절한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한 마음은 아니지요. '나'는 빠지고 주인공을 믿어 일체를 놓고 맡기라고 했지요. '나'는 지켜볼 뿐입니다.
'이러 이러 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인공' 한다면 빈 맷돌이 되기 싶지요. 그렇다고 욕심이 개입 되어서는 안되지요. 되고 안되고 하는 것까지 주인공 몫으로 돌리세요.
그래서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인데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놓고 안되면 안되는 대로 놓고가라 했지요.

아버님이 실직당해 괴로워

문 요즘 집안 사정이 어렵습니다. 아버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실직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마음이 어떨지 잘 모르고 노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마음을 잘 내지를 못하고 잘 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것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내고 어떻게 행동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든 다가오면 열심히 하되 거기 말려서 정신 빼앗기지 말고 '나'라는 애착 붙어있는지 관하세요

답 모든 경계가 다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요 공부의 재료입니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라고 규정짓지 말고 잘하는 것도 주인공, 못하는 것도 주인공이니 일체를 놓고 맡기는 거기서 터득을 하셔야 합니다.

사회생활 · 마음공부 다른지

문 신행의 열의도 미적거리며, 그렇다고 회사 직무에도 성의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일이 허무하며 추구할만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의 책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할 때는 겉돌아 마음공부는 저편에 있고, 회사에서 승진할려면 상사에게 눈에 들도록 열심히 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출세욕이란 마음이 걸려 "에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공부만 하면 되는데"하고 마음의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큰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극단적으로 마음공부를 하겠다고 사회생활을 등한시하는 것과 사회생활(명예 · 부 · 사회봉사)을 열심히 하고 난후 남 부럽지 않을 때 마음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같은 것인지요.
제 아내는 서예를 배우고 있는데 답답한 것은 서예선생님(대가)들의 작품을 보면 계속하여 배워서 대가들 처럼 잘쓰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도 필요한 것인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마음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생각되어 서로 말을 하다보면 저와 아내는 확신이 서질 않아 옥신각신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건(도덕 · 부도덕)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삶에 도움을 받고자 올립니다.

답 무슨 일이건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지요. 마음공부와 생활이 별개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돈도 벌어야 하겠고 출세도 해야 하겠지요. 마음공부라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내 앞에 다가오는 일을 열심히 하되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신을 빼앗긴다든지 애착 때문에 탐 · 진 · 치심으로 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내가 한다' '내 것이다'라는 착을 갖고 하는게 아니라, 열심이 하되 내 마음자리를 지켜 보면서 거기에 '나'라는 애착이 붙어있는지를 관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일체를 놓고 맡기면서 열심히 뛰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격으로 생활하면서 마음공부하고, 마음 공부하면서 생활을 멋드러지게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구 종말론에 대해 한말씀…

문 저는 27세의 회사원입니다.
스님, 강증산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탄허스님께서도 언급하신 지구종말에 대해서는요. 저는 어떠한 의도가 없사오니 솔직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방법에 대해 알려주셔요.

답 우리들이 한생각 활달하게 돌리면 종말 따위는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종말이 올거라고 믿는다면 종말이 오겠지요. 나는 그런 얘기에 콧방귀도 뀌고 싶지 않군요. 수행방법을 물으시는데 아마도 수백번은 넘게 비슷한 질문에 대답을 했을 겁니다.
부다피아 내의 '현대불교' 읽기에서 '길을 묻는 이에게'를 열어 보시거나 한마음선원 홈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물어보신 그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렵니다.

호흡관을 해보고 싶습니다

문 주인공에 맡긴다는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에 따르는 긴장이 풀리는 효과가 중요한 것입니까? 경계에 부딪치는 상황을 관해 보면 작은 일이라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긴장이나 치우침같은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긴다는 생각을 하면 스르르 풀리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꼭 그러지 않더라도 그냥 차분히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호흡의 들뜸같은 것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세상엔 급한 일도 해야 할 일도 없다 라는 생각들을 해도 제가 느끼기엔 결과가 비슷한 것 같은데, 오히려 항상 주인공에 관계해서 관하려고 애쓰면 긴장이 생기는걸 알 수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혼자 조용한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게 효과적인지요?
〈안반수의경〉을 보면 부처님이 상당히 호흡관을 중시하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도 어느 때에는 마음보다 호흡을 보는 것이 혼란이 적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강한 것 같은데 깊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호흡이 중요한지, 올바른 호흡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이미 한발짝 떼어놓았으니 없지요? 과거는 찰나전에 지나갔으니 없구요. 일거수일투족에서 '나'라고 고정되게 부를 '나'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에 일체를 주인공, 나를 형성시켰고 나를 끌고가는 근본에다 놓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고정된 나는 없기 때문이지요. 이 점을 알고 믿으신다면 앞 뒤 둘러볼 것 없이 매사에서 '일체는 주인공이 한다'고 턱 맡기고 생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다시 '내가 안다'하고 되풀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안다 싶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때는 자기를 한번 돌려보는 계기도 필요하겠지요.
한발짝 떼어 놓는 그자리,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그 자리를 지켜보고 누가하는가를 점검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게 다 나를 비롯하여 고정된 것은 없다는 걸 일러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늘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대세계에서 '나'라고 고집할 실체가 없다는 걸 안다면 아는 걸 재확인하려 할 것 없이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놓고 주인공 반야줄을 잡고 그냥 밀고 나가는게 빠른 길입니다.
정히 심심해서 호흡법도 해보시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테스트해 보시고 싶다면 권할 대로 하세요. 그것 또한 들고 나는 자리는 거기, 주인공일테니까요.

사생 모습 차원 다르나 살림살이 똑같아
'나'는 빠지고 주인공에 일체놓고 맡겨야

협찬 한마음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강 •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제3의학 · 심요법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피는
불자 간병인

◇ 환자 간병 / 산모관리
◇ 12시간 3만원
24시간 4만 5천원(환자)
◇ 산모관리 숙식1달기준 130만원
출퇴근 1일기준 3만 5천원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03-15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산 삼!

(심마니 모임)

017)
232-6005

숙

■ 한탈분(60첩)

1팩으로 쑥탕의 느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IMF가격: ~~₩98,000~~
→ ₩50,000

천호한방 담당 정 재 환
015-7705-5457/016-341-4584

평생무료진료

천호가족이 되신 분은 천호인술한의원에서 평생 무료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천호인술한의원(전국 최대 의료보험요양기관)(前정 한의학박사 한택천(前명지한방병원장))-

• 강좌 •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동양 역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 모집기간 : 98년 7월 20일~8월 19일
◆ 연 령 : 제한없음
◆ 수업기간 : 3개월(매주 목·금요일)
- 주간 : 오후 3시~5시
- 야간 :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
강 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 교수)
(철학관 및 포교당 개원시 적극 지원해려함)
※ 수강중이며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4
(로즈데일백화점 1339호/수서역 3번출구하차)
T. 3413-3185~6 F. 3413-3186
대길사 대길승가대학 학장 석 법안 합장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원왕생 봉사회원 모 집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확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 구인구직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구미시 보계면
신림리 464-1 자비사
0331)
281-038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31)
281-0389

• 수련원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탈종공고 •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조동종 종정 박운파(덕공) 예하」
경남 서구 종무원
· 보림사 주지: 인봉
경기 교구 종무원
· 보문사 주지: 덕연

상기인등은 귀종단의 제도와 행정등 뜻이 맞지않아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8.7.22

• 학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320
은행APT 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기타 •

달마보급 판매

무불스님
10년 결사

구매처 : 달마보급 선양회
017)540-3591

• 사찰안내 •

영축아봐타센터

0523)81-1143/011-885-1149

이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아봐타는,
14개국어 61개국으로 확산된 현재 지구상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Avatar.

양도 안내

⊙ 위치: 안동근교 /부지: 1300평
흙집: 16평 /가액: 1천 3백만원
특징: 고찰터 암자로 적합
⊙ 위치: 단양, 영월사이 /가액: 1억
부지: 1500평 /건물: 108평
사찰이나 복지시설로 적합 제곡 有
⊙ 전국 사찰,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분 전화주십시요.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적지급매>

⊙ 충북 · 오창 · 서울 1시간 15분, 증평 I.C 5분거리

· 사찰부지 : 600평(주차 150평)
· 건물 : 적벽돌스라브 60평(방20실)
원장실 3평 (방1실)
조립식식당및 주방 18평
목욕 사워실
※ 발전 : 오창국제공항,
오창과학단지, 오송의료단지
1. 원주:인구 50만, 15분거리
2. 증평:인구 3만, 8분거리

가. 발전요충지, 경관수려한 정남향
7부능선위치(잣고시원)
나. 산업도로에서 도보로 5분거리
다. 4.5km 진입로 양호
라. 전력 360KW 및 220KW
마. 급수시설(정수) 양호
바. 기존전화시설 완비

● 매 가 : 1억 3천
· 분납절충 · 전세가능

(0431)213-4682 / 011-466-8107

김포시 승가대학교 앞땅

※ 김포 학사 내년 6월 완공

1. 대지 : 156평, 건평 : 50평(건축 3년)
전통찻집, 불교용품점, 식당등
2 땅 : 150평, 평당 100만(정문앞)
땅 : 350평, 평당 85만(정문앞)
땅 : 400평, 평당 70만(정문앞)
※ 주변 대단위 아파트 신축중이며 투자가치 100% 부동산투자는 지금

02-604-5094
011-231-5094 김 수 영

사찰안내

◇위치 : 경남 하동군 화계면
쌍계사
(쌍계사에서 칠불사방향 1.5Km 지점)
◇대지 : 510평
◇건물 : 91평
◇가격 : 추후 결정

0595)884-0496

사찰겸 포교당

◇위치 : 경북 대구시
◇2층 건물
◇평수 : 50평
2층-법당, 1층-요사채, 방3, 욕실, 종무실, 주방, 식당(반지하)-18평
◇가격 : 1억 3천
(은행융자 2,500 포함)

011)790-7162

사찰전세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 법당 : 부처님 삼존불 약 15평
(입주 즉시 법회가능합니다.)
◆ 요사채 : 주방 2, 거실 2,
화장실 완비
◆ 전세가 : 스님께 약간의
전세보증금으로 모실까 합니다.

02)823-0788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고양신도시 능곡 행신-화정지구
◇ 건 물 : 4층의 2층 45평
-법당, 사무실, 방 2, 주방, 욕실
◇ 고급시설, 문화재 목조 아미타불
◇ 가격 : 2천만, 월 50만
(관리비 무(無), 시설비 - 1천 3백만원

0344)979-0212
011)667-0212

포교원 운영하실 분

◆ 법당 15평
삼존불 및 모든시설 완비
◆ 요 사 : 3층 옥탑, 단독방 1.
◆ 3층 - 방 1, 주방 1, 욕실 1.
◆ 가 격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 모든 시설비용은
최저가격으로 드림.

02)461-6091
011)493-8936

◆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당의동
◇ 건 물 : 4층 40평, 옥상 사용가능
◇ 방 3개, 주방, 욕실, 법당
◇ 가격 : 전세 1천, 월 6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51)204-6868

◇위치: 서울서 1시간 20분거리
옥천 I·C에서 20분거리(병천부근)
◇대지: 263평(삼존불 및 162 보신불, 기물 일체포함)
◇건물: 스레이트 30평 1동
스레이트 20평 1동
◇산신각: 4평
◇특징: 마을 끝 산밑 기도도량. 입구까지 천안서 버스 4회 운행 및 포장도로
◇금액: 6천 5백

0417)554-8216

사찰운영하실분

◆위 치 : 통영시
◆부 지 : 1,178평 대지 등기 필
◆법 당 : 25평 / 요 사 : 25평
◆가 액 : 2억 3천만원
◆특 징 : 수려한 산세와 1급수
청정 계곡물이 사계절 흐르는
기도 도량으로 주변이 울창한
송림으로 감싸안고 있는
금오락시형의 천하명당자리.

◆위 치 : 경북 예천
◆부 지 : 700평(평탄작업완료)
◆법 당 : 23평/요사 : 37평이상
◆가 액 : 8천만원(분납가능)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연결하여드리고 양도되 사찰 건축법률도 무상상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본 사찰은 정법도량이므로 스님의 일반인, 보살, 무속인 및대리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주)동국불사 담당.조범사합장
상담: 02)512-4447/012)1648-6334

◆사찰 운영하실분

※ 가격 대폭 인하
◇ 위치 : 경희대 회기역 입구.
- 4층 27평.
- 5층 15평.
◇가격 : 보증금 천 4백
월 60만원

011)286-2680

◆포교원 운영하실분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 평 수 : 50평 3층건물(3층), 방 2개, 주방(주차유)
◇ 가 액 : 전세 5000만원
◇ 시설비 : 3800만원, 시설완벽, 법회 및 의식 즉시가능
◆ 특징:주변전철역 교통편리 A.P.T 주택 밀집지역 포교 최적지임

02)939-3647
012)341-3647

◆ 급매(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 평수 : 550평
◇ 법당 : 17평(단층스레이트 건물)
◇ 요사채 : 18평(방3칸)
◇ 삼성각 : 5평(목조건물, 단청완료)
◇ 지하수 : 200m 암반수
◇ 전기시설(농사용전기 사용) 및 주차장 완비(사찰마당까지 주차함)
◇ 매매 및 전세 가능
◇ 양도금액 : 1억9천(절충가능)
◇ 전세금액 : 6천만원

011-563-0108/0551)21-5737

⊙사찰전세안내

◇위치 : 강북구 수유1동 북한산밑
◇평수 : 단독주택 약 25평
◇부처님 삼존불, 방2
◆98년 신축, 입주즉시 법회가능
◇가격 : 전세 4천(월세도 가능)
※ 스님 사정상 급히 양도합니다.

02)984-2427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화1리 **용주사**
◇평수 : 대지-150평,
법당 2층-15평
◆요사-30평, 산신각-2평, 종각-2평, 용왕각-1평, 지장단-10평, 천수관음전-2평, 미륵불1불, 해수관음-1불
◇가격 : 1억 7천만원(절충가능)

0373)374-4459

토굴급매

◇위치 : 봉화 태백산 유역
◇평수 : 대지 108평
건평 25평,
토지 3,000평
(유실수 다수)
◇가격 : 4천만원(절충가능)
◇ 낙동강을 끼고 있고, 송이버섯 많이 나는 곳임.
◇ 생활용품 일체 드림

0573)725-2825

사찰안내

◇위치 : 경남 마산 마산역에서 20분거리
◇사찰부지 : 158평
◇건물 : 임법당 1동, 요사채 1동
◇가격 : 6천만원
(시설일체 무료기증)
※ 입주즉시 법회가능

011)9692-8878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명산 '神魚山' 줄기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 면적 : 가) 6,700평(전체 준농림)
나) 30,000평(준농림 18,400평, 농림 11,700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부도탑, 실버타운 전원주택, 종합병원, 동호인주택 연수원, 골프연습장, 수련장, 사설학원**
◆ 교통 : 5분:인제대학교, 가야골프장, 김해상동 I.C(예정)
7분:김해 I.C 11분:김해 대동 I.C
18분:김해구포역, 김해국제공항
21분:양산시 23분:창원시 25분:마산시
◆ 도로 : 가), 나)각각 도로 접함. 현재 5톤 트럭 출입가능
(98년 6월 폭 8m 아스팔트 확장 포장공사 착공)

TEL. 0525)32-8322~4 <자택> 051)335-6392
011)881-4863 012)1568-6392

금화 **공 인 중 개 사** (김해시 어방동 26B 15L)

◆ 사찰안내(사정상 급함)

◇ 위 치 : 포천일동
온천관광단지부근
◇ 사찰용지 : 372평
◇ 건 평 : 법당 33평, 요사채 57평
◇ 양도가 : 1억 9천만원
◆ 97년도 신축국망봉 강씨봉 산맥 천연계곡접.
◆ 지불조건에 따라 조절가능.

02)474-8268
011)228-8092

◆ 포교당 양도(급매)

◇위치 : 길동 4거리 먹자골목
◇시장통 중심가(입주즉시 법회가능)
◇18년 역사 간직
◇건강상 내놓음
◇삼존불,방3칸,취사시설,화장실
◇가격: 층 4,000만원, 월 60만원
◇포교원이나 철학관으로 적합함.

017)282-1998
02)482-4550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 백운산 계곡(암자터)

◇ 경남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1016번지
◆ 함양(안의) →서상→
상부전 마을에서 2Km
◆ 현지 밭 실사용 평수 2,000평
◆ 등기 필 평수 465평
◆ 급매가격 : 3,000만원

053)767-5635

사찰 및 부지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법당 : 20평, 요사 90평
(지하 45평-찜질방)
◇특징 : 찜질방 Bio 석재 시공
◇부지 : 등기상 1564평
계곡 약 700여평(국유지)
총 2,000여평
◇가격 : 3억 5천(절충가능)

0338)71-8750
018)528-8060

◆ 포교당 급매

◇ 11년 역사
◇ 시설 완벽
(법당, 공양실, 주지실)
◇ 주차시설완비
◇ 부산시내 최요지(신도다수)
◇ 공유포함 약 70평
◆ 전세 5천만원
※ 꼭 운영하실 분만 전화요

부산 (051)642-6242

◆ 토굴팝니다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황토흙방 3)
◇ 가액 : 4천 5백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에서 800m 떨어진 깊은 산속

0667)772-5401
015)8483-5963

◇ 위치 : 대전 논산간
국도 중간지점 산속위치
◇ 대지 : 602평(종교용지)
◇ 층건평 : 대웅전(목조)
-외 5포 내 7포, 35평
삼성각(목조)-5평
요사채-현대식건물, 35평
◇ 특징 : 산세수려, 진방 계룡산 기슭, 기도도량으로 적합
◇ 가격 : 4억 5천

0461)33-3048
011)458-3048

◇ 예천 용궁면 산택리
◇ 전세 4천
◇ 기도도량
◆ 매매나 전세 모두 가능
◇ 대지 : 140평, 건물 : 50평
◇ 기와증측

0582)536-2195
무안법사

사찰안내

◇위치 : 경남 하동군 화계면
◇사찰부지 : 158평
◇건물 : 임법당 1동, 요사채 1동
◇가격 : 6천만원
(시설일체 무료기증)
※ 입주즉시 법회가능

011)9692-8878

1. 전세 및 월세:
부산 문현동 전3천 월세 있음.
법당 40평 중 방 2, 화장실, 욕실, 부엌
2. 절, 매매 : 충북 충주시 청원군
천 3백만원
3. 임야 7천평, 대지 511평, 논·답 650평
등기 안된것 약 3천평(하동)(경남)
4. 하동- 대지·산 외 법당, 요사채 있음
5. 김해 6. 거제 7. 고성 8. 함안
9. 산청 외 다수 있음 10. 진동
※ 대구절 매매

0552)584-4881
012)760-4549/011)842-4549

부다피아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 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부다피아 쇼핑몰 사이트 http://mall.buddhapia.co.kr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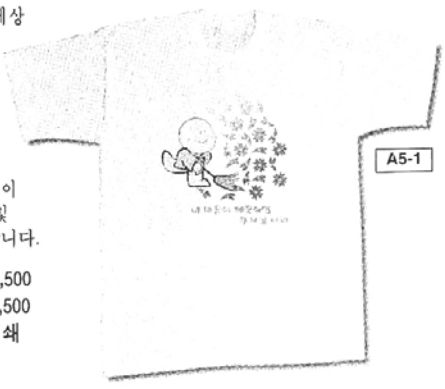
1) **한국불교의 현황** :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 승가 및 재가불자 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 정가 1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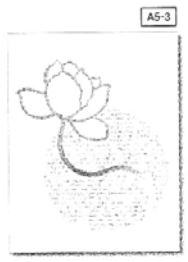
불교디자인 티셔츠

친진한 동자의 맑은 세상
비쓸기 , 연꽃나팔 등
본지에서 제작한
동자 캐릭터 및
연꽃 문양으로 디자인
한 면 티셔츠. 여름
수련대회및 각종
행사용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사찰 이름 및
단체명 인쇄가 가능합니다.

가격 : 아동용 ₩ 5,500
성인용 ₩ 6,500
9도 칼라 인쇄


A5-1


A5-2


A5-3


A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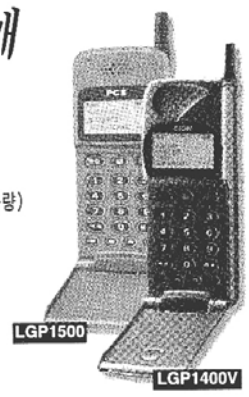
PCS 016 여름 특별할인 한정 판매

(02) 732-1522

LG PCS폰 싸이언의 특징

1. 음성인식기능
2. 한글 화면 표시
3. 음성 및 문자 메시지 기능
4. 플립내장 마이크(PCS폰)
5. 개성에 맞는 다양한 색상과 모델
6. 초소형/초경량 PCS폰(126g : 소용량)

제품명	LGP1300	LGP1500	LGP1400v
가 격 (가입비포함)	80,000	90,000	90,000
※가입비 50,000원 포함(밧데리2개)			





A14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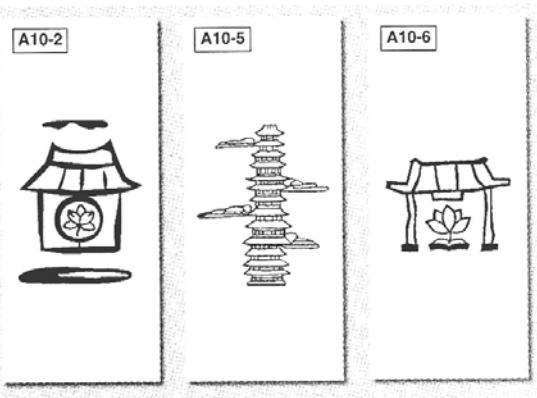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하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A10-2

A10-5

A10-6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A11-1


A11-2

다포

가격 ₩ 800 / 기장 50㎝ 폭 39㎝ / 재질 : 면

기도포

대(大) : 가격 ₩ 1,600 기장 84㎝ 폭 39㎝
중(中) : 가격 ₩ 1,500 기장 76㎝ 폭 39㎝
재 질 : 면


A12

법성계 걸망

크기 : 500×460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 가격 : ₩ 15,000


A13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신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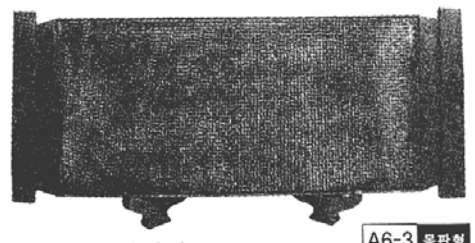


A4-1 A4-2 A4-3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재질 : 100% 청동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 40.5 ㎝
가격 :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 580,000 (개금)


A6-3 목판형

금강경 대장경판

금강경 전품을 입체 사경후 판각한 성보 대장경판. 다양한 경판의 느낌을 주기위해 목판형, 청동형, 골동품형 등 6종의 경판을 제작 하였습니다.

재 질 : 100% 폴라코트
경판규격 : 500(가로), 260(세로), 8(두께) (단위 ㎜)
가 격 : 1개 ₩ 100.000


경판발침


A9-1

단주 열쇠고리

다양한 칼라 디자인
가격 : 낱개 ₩ 3,000

A9-2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낱개 ₩ 9,000




A10-2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 법보시 하실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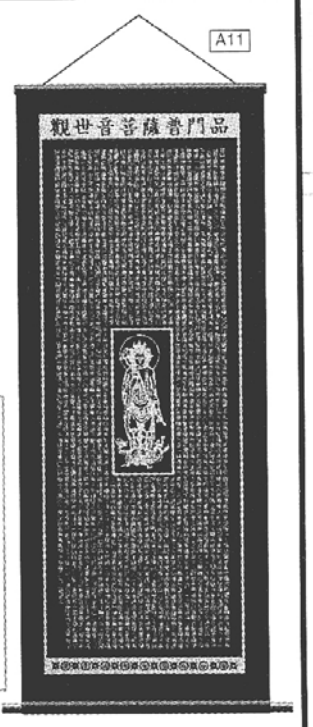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부그림



색상 : 진녹, 검정 바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 55㎝(가로) 140㎝(세로)
재질 : 기모지
특징 : 색이 변하지 않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A11



금속 수공예 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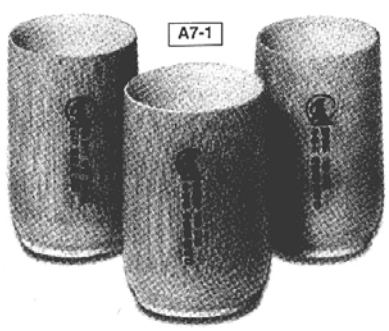
지장보살께서 과거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 친히 받으신 츰부다라니(중생의 온갖 지혜, 건강, 재보, 수행력, 수승한 진리 등의 힘을 증진시키는 다라니)를 범오 선생이 일심으로 염(念)하며 수공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

- 불보살의 가피력이 항상 함께 합니다.
- 늘 마음에 새기면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이되며 불심이 돈독해 집니다.
- 결혼하는 분에게 선물하면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 주는 좋은 선물이 됩니다.
- 현대적 감각에 맞아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 선택사항 : 수공예 작품이므로 다량 주문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 합니다.

A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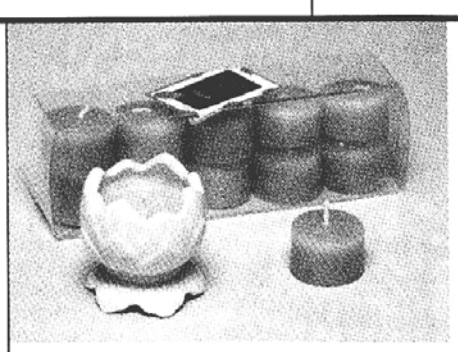
재질 : 동
특징 : 수공예 작품
가격 : ₩ 45,000


A7-1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입니다. 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단 외줄 인쇄이며 10자 이내)

크기 : 9(세로).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도자기 연꽃 향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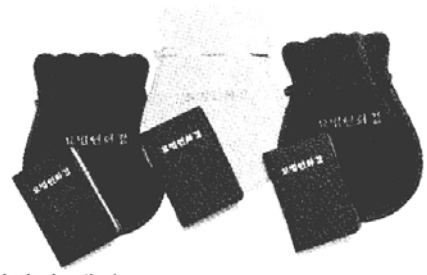
은은한 향기와 함께 세상을 밝히는 도자기 연꽃 향초! 가정의 장식용 소품으로도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도자기 안에 있는 초를 모두 사용하신후 날개 초를 넣어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 향꽂이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량 주문시 할인가능 합니다.

가격 : 도자기 연꽃 향초(레몬향) ₩ 3,000
향초(라벤다향) 1set(10개) ₩ 5,000
크기 : 가로 5.5㎝, 세로5.5㎝

신상품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뒤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 4.5 (가로)㎝, 6.2 (세로)㎝ , 547쪽 / 가격 : ₩ 4,000

사찰 · 문화유적지서 불심 · 민족혼 느껴보세요

문화원등 개설 '청소년 역사탐방'

신라 · 백제 불교유적 탐방 '산 교육'
교실 밖에서 배우는 문화체험 기회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 ·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불교유물과 유적들을 둘러보고, 옛 선인들의 예술혼에 깃든 불심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충북 청주시 동양일보사가 '교과서 따라 우리문화찾기' 행사를 마련하는 등 각 지역 문화원들이 불교유물과 유적지를 답사하는 탐방학교를 잇달아 개설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 따라 우리문화찾기'는 교실수업에 시들해진 어린이들에게 생생한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케 하기 위해 마련된 것. 10차 문화유적 답사 중 △강화도 역사를 찾아서(5차) △팔만대장경을 찾아서(8차) 등에서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다. 5일 실시되는 '강화도 역사를 찾아서'에서는 전등사, 보문사 등 강화도 고찰들과 대장경 경판이 판각됐던 선원사지를 답사한다. 11일 시작되는 '팔만대장경을 찾아서'에서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과 판고 등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온양 · 익산문화원 등 전국 5개 지역 문화원들도 8월초 신라와 백제의 불교유물 · 유적지를 답사하는 탐방교실을 일제히 개설한다.

충남 아산시 온양문화원은 15일 '문화가족 문화현장 탐방'을 마련하고 불국사 석굴암, 남산순례, 경주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신라건축에 숨어있는 불심을 찾는다. 경남 사천군 사천문화원도 3~7일 사천 다솔사와 다솔사보안암석굴 등 답사하는 '청소년 문화유적 탐방'을 마련한다.

다솔사의 대웅전, 나한전, 천왕전 등은 신라고찰의 풍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보안암석굴에는 석조여래좌상이 안치되어 있다.

전북 익산시 익산문화원이 12~13일, 전남 곡성군 곡성문화원이 14일 각기 마련한 '청소년 유적지 순례'에서는 부여와 공주의 문화 현장을 답사하고 백제불교를 생생하게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익산문화원의 순례에서는 백제탑의 저녁노을을 볼 수 있고 고란사의 은은한 풍경소리도 들을 수 있다.

곡성문화원의 탐방에서는 태안사 답사가 백미. 해화당 · 선원 등 전국 굴지의 규모를 자랑하는 요사채를 가진 태안사는 742년 창건된 고찰. 최남선은 태안사를 "고초(古初)의 신역(神域)"이라고 극찬했다.

전남 영광군 영광문화원도 14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영광 불갑사 답사를 마련한다.

마라난타가 384년 세웠다는 불갑사에는 보물 제 830호로 지정된 대웅전 등 백제의 불교 건축미를 감상할 수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청소년 역사탐방

행사	주최	일시	행선지	전화	비용
교과서따라 우리문화찾기	동양일보사	5일(5차) 11일(8차)	강화도 해인사	(0431) 211-8811	25,000원 (1인)
문화가족 문화현장탐방	온양문화원	15일	불국사 석굴암 남산 등	(0418) 545-2222	15,000원 (1인)
청소년 문화 유적지탐방	사천문화원	3~7일	다솔사 등	(0593) 33-3162	무료
청소년 유적지 순례	익산문화원	12~13일	공주 · 부여 유적지	(0653) 861-2022	무료
전통문화사상 교육	영광문화원	14일	공주 · 부여 유적지	(0686) 51-3255	무료
청소년 유적지 순례	곡성문화원	14일	태안사	(0688) 62-0890	무료

12~14일 청소년 영상제

미래영상연구소(소장 정근원)가 12~14일 '98 청소년 영상제를 여해문화공간에서 개최한다.

'느끼는 영상, 열리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상제에는 심형래씨를 강사로 '용가리' 제작과정을 발표하는 △테크놀리지와 영상 △창작예술과 영상 '덤보' '환타지아' 등이 상영되는 △애니메이션의 세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02)761-7094

연꽃 어린이캠프 생활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는 7월21일부터 2박3일간 경기도 남양주시 고래산 동원정사에서 제5회 연꽃어린이캠프를 가졌다.

2백여명의 새싹 불자들이 불성을 찾아든 이번 캠프에서는 부처님 세계, 야간 담력훈련, 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건강 365일 〈29〉 메밀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약리효과가 있는 곡식중 메밀은 메밀꽃 필 무렵이란 단편소설도 있듯이 강원도산이 제일 좋다. 메밀국수 막국수 메밀부침 냉면 등 여러 가지 요리법이 있다. 메밀의 성분은 다량의 전분을 비롯하여 단백질이 풍부하다. 예로부터 변비를 없애준다고 알려져 왔으나 태워서 재로 만들어 먹으면 반대로 설사를 멎게 하기도 한다.

메밀 속에는 루틴이란 물질이 있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혈압을 내리게 한다. 또 다이어트식품으로도 효과가 뛰어나다.

체질의학에서 태양인체질이 안되면서 대장에서 변비라는 병을 일으킨다.

메밀은 근본적으로 무슨 작용을 하는가? 간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영양학적으로 단백질이 다량 포함돼 있다고 했다. 간장병에는 다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한다.

혈압강하 · 변비막는 다이어트 식품
태양인 체질 간장 기능강화 효과

있다. 다른 장기에 비해서 간장의 기능이 약하다. 이 태양인 체질의 병은 원천적으로 간장의 기능이 약한 것이 원인이다. 예를 든다면 변비가 됐든 고혈압이 됐든 위장병이 왔든 간에 그병의 원인은 일단 간장기능이 약한 것이 원인이란 것이다. 간장에선 피를 저장하기도 하고 더러운 피를 거르기도 한다. 피를 해독하지 못하면 탁한 피가 혈관벽에 붙어서 혈관이 좁아지고 그로인해 혈압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또 피가 탁해지면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란 산소를 공급하는 물질이 산소공급을 못하면 기의 순환이 잘

그러나 그 주장은 일반론적 주장이고 간장이 약한 태양인 체질에 단백질은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이 태양인 체질이 육식을 많이 하면 손발이 떨리는 파킨슨씨병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호킹박사 미국의 유명한 권투선수 알리같은 사람들도 태양인체질인데 육식을 위주로 하는 서구음식문화 때문에 몸을 망친 대표적 예이다. 이와같이 간을 보할 목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데도 동물성단백질보다는 식물성단백질이 태양인체질에는 맞다.

(02)762-5510

파라미타, 고성 잼버리장서 연합캠프
2천여명 호연지기 배웠다



◇파라미타 연합캠프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파라미타 청소년은 민족문화와 전통을 계승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창달한다." 강원도 고성군 세계잼버리장을 울리는 힘찬 선서와 함께 24일 막을 올린 '2542 파라미타 연합캠프'가 27일 회향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현근)가 주최해 '맑은 세상, 청소년 세상, 부처님 세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전국에서 2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등 4개 분단으로 나뉘어 잼버리캠프장과 낙산사, 백도해수욕장에서 모험활동, 참배활동, 신행활동, 수상활동을 진행하며 불심과 호연지기를 다졌다. 지도교사 자원봉사자 등 5백여명의 지원요원이 청소년들의 활동을 도왔다. 또 인근 군부대는 의료단 및 막사 15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캠프 기간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기온이 내려가 수상활동의 경우 수영, 수상스키 타기 등은 하지 못하고 모래사장 구보, 공놀이 로 대체했으며, 신행활동도 벽화그리기 등은 비가 와 진행하지 못하는 등 일부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한편 연합캠프 입재식에는 파라미타 회장 현근스님과 사무총장 법경스님, 신흥사 주지 도후스님,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이 동참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교 사이버기행 떠나자"
에듀넷 등 통해…내고장 문화 애호도

여름방학 넷족을 위한 사이버 학교들이 속속 개교하고 있다. 이들 사이버 학교 가운데 불교 문화재와 유적들을 소개하고 있는 곳들을 찾아, 불자 청소년들과 불교 사이버 기행을 떠나보자.

여름방학 사이버 학교로는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의 '98 여름방학 웹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에듀넷 초기화면에서 여름방학생활로 들어가면 방학생활 준비, 박물관, 연극, 음악회 소개, 봉사활동 등의 코너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박물관 코너는 각 지역 대학 박물관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봉사활동 코너에는 복지시설, 공원, 문화재에 대한 봉사활동 가능 지역과 기관, 준비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어 이를 통한 내고장 문화재 애호활동도 가능하다. 에듀넷은 '우리의 문화재' 코너에서 각종 문화재 사진과 전문가 안내도 곁들이고 있다.

방학동안 문화재 탐방에 나서고 싶은 청소년들은 문화재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제별, 지역별 문화재 탐방에 나서보자.

이 밖에도 애드피아(ADPIA)의 가상학교에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3D MAX, LightWave3D 등의 전문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배울 수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이트 주소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에듀넷 '98 여름방학 웹서비스	http://edybet.bnc.bn.jr
문화재관리국	http://www.ocp.go.kr
구거시간	http://soback.kornet.net
늘푸른가상학교	http://evergreen.ottas.co.kr
애드피아(ADPIA) 가상학교	http://www.adpia.com

불국토
청소년 포교법인 추가등록
시설위탁 · 교육 · 상담사업

청소년불자들의 건전육성과 신심을 다질 전문 청소년법인단체가 설립됐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정관)가 7월18일 동 재단을 재단법인 불국토 청소년 도량으로 재등록, 청소년 포교의 새장을 열었다.

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이어 청소년법인단체를 설립한 불국토 청소년 도량은 청소년 수련활동,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교육 및 상담, 연구 및 출판, 국제교류, 문화예술, 복지, 장학, 봉사활동 등의 사업들을 폭넓게 구상, 추진할 계획이다.

정관스님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숙의 토양을 잃어가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해 청소년드에게 우리문화의 소중함과 나라사랑, 자비심, 공동체의식 등을 심어나가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마음밭 일구는 농촌체험
부산신도회 · 파라미타 이색 프로그램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산지부와 부산불교신도회가 청소년 ·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찰과 연계한 농촌체험을 통해 봉사와 수행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며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파라미타 부산지부(지부장 성오)는 17일부터 2박3일간 삼랑진 여여정사에서 '토담집에서 2박3일을…'이라는 주제로 시골토담집에서의 생활을 결친다. 이번 농촌체험은 △사찰예절 △불교설화 촌극 △심성계발 등이 마련됐다. (051)817-2648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도 24일부터 3박4일간 밀양 표충사와 인근 영농단지에서 제6회 불교청소년흙사랑 자원봉사활동을 개최. △농촌일손돕기 △발우공양 △마음나누기 △묵언 등을 진행한다. (051)464-2020

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탱화
개금 불상, 시왕개채,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8
F A X : (053)639-0407

염불 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일요일 아침7시)
와서 보라! 수행비전의 완벽한 테크닉을!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률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좌와 동정간에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전호흡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禪 수행법
- 큰소리로 장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트이며 맑더듬, 실어증이 극복되고 가슴이 탁트여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못느낀다.
- 염불 수행시 혀가 이완되어 입천장을 탁탁치면 대뇌가 각성되어 또렷또렷해지며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의 맺힌 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올곧은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한이, 병고액난의 괴로움이 번개치듯 녹아내리고 문제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며 간절한 소원은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왼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 오른뇌의 직관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번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또렷하고 정신맑은 상태로 독경삼매 이른다.
- 아무리 잘난척 대단한척 아는척해도 이마와 정수리에 열나고 손, 발, 배가 차가우며 배꼽주변 인중, 눈썹, 손가락사이를 눌러보아 맺힌게 있고, 몽증을 느끼면 몸둥이 하나 다스리지 못해 만병의 원인을 간직한 부끄러운 예비환자이다. 비전의 수행으로 일생 감기 몸살 안걸리고 두통, 불면증, 상기병, 화병, 위장병, 고혈압, 당뇨병이 단시일에 극복된다.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염불정근, 참선, 와선, 행선, 호흡에 맞춰 108배, 도인건강법, 축원기도 3회
- 예약수련 20명, 넉넉한 복장, 초심자 기본수행법교육.
※ 회비일체없음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 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사군자, 달마도, 용자그림, 전수자 수강생모집. (통신도 가능)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 신기 · 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 목판 · 동판 · 인쇄 복사본보다 생필인 진품이 영기와 영험이 더 있습니다.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외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결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불자 세상보기

청소년 성범죄 · 낙태 등 성윤리 문란

눈 높이 성교육을

가정에서부터 개방적 상담
휴가철 탈선예방 프로절실

청소년 성교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체 해부도를 설명하는 식의 '생물학적 성교육'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실제 상황과 맞게 인격형성과정으로서의 성교육방법론을 모색하는 이른바 '인본주의적 성교육'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내일여성센터부설 성교육센터(소장 구성애)는 최근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법으로 '청소년 성교육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자료집을 발간,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 센터가 수도권 지역 6개 중학교 6백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더 이상 가릴 것이 없어진' 청소년들의 성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성교육방법론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이에 따르면 '가장 고민되는 성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성관계'가 28.9%, '생식기 · 몸'이 13.6%, '임신'이 11.4%로 각기 나타났다. 또한 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성적 쾌감에 대한 감상등 음란물을 통해 접했거나 실제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성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내일여성센터는 이에따라 "성교육은 성기와 행위중심에서 인격과 인간관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교육 방법도 느낌과 체험을 통한 방식을 강조한다. 성적 충동이나 성관계, 성폭력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뒤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토론한 후 극으로 구성해 보는 '역할극', 달걀을 하나씩 나눠준 뒤 1주일동안 갖고 다니도록 해 부모의 소중함과 사랑을 깨닫게 하는 '달걀 키우기', 퀴즈식 성문제 문답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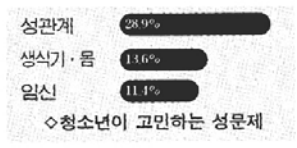
성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이와 유사하다. 10여년간의 성교육 현장체험담을 담아 〈우리가 성에 관해 알고 싶은 것〉(또 하나의 문화 刊)을 펴낸 중앙여고 김성애 양호교사는 "아이들은 어른의 상상보다 훨씬 성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있고, 이로 인한 고민과 갈등도 절실하다. 따라서 이제 청소년의 성은 주체적이어야 한다"고 결론내린다. 자유로운 성이 가져올 후유증까지 모두 알려준 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학교와 사회의 성교육 방향이 잡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정의 성교육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추세다. 최근 〈청소년 성의식 실태조사〉 논문을 발표한 경기대 교육대학원 김상원교수는 "부모가 가장 격의없는 성문제 상담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우발적인 성적 충동이 늘어나는 여름방학에 가정 성교육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지금 청소년이 원하는 성교육은 어떤 것일까. 사진은 지난 7월11일 열린 내일여성센터 주최 '청소년 성교육 사례발표회'.



◇청소년이 고민하는 성문제

들교의 눈 "음욕은 온갖 고통의 원인"

"네가 정도를 걷고 싶으면 애욕과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청춘과 미색은 잠시 후에 사라지고 곧 노병과 노쇠와 고뇌가 뒤따름을 명심해라." 〈유행경〉 부처님께서 암라팔리라는 젊고 예쁜 창녀에게 한 말씀이지만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반열반경〉은 "애욕은 사람의 정서에 빨대를 꽂아 넣고 양식을 빨아내서 지성을 말라 죽인다"고 설한다. 불건전한 성의식은 온갖 지식과 지혜를 배워 익혀 지성을 쌓아야 할 청소년들에겐 독버섯과 같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윤리에 대해서는 〈무량수경〉의 "모든 사람이 사악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태우고 남녀간의 계율을 흐리며 그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고 불의와 패덕을 쌓는다"는 경구를 들려주자. 또 도리에 어긋난 성행위는 온갖 고통의 원인이 됨을 주지시켜야 한다. "음욕은 관찰할 때 재미가 적고, 허물이 많아서 괴로움이 따르고, 행할 때에 항상 얽히여 묶이는 것이며, 음욕을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만족함이 없고, 다른 나쁜 짓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음욕을 즐겨하지 않느니라." 〈근본설일체유부〉 전국 16개 지부 중 일부에서 청소년 성상담과 성교육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등 불교청소년단체들이 더욱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렇게 들었다

방학이 시작됐다. 얼마전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는 집단 건의서를 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또 촌지를 받거나 과도한 체벌을 가한 교사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가 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권침해로 아이들을 소신껏 가르칠 수 없다는 일선교사들의 한숨소리도 들린다. 기본교육이 이뤄져야할 가정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은 학교와 가정, 교사와 학부모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참되고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잘 가르쳐 달라고 회초리를 선물하는 학부모와 스승의 그림자라도 밟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있을 때, 교사 스스로 참된 교육자상을 확립하려는 노력과 아이들을 '된사람'으로 키우려는 사회전체의 일체감이 있을 때 참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참교육 "본의 알아야 가르치기 쉽다"

▨제자는 마땅히 다섯 가지 일로 스승을 바르게 존경하고 바르게 봉양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모르는 점은 반드시 밝혀서 질문하며, 배움을 반드시 사랑하며, 일을 반드시 민첩히 처리하며, 그릇된 행위가 반드시 없게 하며, 스승을 반드시 공양함이다. 〈선생자경〉

▨스승은 다섯 가지 일로 제자를 측은히 여기며 가르쳐야 한다. 다섯 가지란 학문을 배우게 하며, 지극한 기예(技藝)를 가르치며, 배움에 민첩케 하며, 선도(善道)를 가지고 인도하며, 현명한 친구를 따르게 함이다. 〈선생자경〉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데 있어서 다섯 가지를 행해야 한다. 첫째는 악을 떠나 선에 나아가도록 함이요, 둘째는 글을 가르침이요, 셋째는 가르침과 계율을 받들게 함이요, 넷째는 일찍 아내를 얻게 함이요, 다섯째는 집안에 있는 재물을 급여함이다. 〈육방예경〉

▨사제의 의(義)는 자연스러운 가운데 감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 깊이 믿어, 상대를 자기처럼 여겨서 제가 못하는 일을 상대에게 요구치 말며, 예의를 숭상하여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며, 온화하고 성실하여 서로 원망해 다투지 말아야 한다. 제자와 스승 사이는, 양쪽이 다 참되고 성실해서 스승은 스승답고 제자는 제자다워, 서로 비난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하지를 말아야 한다. 만약 작은 원한이 크게 번진다면, 도리어 제 몸을 태우는 결과가 되리라. 〈아난문사불길흉경〉

▨제자는 스승 있는 곳에서 거친 말을 하지 못하며, 스승의 꾸짖음에 대꾸해서는 안되며, 스승의 상석을 먼저 닦아서 먼지나 개미 따위가 없게 해야 하며, 스승에게 자주 가서 필요한 것을 물어야 한다. 제자는 스승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침을 뱉지 못하며, 스승의 경행(經行)하는 곳은 늘 쓸어야 하며, 스승의 하는 일을 힘껏 도와야 하며, 남 있는 곳에서 스승의 과실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선공경경〉

▨본의(本意)를 알고 있어야 남을 가르치기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려 하면 먼저 저를 가르쳐야 한다. 〈물치신경〉

보험금 자살 월평균 215건

"자살은 지옥행 악업"

"'너는 지금 내 말을 믿고 온갖 고행을 닦아라.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지거나 불 속에 들어가라. 이 몸을 버린 뒤에는 범천에 나서 언제나 쾌락을 받을 것이다.' 과거 온갖 선한 법을 닦아 사람의 몸을 얻었는데, 외도의 삿되고 나쁜 말과 헛된 욕심에 홀려 이처럼 목숨을 버리고 죽는다면 뒤에 지옥에 떨어져 갖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백유경〉

생명을 돈과 바꾸는 인명경시 풍조와 한 가정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보험금자살'이 늘고 있다.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현행 생명보험 약관 42조 1항)는 점에 착안해 결행되고 있는 '보험금자살'은 처자식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평생을 고통속에 지내야 하는 결손가정만 양산하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가 삼성 · 교보 · 대한 등 국내 3대 대형 생명보험사의 올 상반기 보험가입자 재해사망중 자살건수를 분석한 결과 예년에 비해 평균 20%이상 증가한 월 2백15건의 자살사례가 집계됐다. S생명의 경우 올 상반기 보험가입자 자살수는 6백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백30건에서 19% 늘었고, 보험금도 30억원에서 42억원으로 40% 증가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노린 위장자살 여부를 놓고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분쟁도 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보험금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위기개입 상담센터 개설 ▲보험사간 가입자 정보공유 ▲'잠재 자살자'를 위한 최저생계비 지원과 고용 · 연금보험 확대 ▲보험사의 질적위주 경영(전문화 · 계약사정 및 조사업무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영월 동강댐 백지화' 각계인사 100인 선언

백양사주지 지선스님, 크리스찬아카데미이사장 강원룡목사, 소설가 박경리씨 등 각계인사 1백명은 지난 7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강당에서 '영월 동강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100인 선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동강일대는 석회암 지층이고 동굴이 많아 댐이 건설될 경우 붕괴위험이 높은데다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과 수달 비오리 하늘다람쥐 등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 · 생태환경을 지니고 있다"며 "용수공급을 위해 대형댐을 건설하기 보다 수도관의 누수율을 개선하고 물절약 설비를 보급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현(국민회의)의원 등 국회환경포럼 소속 의원 41명도 7월27일 강원도 영월 동강댐 건설계획을 원점에서부터 과학적 ·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동강다목적댐 건설계획 전면재검토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이 결의안에서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자연자원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환경오염 막아야한다" 세계 종교계 '한 목소리'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세계 주요 종교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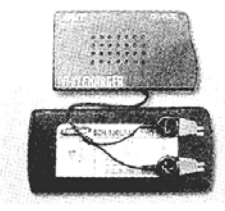
세계종교지도자들과 학자들은 7월22일 美 하버드대학 세계종교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세계 주요 종교들이 환경정책에서 모종의 역할을 맡아야 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경청되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불교, 기독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자이나교, 유태교, 일본신도, 도교, 그리고 토속종교들이 "환경정책에 있어 종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온 약 6백명의 학자들과 종교지도자, 환경전문가들은 그들이 환경보호를 위하여 기여할 수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 지난 96년이래 토의해 왔으며, 이들은 일련의 회의를 통해 "환경파괴를 중단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하는 개인과 기관 및 각종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종교의 생태학적 연관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들 종교 지도자 · 학자 그리고 환경전문가들은 오는 10월 21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종교와 생태학-공통되는 바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최종회의를 갖는다. 이들은 이 회의에서 그 동안의 토의내용을 총 결산하고 아울러 이를 각국 정부의 환경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일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신상품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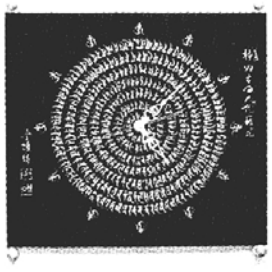


출장 및 여행지에서 휴대폰 방전시 유용한 무선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가 출시됐다.

모든 기종의 휴대폰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분 충전으로 10시간 통화대기와 30분 연속통화가 가능하다. 명함크기의 휴대가 간편한 초경량 제품으로 전기코드 없이 건전지 2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다.

한 시스템. 2만8천원. (02)418-0270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정규과정, 통신과정》
개강: 9월 3일(목)
9월 4일(금)
선착순 3,000명
(학력 · 연령 제한없음)
1. 기본 6개월 과정
불교 기본교리, 예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육조단경 등도 공부할 수 있음.
2. 저렴한 학비
· 3개월 동안 3만원
(처음 3개월은 입학금 만원추가)
· 교재비 무료
(6개월 기본과정)-IMF
3. 교수진
·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와 장가 안가길 잘 했네의 저자)
· 무비 큰스님, 박삼중 큰스님, 무진장 큰스님, 박완일 교수, 법산 큰스님, 보각 큰스님
※통신과정"교재+테이프" 집에 앉아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53)474-8228

신묘장구 대다라니 시계

다라니란 말은 총지(總持)라고 번역하는데 법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음이라는 뜻이며 또한 신비한 주문(神呪), 은밀한 주문(密呪), 밝은 주문(明呪)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효험은 스님들이 잘 아심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 IMF 시대에 저렴한 가격에 불자님들에게 최고의 법보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씨를 보내 주시면 공단 또는 한지에 족자 · 액자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해 드립니다.
싸이즈 39×39cm
색 상 빨강, 검정
가 격 ₩42,000
※ 우편료 별도
주문 전화 ☎ 02)279-2715 FAX 02)275-3739
삼 · 보 · 기 · 업

각종 암 · 백혈병 치료
(現代醫化學의 克復, 신비의 효능 책임치료)
♣ 생체의학 : 스님의 비법 ♣
우연한 인연으로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豫防醫化學 研究所의 칸즈 다쓰이시박사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의 선친과 형이 肝癌으로 사망했고, 그도 癌으로 胃와 十二指腸까지 절제했으나 癌은 肺에까지 파급되었고, 현대의학에 반기를 든 그는 고통스런 투병속에서도 자연과 약초 연구에 몰두하기를 30여년 동안 약초 1천 5백종을 연구 실험하였으나 효과보다는 무서운 부작용으로 인해 무수한 동물을 희생시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평소 즐겨먹는 자연식품으로 범위를 좁혀 숫한 연구와 실험끝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旣成醫化學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우수한 효과와 실적의 개가를 올릴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몸에 좋은 성장 신체의 원동력이 되는 무려 30여종의 항생물질이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癌세포에만 달라붙는 아미티로진 또는 아지티로진 같은 특수한 물질이 형성되는데 암세포만 발견하면 즉각 달라 붙어 癌세포를 에워싸므로 3일이면 癌세포 활동이 중지되고 한달이면 癌세포가 자동적으로 인체의 體세포로 전환됨으로 초기에는 한달이면 가능하고 2-3기는 3개월 말기의 癌환자라도 1년-1년6개월이면 정상회복된다. 또한 이 방법으로 회생하면 體내의 면역이 생겨 다시는 癌에 걸리지 않는다. 임상 실험결과 豫防醫化學 研究所의 로버트 죠 박사는 상상을 초월한 효능으로 1천여명의 치료대상 인원중 99%가 완전정상 회복되었고, 정상인에게 4개월 복용시킨 결과 20년은 젊어졌으며(체성장세포) 건강 진단의 생체리듬상 74세까지도 생리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나올수 있을만큼 체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발표한바 있다. 다만 절차상 까다로운 기술 요법상 다량화 또는 현대의학에 접목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아직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완치가 되고 난후 다소나마 불시에 도움이 되어 주실수 있는 분에 한하여 몇분만을 접수받아서 정성껏 모시고 치료에 임하고자 하는바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전국의 권위있는 병원등에서 검증후 완전 회복되지 않았으면 치료비는 물론 일체의 도움받지 않습니다. (백혈병 5~6개월 완치)
☎ 0547)437-4136 , 437-413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바다가 있어 외롭지 않다.
은빛모래,
반짝이는 발자욱마다
추억이
가슴으로 젖어오는 바다.
들이 아니어도
외롭지 않은데
바라볼 수 있는 바다가 있어
침묵속으로 다가오는
보랏빛 물결
파랗게 부서져 내린
파도를 손목으로 감싸안으며
어깨위로 밀려온 고독은
끝내
파도울음 터트리며
잔잔하게 노을빛으로
내려앉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본명)
大卒, 초 · 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시론

正道를 가라



김 규 칠
〈산업기술정보원 원장〉

"먼 것이 가깝고 간접이 직접이다."

한의학에서는 눈이 나쁘거나 병이 생기면 눈만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간을 다스린다고 들었다. 머리가 아프면 발바닥이나 손바닥, 또는 발가락이나 손가락의 어떤 부위를 누르기도 한다. 머리와 발바닥은 사람의 인체위치로 보면 하늘과 땅 사이로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직접 어떤 연결관계를 갖고 있다는 식의 원리 때문에 그러한 치유법이 생겨났으리라고 본다.

나라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그러한 이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요사이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외자유치를 외치고 금융산업을 비롯해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등 경제적 대처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일응 옳은 대응이다. 그러나 과연 경제적 대처방안만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공정한 게임과 경쟁의 룰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 2백50년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태만과 낭비'라고 일컬었던 이른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바로 오늘날 경제위기의 본질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도 이를 말해준다. 이런 도덕적 해이와 불공정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아주 뚜렷이 나타난 결과는 경제현상에 있지만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다른 부문에서 아주 심하게 쌓여오고 있었다. 경제보다 정치에, 정치보다 사회에, 사회보다 교육·문화에, 그리하여 교육·문화 부문보다 정신적 지도 부문인 종교에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배태되어 왔었고,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이 될까.

젊은 대학시절 고승대덕(高僧大德)을 친견하러 산사를 찾아 헤매던 때 어떤 스님이 차탄조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금강산에 도인이 없으니 서울 장안에 인물이 안 난다"고. 그때는 알 듯 모를 듯 하였으나, 수십년이 지나고 보니 조금은 스님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 요새 어느 정당에서는 '토니 블레어' 론이 한창이다. 영국의 젊은 기수가 멋지게 하고 있으니 그게 좋아보인 모양이다. 그런데 그 영국이란 곳은 이미 2백50년전에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질타하면서 경제적 이득추구 경쟁 이전의 '도덕적 정조'를 강조하던 선각자가 있었다. 이후 수많은 선지식들이 배출되어 사회에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립하고, 가진 자와 배운 자의 '노블리스 오브리제(높은 지위에 수반되는 가중책임)' 실천으로 하나씩 벽돌을 쌓아 선진대국의 금자탑을 이룩한 나라가 아닌가.

> "그동안 위정자들은 편법·반칙 즐겼다 "먼 것이 가깝고 간접이 직접이다"

그곳에 태만방자와 기만착복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가. 그곳에 근면·성실·절약·창의보다 요령·허세·흉내·잔꾀가 세상을 좌지우지했었던가. 정도보다는 궤도(詭道)가 판을 치고 있었던가.

조선조 왕조사와 선비출신 벼슬아치들의 뒷태를 보라. 앞태는 장엄한 모습과 명분을 띠었으나 뒷태는 피와 오물로 얼룩진 역사가 얼마나 많은가. 정정당당한 명분과 수단을 갖고 조국을 위해 신명을 바쳤던 헌헌대장부들이 과연 제대로 대접받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러한 역사가 지난 백년이나 되는데, 어찌 금방에 '토니 블레어'가 나오겠는가. 어찌 한 두달에 선진정치가 가능하겠는가.

공덕이 쌓여야 좋은 과보를 낳는 법,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좋다. 또한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금강산 유람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우리 강산에 도인이 계신가,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를 잘하려면 정치·행정을 잘 해야 하고, 정치·행정을 잘 하려면 교육·언론·시민사회가 잘 해야 하며, 교육·언론·시민사회가 잘 하려면 종교계와 정신적 지도자가 잘 해야 한다.

열린마당

훼불과 종교편향

훼불·종교편향 사례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해병대를 예수님의 군대로 만들겠다"는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발언, 송파구청장 강북구청장 취임식의 '성경선서'를 비롯해 문제가 된 사례만 11건에 이른다. 경제난 극복과 새로운 시대를 이끌 새로운 가치관 모색에 지혜를 모아야 할 불교계는 이에 대한 대처로 귀중한 에너지를 쏟고 있다. 불행한 현실이다. 개신교 유일신사상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각 종교지도자와 종무행정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훼불과 종교편향에 대처키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7월18일 열린 불교지도자 비상대책회의.

"남의종교 존중…불자에 사과해야"



김상근 〈대한기독교서회 사장〉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훼불사건이 계속되다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지난 6월말 제주도에서 발생한 천불훼손 사건을 듣고 참으로 크게 놀랐다. 불교당국과 모든 불자들께 사죄를 구한다.

기독교의 신관(神觀)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유일신관이다. 유일신관은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대하게 한다. 다른 종교와 신앙을 정복하는 것이 높은 신앙이고, 자기종교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이런 사상은 유대인의 민족주의에서 배태된 것이다. 유대인들의 특수한 배타주의로, 그들은 단일종교사회를 이루었고, 그것을 지켜가려는 노력이 당연히 강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다원종교사회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심도있게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나의 종교,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면 너의 종교, 너의 신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럴 때 나의 신앙도 존중 받을 수 있다.

각 종단들은 정복적인 대립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하고 함께 일하는 연합을 중시해야 한다. 서로 협력하고 일치하는 사회풍토를 만드는 것은 동과 서, 남과 북의 갈등을 극복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다시금 가슴아픈 훼불 사태를 보며 우선 종교지도자들이 성숙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종교다원주의 인정 신도교육"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종교와 종교관이 존재하고 있다. 천주교는 60년대 이후 '자기 문화·양심 안에서는 모두 구원받고 구원할 수 있다는 '개방적 구원관'을 정립하는 등 종교적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교황청은 1964년 특별기구로 종교간 협력을 위해 '종교간대화평의회'를 구성하고 종교간 대화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훼불, 종교편향적 행태는 타종교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선교의 대상'으로 단정짓고 공격적인 구원관을 강요하는 일부 종교의 편협한 선교방식이 빚은 결과이다. 이는 신도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직자들의 잘못이다. 자신의 종교관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타종교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재고해야 한다. 신도 개개인도 종교화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소규모로 이뤄져 오던 종교간 대화의 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끝으로 일련의 훼불사건과 종교편향사례에 대해 불교계는 감정적이고 집단적 대응으로 맞서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참회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감싸 안을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

"제도보다 화합위한 노력 절실"



윤청하 〈문화관광부 종무관〉

다종교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신념이 상호 조화롭게 작용하여 사상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간 갈등이 심화되면 사회의 근본적인 대립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종무실은 '종교간의 화합발전' 차원에서 종교간 상호이해와 대화기회 마련에 비중을 두고 종교지도자 세미나, 종교예술제, 종교언론인심포지움 등 범종교 화합행사를 주선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간 화합발전을 위한 종교계의 노력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사찰 성당화재나 종교상징물 훼손사건에 대한 종교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종교축일에 대한 상호경축, 타종교시설 교환방문 등의 사례는 우리 종교계의 화합발전에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또 제도적 보장책으로 초등학교 등에 대한 '종교일반교육 실시' '관련 법률 제정'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정부, 종교계와 국민들간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웃 살피지 않음이 우상숭배"



이찬수 〈감신대 강사〉

사실 그리스도교, 그것도 개신교 안을 들여다보면, 훼불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남음직한 분위기가 있기도 하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지킨다면서도 그저 문자에만 메이는 바람에 오히려 그 속뜻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형상 앞에 절을 한다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웃의 삶, 그 내면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자기 안에 독점하는 행위가 우상숭배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도 전에 공격적인 마음으로 설교하는 목사들마저 있는 실정이니,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다.

개신교 안에 이러한 분위기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교육사업이나 사회사업도 제법 벌이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데가 개신교이기도 하다. 이러한 꿈틀거림이 속좁고 답답한 개신교를 그나마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불교계는 행여라도 똑같이 호전적인 마음을 품어서는 안된다. 큰형님같은 넉넉함, 큰누님같은 인자함으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이 사태의 재발을 막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다.

"불자 결집 신앙권리 지키자"

도완 〈새불교승가회 운영위원장〉



1600여년 한국불교의 역사는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을 형성하고 발전시켜온 토대이다.

훼불행위는 행위를 한 개인의 문제 이상으로 타종교에 배타성과 적대성을 띠는 신도교육체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더불어 행정기관과 언론 등 공공기관의 종교편향적인 행태들이 가세함으로써 훼불과 불공정한 종교정책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스님과 신부님간의 교류도 있었고, 종교인협의회등에서도 종교화합과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런 움직임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신앙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신앙을 인정할 때 가능하며 종교인 각자가, 특히 각 종교의 지도자가 종교화합과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훼불과 종교편향사건이 있을 때마다 혹 종교갈등으로 비쳐질까 염려해서 불교계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강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면 계속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자들이 힘을 결집하는 것은 신앙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불교의 정체성을 찾는 일도 병행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무속과 불교의 명확한 차별화이다. 간간이 TV화면에 비치는 무속인의 모습 뒤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이를 보고 '불교는 곧 무속'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불교는 미래를 점치거나 요행을 기대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종단 차원의 논의와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성하출판 TEL : 273-4451~2 FAX : 273-4450

그대의 내면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당신도 깨달음을 얻고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사람들은 비참함과 고뇌, 고통과 삶 자체를 피하려 애를 쓰고 있다.
주위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것, 그것은 포기이며 결국 겁쟁이, 도피주의자로 남게 된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 그대의 마음을 떨쳐 버리고 자신을 단념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대는 결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단순히 존재한다. 실체는 그대 내면에 감추어져 있다.
그대는 내면을 향해 가야 한다. 그대 안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이것! 이것!
THIS. THIS. A THOUSAND TIMES THIS.



禪

선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당신이 신이 되도록 한다.
선은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승대 임제종의 원오스님이 운문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 만든 〈벽암록〉은 종문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살아 있는 선

말없는 자의 말 —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쇼 라즈니쉬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인간, 종교, 철학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색다른 깨달음의 글과 함께 그의 생애와 임종의 순간을 담고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옮김 / 값 4,800원

42장경 —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편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쇼 라즈니쉬는 특유의 페이소스 넘치는 우화를 곁들여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경옥·황광우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 — 위산의 법제자로, 마조선사의 많은 선 지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탐원을 만나 혜충국사의 원상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박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렸다. 스승 위산에게 머물면서 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소사기로 불릴 만큼 출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가칠종(五家七宗)의 하나인 위앙종(潙仰宗)의 문을 열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김화영 옮김 / 값 6,500원

종단소식

조계종

금산사 미륵십선 법회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도영)는 1일 미륵전에서 미륵십선회법회를 봉행했다.

미륵십선회법회는 매월 음력 10일 금선사에서 봉행되며 앞으로 전국의 각 지역에 미륵십선회 지부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범어사 금정불교대 개강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성오) 금정불교대학은 '98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리반과 경전연구반(금강경 육조단경 승만경) 2개반에 4개월 과정이며 개강은 24일이다.(051)866-7277

태고종

사회복지법인 설립 논의

총무원(원장 인곡)은 28일 서울 종무처 회의실에서 종무회의를 열고 사회복지법인 설립추진에 관한 사항 및 충담스님 열반 49일 추모 영산법회 봉행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종무회의에서는 스님과 신도회 대표로 11명의 사회복지법인 발기인를 영입하고, 강남 일원동 일대의 부동산과 현금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키로 했다. 또 충담스님 49재를 8월 14일 감로암에서 식전행사와 추모법회로 나눠 진행키로 했다. 이날 추모법회에는 종단협회장 월주스님을 비롯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계산림 동참자 소양검정



총무원은 27일 태고사 설법전에서 합동득도 수계산림 동참자 소양검정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수계산림에는 여 행자 19명을 포함해 1백49명의 행자가 참여했다.

천태종

전국 학생회 수련법회

제 25회 전국 학생회 수련법회가 24~27일 3박4일간 총본사 구인사에서 40여개 사찰 학생회원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봉행됐다.

한편, 전국 35개 합창단 수련대회는 6~8일, 금강불교대학 총동문회 수련대회는 8~10일 각각 구인사에서 열린다.

상월 조사기 배구대회

제25회 상월원각 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가 16일 오전 8시부터 충북 영춘면 영춘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중앙청년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대회는 40여개 청년회 남녀 혼성팀이 참여하는 가운데 배구는 물론 줄다리기, 단축마라톤, 씨름, 팔씨름 등으로 진행된다.

진각종

어린이 자성학교 열어

전국 40여개 심인당은 12일까지 일제히 어린이 여름자성학교를 개최한다.

심인당 사정에 따라 1박2일 또는 2박3일간 개설될 여름자성학교는 심인당이나 인근 수련장에서 열린다.

한국법륜종

대도사 자오스님 진산식

동두천 대도사 제3임 주지 자오스님 진산식이 3일 총무원장 혜우스님을 비롯해 1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자오스님은 이 자리에서 "경제적 난관에 부딪혀 고통을 겪고 있는 불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역사찰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붕선교종

완경스님 종무원장 취임



인천교구 제3대 종무원장 완경스님 취임식이 19일 오후6시 인천 도화동 잔치뷔페에서 열린다.

완경스님은 1970년 충남 공주 신원사에서 혜월스님을 은사로 수덕사 방장 원담스님을 계사로 득도했으며, 인천불교연합회 이사, 인천교구 종회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천 보덕사 주지.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위안부 기념관 14일 개관

세계최초…피해자 추모 '인권보호' 기려
운영기금 마련위해 15일 모금 음악회

퇴촌 나눔의 집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잔혹상을 고발한 유럽의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비견되는 '인권 기념관'이 한국에도 생긴다. 세계 최초의 '위안부 기념관'으로 세워질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이 8월14일 오후1시 개관식과 함께 경기도 퇴촌면 나눔의 집(원장 혜진) 내에 문을 연다.

이름없이 죽어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겨레와 전인류에 역사의 교훈을 남기고자 건립된 이 기념관은 총면적 1백4평, 지상2층, 지하1층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대동(회장 곽동환)에서 무상으로 건립 기증해 현재 내부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인 이 기념관의 내부에는 국내외 관련자료 및 영상자료·논문 등을 수집, 비치한 연구자료실 1개소와 전시관 5개소가 들어선다.

지난해 3월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12월에 외부공사를 마친 기념관은 그동안 전시물 구입 및 제작비용, 시설운영비 등에 소요될 3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모금운동과 함께 5차례(낙산사는 8월1일)의 산중음악회를 실시했으나, 모금액이 2억여원에 그쳐 개관후에도 지속적인 모금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개관식 당일에는 종교·사회계 및 정부 인사들을 대거 초청, 모금회를 열 예정이며 다음날 8월15일 오후7시 용인 에버랜드 호암미술관 앞 회원정원에서 대대적인 기념음악회를 거행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할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전경. 나눔의 집 안에 세워졌다.

나눔의 집은 청와대직속 여성특별위원회와 삼성문화재단 후원으로 주관하는 '광복53주년 기념 8.15 예술한마당'에서의 수익금 전액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요될 기념관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나눔의 집' 원장 혜진스님 ●

"日 범죄 고발 공업 푸는 길"



"민족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범국민적이고 민족적인 기념관이 어렵게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념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불자들과 국민들의 도움이 더욱 절실합니다."

나눔의집 원장 혜진스님은 "IMF사태 등 위축된 경제사정으로 인해 기념관 건립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기념관 운영예산 확보 등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눔의집을 지난 92년 10월에 개원, 기독교계가 중심이 되어 온 일본군 정신대 문제를 불교계가 보듬어 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혜진스님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의 삶의 행적을 정리하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하는 것은 역사적인 공업(共業)을 푸는 일"이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기념관을 인권박물관으로 특성화해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유물·역사사료·작품 전시 및 발굴·연구 △교육·학술사업 △위령탑·분향소 설치 및 위령제 봉행 △후원 및 특별사업(해외거주 피해자 실태파악 및 귀국) 등을 결칠 예정이다.

"징용 한국인 희생자 찾습니다"

日 '평화회' 방한 한일과거청산 본부와 좌담

위령비 건립도 추진

한일과거청산범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김명윤)는 일본 군마현(群馬縣)평화유족회 '역사의 진실을 지켜보는 한국방문단(단장 이노우에 데로우)' 17명을 초청, 7월30일 서울 상젤리아빌딩에서 교류 좌담회를 가졌다.

군마현 평화유족회는 한국인 강제 연행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일본 시민운동단체로, 희생자 위령비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번 '역사의 진실을 지켜보는 한국방문단'은 한국인 희생자 유가족 조사를 위해 7월29일 입국했다.

교류 좌담회에서 이노우에 단장은 "군마현 평화유족회의 활동은 과거의 아픔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 남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일과거청산본부 한영조 사무총장은 "한·일 양국간의 과거청산은 우리들의 절대소명"이라며 "양국의 공존과 화해를 위해 교류,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여래종 IMF식당 운영

남한산성 약사사 실직자등에 무료급식

남한산성에 위치한 여래종 본산 약사사(주지 혜안)가 실직자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무료 'IMF식당'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약사사는 당초 지난 4월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 성남시 민속공예관 지하식당에서 매주 월~금요일 노인들을 위한 무료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실직자들이 늘어나자, 식당규모를 두배로 늘렸다.

한달에 7~8백만원에 이르는 부식비 전액을 약사사에서 지원하고 식당은 성남시로부터 빌어쓰고 있다. 신도들은 봉사활동을 자원한 1백30명이 순번을 정해 식당 일을 보고 있다.

이곳을 찾는 실직자들은 하루 2~3백명선, 최근엔 더 늘어 부식비가 부족하자 약사사 총무 신정순(48) 보살이 성남 성호시장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돌며 야채 등 반찬거리를 얻어오고 있다.

신 보살은 "성호시장의 경우 상인들이 팔고 남은 배추와 오이 호박 등을 모아오면 되지만, 가락시장은 일일이 가게에 들러 통사정해 시든 야채를 가져오는 바람에 무척 힘이 든다"고 말했다.

주지 혜안스님은 "아침 10시만 되면 점심밥을 먹기위해 식당 앞에 실직자들이 장사진을 이뤄 가슴이 아프다"며 "그러나 가끔은 회갑과 백일잔치를 치르고 남은 음식들을 싸오는 주민들이 있어 무척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日 평성사 실직기금 전달

조계종 총무원에 130만원

일본 동경 평성사(주지 해운)는 18일 조계종 총무원에 실직자돕기 기금 1백30만원을 보내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평성사 재일교포 신도들이 고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도필선 기자

용연사 새매표소 '마찰'

달성군 "자진철거" 사찰 "경내지식당 이전" 요구

경북 옥포 용연사(주지 원학)가 새 매표소를 임의로 설치한 것과 관련, 달성군이 철거를 주장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용연사는 최근 기존의 매표소에서 50여미터 아래에 새 매표소를 설치하고 높이 1.5m의 철조망을 설치했다.

그러나 새 매표소 안에 10여곳의 식당이 밀집해 있어 식당을 찾는 행락객들은 사찰을 참배하지 않더라도 문화재관람료를 내야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용연사측은 "사찰 경내지안에서 매표소를 옮겼을 뿐"이라며 "행락객들로 사찰주변이 어지럽혀져 수행풍토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새 매표소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달성군은 "용연사가 비슬산 군립공원내의 지역이라 자연공원법상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7월말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용연사측은 이와관련 달성군측에 사찰경내지에 있는 식당 9개소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직지 찾기' 전국 순회

운동본부, 시군·사찰에 협조요청

직지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현문)가 각 지방자치단체 박물관과 전국사찰을 돌며 보다 적극적인 직지 찾기에 나섰다.

7월 14일 문화재관리국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전국 시, 군을 통해 직지찾기를 유도하고, 조계종 산하 각 사찰의 직지찾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낸 운동본부는 7월 24일에는 경북 김천 직지사를 방문, 1243년 고려시대 관각된 재조대장경 가운데 하나인 금강경 주석서 〈금강반야바라밀경파취착불괴가명론〉 상하합본 인출분을 찾아냈다.

김현문 본부장은 "각 지방의 박물관이나 고찰 등에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채 쌓여 있는 고문서들이 상당수 남아있다"면서 "〈직지〉를 반드시 찾아내 공개할 수 있도록 스님과 불자, 전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직지찾기운동본부는 28일 청주시민회 사무실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비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도난 성보찾기 잊고 있는가"

"무관심도 훼불 방조" 교계 자성목소리
문화재사범 10명 구속…은해사 탱화 회수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가 도난당했던 석가모니탱화는 1년만에 되돌아 왔지만 도난 성보에 대한 회수대책의 부재는 여전히 불교계의 화두로 남아 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검사 김병현)은 7월 27일 왕릉부장품과 사찰문화재 등 수십억원대의 국보급문화재를 훔쳐 팔아온 문화재 전문도굴 및 절도범 20명을 검거,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80여점의 문화재를 압수했다. 압수된 문화재중에는 은해사 탱화(시가1억)와 한광사 금동불상(시가5억)을 비롯 시가 15억원상당의 조선조 소꿉놀이 청화백자 한세트 54점이 포함되어 있다.

대구지검의 문화재 절도범 무더기 검거는 문화재 도난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을 심각하게 드러냈다. 교계가 한번 잃어 버린 성보둔화재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94년부터 현재까지 도난당한 성보는 모두 26점이지만 이 중 회수된 사례는 6건에 불과한 점이 이를 뒤받침 한다.

특히 95년 1월에 도난당한 송광사 16국사 진영은 경찰의 수사마저 지속돼지 않은 가운데 당시 주지스님에 대한 징계로 일단락 되는 분위기마저 연출하고 있다. 또 도난 성보가 절도범에 의해 고의로 망실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부각됐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진불암의 탱화가 손상됐다는 이유로 소각 시켜 버린 것으로 드러남으로서 도난성보는 영원히 회수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갈수록 문화재 절도범 조직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 이번에 검거된 도굴 및 절도범들은 전국과 해외를 무대로 문화재 도굴·절도 및 밀반입을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어 도난 성보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구지검이 검거한 문화재 절도범들은 '문화재 도난도 심각한 훼불'이라는 인식이 교계에 보다 철저히 각인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교계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공식을 뛰어 넘어 도난 성보에 대한 회수대책을 보다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 1백여명의 불자들이 7월29일 조계사 경내에서 양심수의 조건없는 전원석방의 기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행진했다.

8·15 양심수 석방기원
불교대책위 조계사법회

8·15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기원 대법회가 2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8·15 양심수 석방을 위한 불교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주최로 열린 이날 법회는 설정스님의 법어, 민가협 목요집회 스크린 시청,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및 20여명에 대한 진관스님의 탄원시 낭독, 특별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됐다. 또 조계사 경내에서 촛불행진도 펼쳤다.

한편 불교공동대책위는 이날 법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단행될 8·15특별사면과 복권으로 모든 양심수들이 조건없이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경주 남산 비파골 산불 복구 늦어
세계유산 등록추진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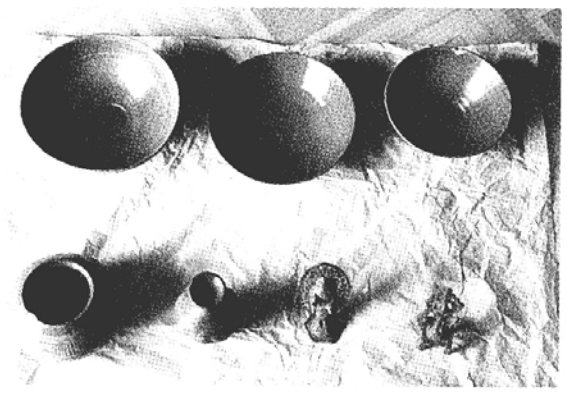
문화재 관리국이 지정한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남산 비파골에서 발생한 산불로 임야 70ha가 훼손됐으나 경주시는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순환도로와 인접한 14ha만 조림계획예정지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관리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의해 세계문화유산등록 대상으로 잠정 결정된 경주 남산은 내년 6월말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등록을 신청, 2천년 상반기에 유네스코 평가조사단의 실사를 받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화오과장(경주시 공원과)은 "산불이 날 경우 3년이 지나야 토양의 미생물이 회복돼 조림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남산은 9월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도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때문에 좀더 빨리 조림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남산의 경우 문화재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자체에서 예산 마련도 어려워 현재 중앙정부에 조림계획서를 올렸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불입상 2점(아랫줄 우측)과 청자대접 분청사기호 1점이 우이동 법안사 뒷편 바위틈에서 발견됐다.

연꽃잎 새긴 청자대접 발견
우이동 법안사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15㎝ 금동불입상 2점과 연꽃잎이 양각된 청자대접이 우이동 법안사(주지 정연) 뒷편 바위 틈에서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연스님(법안사 주지)이 발견한 금동입상 2점과 연꽃무늬 청자대접은 손상된 부위가 거의 없이 원형그대로 발견된 것이다. 이외에도 9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대접과 14세기 청자대접 1점, 15세기 분청사기 호(壺) 1점이 함께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청자대접은 초기 청자의 대표적인 특징인 '햇무리굽'의 형태를 띠고 있어 초기 고려청자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햇무리굽은 대접의 바깥쪽 바닥에 붙어 있는 넓고 둥근 모양의 굽이다.

강지연 기자

'불교방송 후원회' 확대 개편
종단협 중심…올내 1만회원 확보 목표

불교방송 후원회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중심으로 확대 개편된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7월 31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종단협 회장 월주스님을 당연직 후원회장으로 추대했다. 부회장에는 태고 천태 진각 관음종 총무원장과 중앙승가대 총장 지하스님 조계종 초심호계원장 월서스님등 6명을 선임했다. 또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는 각 종단의 총무원장과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주지 등 50인을 위촉키로 했다.

현재 5백여명인 불교방송 후원회는 금년 중으로 1만명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불교방송 후원회는 19일 불교방송 3층대법당에서 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과 후원회 인수 인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불교방송 이사회는 이날 현재의 이사 정족수 21명을 31명으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신도 사찰환경지킴이
'푸른봉은다솜회' 발대

"나는 이웃을 돕고 자연을 살리며, 인간과 다른 생물사이의 평등과 평화를 이루는 생명살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1기 봉은사 생태학교(교장 원혜) 지도자교육 수료식 및 '푸른 봉은다솜회'(회장 조현숙보살) 발대식이 7월28일 오후 봉은사 미륵전에서 개최됐다.

다솜회 회장 조현숙씨는 '만생명을 위한 불자의 서원'을 세우고 불교환경운동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다. '다솜회'는 봉은사 신도들로 구성된 최초의 사찰환경지킴이로서 지역·사찰·생활환경분과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봉은사는 분기별로 사찰 생태학교를 개설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해인골프장 착공
가야건설 1년 연장

해인골프장 사업주인 가야개발(대표 김선국)이 골프장건설 착공시한을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야개발은 '착공시한을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는 관련규정에 의해 지난 4월 사업계획 착수기간 연장신청서를 경북도에 제출, 99년 4월22일까지 착공시한을 연장받았다.

이로써 IMF로 착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해인골프장의 건설여부는 내년이 돼야 판가름 나게 됐다.

이윤호 기자

뉴스 & 뉴스

통도사 도메인 또 도용

사찰이름 인터넷 도메인이 또 다시 도용된 사실이 밝혀져 국내 사찰명 도메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국내 주요사찰 이름의 인터넷 도메인 사재기로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또다시 통도사 도메인을 외국인이 도용·등록한 사실이 추가 발견됐다. <본지 183호 23면 참조>

이같은 사실은 통도사 우진스님이 사찰 도메인 사재기로 물의를 빚었던 마우스정이 등록을 포기한 후 'tongdosa.org' 도메인 등록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원 불명의 영국인에 의해 먼저 등록된 사실이 확인돼 밝혀졌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탑사 대웅전 철거명령 '위법'

진안군(군수 임수진)이 그동안 마이산 탑사(주지 이왕선)에 대해 대웅전과 산신각 등의 건물을 철거하라고 한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1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지난 2월5일 관결한 계고처분취소건에 대한 진안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필선 기자

대불련, 통일부처님 봉안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성철)는 9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통일부처님을 봉안하고 염주 3만개를 봉정한다.

높이 1미터 좌불인 통일부처님에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대학생 불자 3백여명이 8일 강원도 낙산사 보타전에서 사경하는 '통일반야심경' 3백여장을 복장해, '통일세상'을 바라는 청년불자들의 염원을 담는다.

대불련은 최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효)의 방북 초청을 받은 지선스님(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통해 통일부처님과 염주 3만개를 북한에 전해줄 방침이다.

오종욱 기자

팔영산 도립공원 지정

능가사 대웅전, 범종 등 지방 문화재 3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고흥 팔영산이 7월20일 환경부로부터 도립공원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팔영산 일대 9.9㎢에 대한 공원계획 수립에 나서 관련기관 협의후 도립공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지연 기자

실직자 용기백배캠프

대구 불교사회복지회(대표 지도스님) 부설 남구 희망의 쉼터는 7월29일 청도 운문사 일대서 실직자들을 위한 '용기백배캠프'를 실시했다.

40여명의 실직자들이 참가한 이날 캠프는 운문사 참배·법문 등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캠프에 참가한 실직자들은 구직할 때까지 대구 달성공원에서 열리는 토요나눔마당(노인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게된다.

이윤호 기자

목탁소리

훼불 강건너 불인가

정 성 운 〈취재1부 차장〉

"신앙을 위해 신변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최근 잇따르는 훼불만행을 보고 한 불자는 이렇게 탄식했다. 불교를 우상숭배, 부처님을 마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제 법회를 보고 있는 법당에 무슨 일을 벌일지 무서워진다는 것이다.

또다른 불자의 반응. "절에 불을 지른 방화범을 잡아놓고도 정신병자로 취급, 몇 달 가둬놨다가 풀어주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과 정부당국이 훼불을 방조 내지는 묵인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다.

누구도 불자들의 신행공간인 절을 지켜주지 않는다. 불을 지르고 부처님을 깨뜨린 개신교인들은 반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며 큰소리치는 형국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종교편향 척결을 위한 공동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7월 18일에는 부산과 제주 등의 불자들까지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그런데, 29일로 예정됐던 공동조사위원회 2차 회의가 성원 미달로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간조사결과(성북구청, 송파구청, 부산 금선사, 국방부)에 따른 대응조치, 제주도 방문조사, 8월8일 법회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위원장 진관스님과 법안스님(종회의원), 간사 손상훈 종교편향대책위 사무국장만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측 위원들은 불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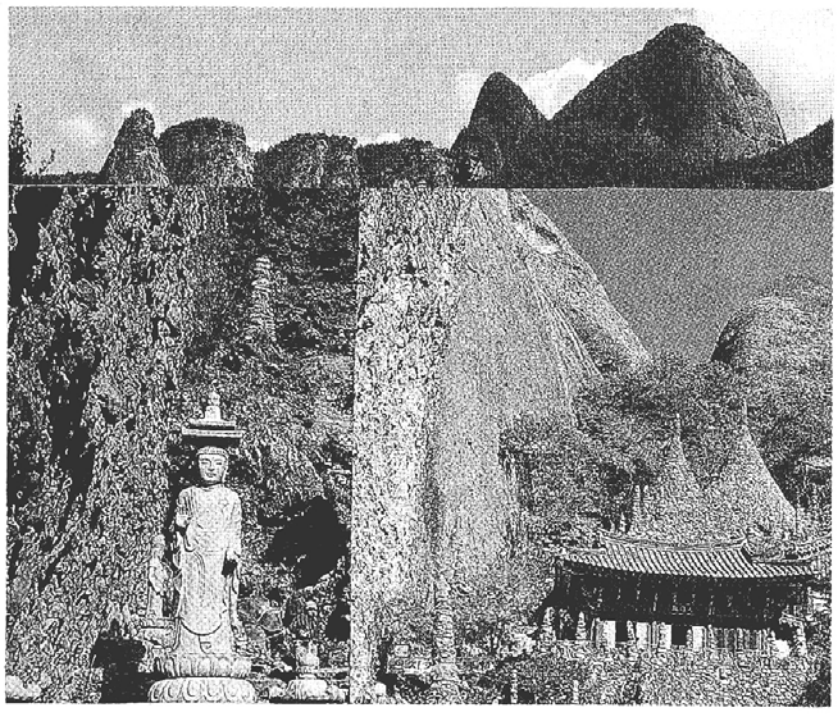
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총무원 성토장이 되었다. "불자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귀의하는 불상이 깨뜨려지고 스님이 대낮에 신도들 보는 앞에서 수갑 채워져 끌려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총무원은 뒷짐만 지고 있느냐. 종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총무원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자비를 들여 조사활동을 벌인 스님들만의 항변이 아니다.

훼불과 종교편향을 '사소한 일'로 여기고 있는지 총무원에 묻고 싶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유로 신변의 위협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swjung@buddhapia.com)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딩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알기 쉬운 문답식
관상 수상학 강의

딱한번 보고 사람을 알수있는 성공 비지니스의 **처세술과 운명학**

상(相)을 보는법이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생김새의 미추(美醜)의 마음씨의 선악(善惡)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부귀 빈천의 골격, 그리고 운세상의 길흉을 얼굴의 생김새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추리하는 원리를 논하는 것이다.

원광대학교 명誼敎 /신국판/칼가15,000원

근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B/D TEL.02)921-8434 FAX.02)929-3470



禪

선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송대 임제종 천오스님 운문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만든 (벽암록)은 종문 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싹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삶이있는 선

오소리즈니의 강의/류동정옮김 /값 9,000원

성하출판 TEL.273-4451~2 FAX.273-4450

寺刹文化硏究院
전통사찰총서



1 · 2 강원도 I · II
3 경기도 I
4 서울의 전통사찰
5 인천, 경기도의 전통사찰 II
6 전남의 전통사찰 I
7 광주, 전남의 전통사찰 II
8 · 9 전북의 전통사찰 I · II
10 · 11 충북의 전통사찰 I · II (근간)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10-1 요진오피스텔 710호
전화 (02)396-5318 팩스 (02)394-8728



염불의 사상, 역사, 실천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한국 최초의 책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말법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맞는 수행법은 과연 무엇인가!

가장 행하기 쉽고 그 공덕 또한 가장 수승한 수행법!

이 책은 다양한 염불의 종류와 이들이 생기된 근원, 발전과정 그리고 각각의 공덕들에 대해 수많은 경전과 논사들의 주장을 토대로 고찰하고 있다.

이태원 著/신국판 양장 /726쪽/값25,000원

순주사 서울 종로구 창신동 6 TEL.02)720-9372~3 FAX.02)723-0646

불교계 출판사들이 권하는
한여름의 시원한~
책

누구에게나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한권의 책을 선택하십시요!

본 지면은 더위로 인한 여러분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현대불교신문사가 불교서적을 중심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출판사는 본사 영업부로 연락 바랍니다. ▶ (02)737-8881(代)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법 통해 저승길로 안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성력 세계!
부귀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의 내림대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보호한 영혼은 우리 앞에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형상에서 떠오는 색은 빛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고, 색상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이루어지도 보내주면 후광이 물러지는데 보라는 방법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병은 물이 낫게 됩니다."

김정기 著/신국판 240쪽 /값6,000원

도서출판 광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동양B/D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



佛名辭典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
1,420개의 불명해설 (거사불명 700개, 보살불명 720개)

각 불명이 갖고 있는 뜻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해설했다. 아울러 불교의 여러 가지 경전 구절을 찾들어 수록하여 자칫 분별만 설명되어 산상하기 쉬운 사전식의 체계에 다양함을 가미했다

- **수계식에 대한 설명 수록**
  계신도등 희한 계(戒)을 받는 의식의 순서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고성훈 역음 신국판 양장 /319쪽/값20,000원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전화 (02)313-5047/5060 팩스 (02)392-9696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일타큰스님의 불교책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 5,000원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으로 엮었다

생활 속의 기도법 문고판 140면 3,000원
실생활에서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방법 등을 지상한 법문과 함께 예화(例話)를 실어 알기 쉽게 엮었다

기 도 신국판 288면 5,000원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 제자, 신도들의 기도성취 체험담 모음집

도서출판 蓮 林 전화 (02)587-6612팩스 (02)586-9078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전화를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정토문고 1 **장 · 수 · 멸 · 죄 · 경**
-태아령 천도공양법-
자승의 어머니 지장보살을 통해서 부모의 희생을 알고 어린영혼들을 정토에 태어나게 하는 지비의 가르침

정토문고 3 **죽음을 준비합시다**
-중음신 해도법-
죽음과 환생의 세계를 마조게 예워 살의 집을해당게 하는 소중한 내용이 해강과마다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죽음과 환생사이의 영혼을 스스로 제도하는 방교와 방도의 해설되는 가르침

최강해설 /값4,000원

불교출판 蓮池門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전화 0694)52-1755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페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어떤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에 선사는 '뜰앞의 잣나무니라'라고 답했습니다. 이 공안을 음미합시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가 9년 면벽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화두도 음미합시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한 방편으로 선물코기 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우리를 구제하시는 방편으로 전해주신 공부법도 선물코입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공덕으로 삼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 나무 석가모니불 - 제작자 합장

제품명 화엄큰스님 달마도 **재질** 순금 99.9% **크기** 5.2cm × 7cm **가격** ₩20,000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펴아 주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부다피아 쇼핑몰 TEL.02)732-1522/737-8881 FAX.02)737-0697

부처를 보려거든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라
- 달마 -

달마도의 신비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을 열어
바람직한 이프시길
바랍니다.

松江企劃

불교음반유통
음반제작/EVENT기획

명상명곡
찬불가
복교음악



법문
경전
독경

내면의 울림/진리의 法音
송강기획만이 자랑하는
불교의 Music!

협 · 찬 · 사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 TEL (02)745-6015
- FAX (02)745-6017

도서출판 **세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 전화 3462-2277 / 팩스 3462-2279

역사속으로 찾아가는 죽음기행!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 - **<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답은 끝 있었다 - **<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 - **<경향신문> 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돌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 - **<현대불교신문> 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 - **<서울신문> 5.5.**

- 신국판 | 304쪽 | 값 7,000원
- 저자 : 맹 란 자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를 위해
가격에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강남)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